



8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8호

(루계 430)



◆◆◆◆◆◆◆◆◆◆ 차 례 ◆◆◆◆◆◆◆◆◆◆

그 믿음 그 사랑 안고 (외1편).....	4
흰파도.....	5
백두산폭포.....	5
강선의 백양나무.....	6
김정일 그이와 함께 전진하노라.....	7
향도의 빛발로 우리 앞길 밝게 비치시라.....	7
향도의 별.....	8
사무치는 그리움.....	10
서리꽃.....	12
정다운 미소.....	13
두번째 배치장.....	21
남해가 끓도록 만세를 부르리.....	25
먼바다어로공.....	26
혁명적비극의 참다운 본보기.....	30
간석지에 핀 노을.....	34

수양버들	39
청천강반에 노을이 탄다	40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삶과 리상에 대한 사색과 탐구.....	43
막장의 불빛	51
용해장에 흐르는 시간	52
백양나무 설레는 땅에서	53
네번째사람	56
미완성조각	59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형식주의문학론의 반동적본질.....	68
그렇게 찢어버릴테다	74
《월미도》의 3일간처럼	75
나의 청춘, 푸른 숲	77

그 믿음 그 사랑 안고 외1편

강창영

봄을 맞는 대지에
내리는 마음인가
송이송이 하얀 비료송이들이
쌓이고 덧쌓이는 비료산

비료산위에
내 마음 조용히 없으면
그날처럼 뜨겁게 안겨오누나
이해의 첫 아침에도
화학고지에 큰 힘을 넣자시며
우리 수령님의 간곡하신 당부...

비료는 동무들에게 말긴다고
오실 때마다 하시던 그 당부
오늘에도 그날같이 내 가슴 뚫게 해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도
이른새벽 문득 깨어나도
비료산을 안고사는 마음...

언제부터 받아안았던가
우리 수령님의 그 당부를
어디서부터 우리 걸어왔던가

해방된 새 조선의 봄을 안고
푸른 모들이 춤추던 그 논벌이던가
겉쌓인 시련의 해들을 넘어
협동화의 새길을 내딛던 그 기슭이던가
아니면 포연서렸던 구내길
지금은 함성탑 높이 솟은 저곳이 아니던가

찾아오실적마다
화학공업의 앞장에 동무들이 서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진다시며
손을 굳게 잡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손길
아, 한생 비료와 함께 살아오건만
다시금 그 한생을 비쳐보게 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그 믿음이여

수천리 간석지 넓은 벌우에
머나먼 산간의 다락밭우에
풍년별이 이어지는 오늘에도
내 다시 받아안은 당부여

화학화로 꽃피는
이 땅의 별과 골에 금나락 설레고
풍년노래 울리는 맑은 하늘아래
인민의 행복과 기쁨은 차넘치건만

오실 때마다 하시는 그 말씀
마디마디 인민위한 사랑이시고
변함없이 주시는 그 당부
마디마디 인민 위한 은정이시니

주시고 주시는 그 당부속에 있어라
그 옛날 그늘졌던 그 얼굴들을
봄빛넘치는 푸른 하늘아래 내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의 생활 활짝 꽃피워
이 세상 가장 밝은 언덕우에
높이 올려세워주시는 그 사랑

한평생 인민 위해 마음쓰시는
어버이사랑의 빛발아래
내 마음 풍년들에 꽃피나는가

쌓이고 덧쌓이는 비료산너머
더 높이 내다보이는 풍요한 언덕
억만포기 금나락 설레는 소리
탐스런 과일들의 그 향기
어서 오라 나를 불러
만풍년의 비료산을 높여가는 내 마음

아, 수령님의 그 당부 위해서라면
내 한줌 비료가 되어 묻힌다 해도
기꺼움에 한이 없으리
어버이품에 억센 뿌리를 내린
로동계급의 변함없는 의리를
내 드림없이 지켜가고저...

흰파도

먼발치서 어머니를 부르며
너는 달려와 불안기누나
하얀 손길로 기슭을 맑게 씻으며
한순간도 변지지 않구나 그 맘...

흰갈기를 날리며 달려와
광광 절벽에도 맞받아쫓구치며
바위에 부딪쳐 창창 부서져도
머리 들고 다시 일어나 부여잡누나
어푸러지며 기슭에 홀어젖다가도
그리움과 열정에 넘쳐 그러안는구나

아, 때려도 꾸짖어도 어리광부리며
어머니치마폭에 기여드는 아이인양
조국의 품으로만 찾아드는
너는 내 마음
이 몸이
억만 구슬알로 부서지고
이 몸이
바다 한끝에 떠밀린다 해도
내 어머니 그 품을 못떠나
아, 너는 진정 내 마음!

백두산폭포

전계승

머리에 흰눈 없는
백두산의 산발
안개 피는 천만 골짜기들을 흔들며
절벽을 차고
쏟아지는 폭포수

억만년 흐르던
백두의 태고연한 정적이며
여기서 누리를 향하여
고고성 터치는가

수난에 절은 오랜 력사우에
폭풍의 새시대를 선포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언
항일의 전장마다 울려퍼지던 그 메아리런가

장엄하여라
구름도 스치는 벼랑끝에서
뛰어내리는 폭포수, 폭포수
천하를 떨치시는 장군님의 구령 따라
일행천리로 산발을 날아내리는 전사들
어깨우에 꿰쳐지던 그 백포자락이런듯

천고의 풍상어린
바위를 들부시며 쏟아져내리는 물줄기

결사전의 언덕 너머
높이 울리던 진격의 나팔소리
멸적의 총포탄소리 오늘도 울리는듯

하늘에 솟구쳐 흰갈기 날리고
천만길 떨어져 지심을 구를 때
억만메부리들 천군만마로 줄달음치고
밀림의 바다 동서천리에 설레이며
주체위업의 전통 온 누리에 떨치나니

순간도 서지 말라!
영원히 고동치라!
내 가슴
세차게 세차게 흔드는
백두의 거센 숨결
백두산폭포여

여기서
혁명의 그 숨결 받아안은 내 가슴
위훈으로 높뛰며 나아가리라
이 세상 가장 준엄한 시련의 한끝에 선다한들
절벽도 박차고 내닫는
오, 백두산폭포처럼
순간의 주저도, 멈춤도 모르며...

강선의 백양나무

정영호

전기로의 동음에 실리어
푸르른 잎새들 설레이고
쇠물빛 노을에 물들어
그 모습 숭엄하여라
강선의 백양나무

아지마다 청신한 잎새들
조용히 설레이는 네 모습
모진 시련의 폭풍우도 맞받아
꽃꽂이 이기여나간
강선의 그 마음이 아니런가

안기여와라
무더운 8월의 불별아래
재가루만 날리던 그날엔
강선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
서느러운 그늘 한점 못드리였더라

모든것이 불에 타고 부서진
너무도 참혹한 폐허의 숲을 보여드린것이
가슴에 마쳐와
그이 앞에 모두 몸둘바를 모르던
그날의 아프던 그 마음을
너도야 어찌 잊으랴, 잊혀질수 있으랴

의자마저 밀어놓으시고
부서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그이께서 환히 웃으실 때
모든 시름이 봄눈처럼 가셔지던
강선은 언제나 그날의 그 마음

끊어져나간 철기둥을
다시 세우면서도
파괴된 로벽에 얼어붙은
쇠물을 뜯어내면서도
가슴마다 못건디게 흘러들던 뜨거운
설레이는 백양나무 네 잎새소리

억척같이 안아 일떠세운
전기로에서
한 교대에 세차지나 쇠물을 뽑아내고도
가슴들을 두드리여라
쇠물보다 뜨거운 그날의 맹세가

오늘도 가슴마다 끓고있어

찾아주신 날 많고
기울여주신 사랑 많아도
전화의 불길이 멎은지 열흘도 못되어
재더미를 헤치며 오시여
쇠물의 폭포로 온 나라를 일떠세우자고
그토록 크나큰 믿음,
한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던
그날을 못잊어
그 언제나 가슴에 안고사는 강선의 마음

그 마음을 다 안다고
끝없이 설레이는가
세월의 사나운 비바람에도
휘여질줄 모르고
푸르싱싱 아지를 끈게 펼치는
백양나무 너는야
그 어떤 어려움도 눌러딘고
한 마음을 쇠물로 받들어가는
강철로동계급의 강직한 그 기상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충성의 그 마음
너와 함께 자라고
너와 함께 구내길을 넓혀가고
너와 함께 밤을 모르며
쇠물의 노을을 불태워가거니

세기의 하늘가에
천리마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온 세상의 앞길에 내세워주시며
그이께서 이 땅우에 꽃피워오신
만대에 빛내여갈 쇠물의 력사
금지높은 공업의 력사를 소리높이 노래하는
너는야 참으로 자랑스런 력사의 증견자

아! 설레이는 강선의 백양나무야
너는 강철로동계급의 가슴마다
수천수만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자라고있어
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
억년 드림 모를 신념의 뿌리를 내리며
푸르싱싱 한마음 끝없이 설레이며

김정일 그이와 함께 전진하노라

싸싸이 레쇼메

장엄하고 웅장한 산속에서 솟은 샘물
대하되어 대지를 적시듯이
인류가 받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 **김정일**
동지
위대한 자주시대에
새형의 지도자로 출현하시였어라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
여기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폭풍속에서 성장하시며
위대한 지도자의 고매한 품성을 지니신
김정일 동지

그이는
전쟁의 가렬한 포화속에서도
어려운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빛나게 령도하신
아버님을 따라 배우시였다네
탁월한 지도자가 지녀야 할 고귀한 모범을

벌써 주체예술의 빛발로
가극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신 그이
세계를 경탄시킨 그 비범한 예지를
인류는 소리높이 칭송한다네

세계인민은
그이께서 미래의 조선의 새 지도자
세계혁명의 새 투사로 되시기를
간절히 념원하였다네
그이는 그 기대, 그 믿음 안으시고 추대되시였라

조선인민들 우리러 받드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계인민들 우리러 경모하는 위대한 령도자로

위대한 수령님 개척하신 주체의 한길로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 따라
자주시대의 령마루에 올리신 조선인민
인간도 사회도 자연도 투쟁으로 개조하는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였나니
주체조선은 인류의 찬란한 미래의 상징

력사는 증언하여라
자주성은 모든 민족의 생명
반동과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적의 거인
세계는 주체의 해발 따라
영원히 전진하는 자주의 길우에 서있으리라

주체의 기치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명한 지도자의 령도밑에
세계는 영원히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아가시
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손길 따라
우리는 전진하리니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노
라

(필자는 에티오피아 예카띠프 25/67종합
중학교 분과장임)

향도의 빛발로 우리 앞길 밝게 비치시라

움베르토 오르피즈 플로레스

한밤에도 문득 떠올라라
가장 존경하고 친애하는 영상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존귀한 모습

그 영상 한번 우리르면
마음속의 온갖 시름 다 사라지고
그 영상 한번 우리르면

막혔던 매듭도 쉽게 풀리어라
 어버이수령님의 해발 안고
 재생의 길을 찾은
 에파프르 전사들의 앞길을
 친애하는 당신의 위대한 그 빛발로
 향도의 그 빛발로
 찬란히 밝게 비쳐주시여라

해와 별 빛나는
 영광의 조선
 인류의 태양 솟아오른
 만경대고향집을 찾았을 때
 내 한평생 태양의 아들 되리라 굳은 맹세 다지였
 고
 머리들어 향도의 별 솟아오른 백두산을 우리를
 때
 다시한번 그 맹세 굳히었노라

주체사상은 곧
 위대한 태양이며
 향도의 별
 주체사상은 곧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의 상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의 상징

우리 생활의 전부이며
 행복과 기쁨의 원천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시켜나아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우리들은 오직 한마음
 당신의 영원한 전사로 살며 투쟁하리니

향도의 빛발이시여
 우리의 앞길 더욱 밝게 비치시라
 인류를 광명한 미래으로
 더욱 힘차게 이끌어나아가시라

우리들은 오직 한마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길이길이 젊어계시옵기
 삼가 충심으로 바라노라

(필자는 에파프르 불문파드출판사 사장임)

향도의 별

파라마나나 레오나르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는 훌륭한 력사
 승리와 영광의 력사
 그 승리 그 영광 위해 용감히 싸운 조선인민
 행복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어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탁월한 지도자로 모시었
 기에

무궁무진한 힘을 지닌 훌륭한 조선인민
 불멸의 주체사상 따라
 세상에서 으뜸가는 새 사회의 건설 위해 앞장서
 나아가네
 친애하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 따라

탄생 마흔뎡을 맞으시는 **김정일**동지

위대한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시대의 념원을 안으시고 자라신 투사
김일성주의시대의 향도성
 당과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로 되시였어라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그이께 드리는 노래
 쓰고 또 쓰고싶건만
 그이의 귀중한 업적 불멸의 공적을
 내 어찌 다 노래할수 있으랴

오, **김정일**동지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숭고한 덕성
 탁월한 령도력으로 하여

조선은 번영과 행복 넘치는 나라
세계강국의 대렬에 떳떳이 서있어라
조선은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를 향하여
신심도 드높이 전진하여라

백두성산에서 솟아오른 찬란한 향도의 별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전인류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여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
더없이 즐겁고 경사로운 이날을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환희와 기쁨속에 맞이하나니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내어나아가시는
그이의 위대한 령도를 만민은 칭송하노라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여
온갖 원썩들을 반대하고 착취와 압박을
가서버리기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령토완정과 민족의 자결권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지도적지침과 전략을 안겨주시었나니

그이께서는

온갖 불공정성을 불사르고
제국주의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고계시여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아가시는
향도의 별
그이의 탄생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행복이며 기쁨이거니
승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그이의 령도는 향도의 해발 되어 우주를 밝게 비
치고
그이의 존함 세계의 존경을 불러일으키여라

혁명의 위대한 기수이시며
사상과 령도의 천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조선을 주체의 조국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우
시었나니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빛발아
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주체사
상의 빛발아래
억압받고 착취받던 세계인민들
혁명의 주인되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아가고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길로 큰걸음 내디디며 전진
하네

그이께서는

식민지의 멍에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싸우는 혁명
가들에게

김일성주의학설을 안겨주시었나니

그 학설은 공산주의사회건설의 대강

그이에 의하여

혁명의 기관차 백전백승하는 주체의 궤도우를 달
리고

곳곳에서 해방투쟁 일어나 식민주의를 무자비하
게 쓸어버리여라

세계는 바라노니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찬란한 향도의 별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세!
조선인민과 전인류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만세!

(필자는 알제리에서 공부하고있는 말가슈학생들
의 주체사상연구소조 부책임자임)

사무치는 그리움

박경출

며칠전 휴식날에 나는 한 옛친구네 집을 찾아 갔었다.

방금 점식상을 물리고난 뒤여서 친구는 담배를 피워물고 어린 손자녀석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빙글거리고있었다.

철남이라는 다섯살난 귀여운 어린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초상화를 두손으로 공손히 가리키며 짹짹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원수님의 사진은
언제 봐도 기뻐요
우리들이 어드때나
보고싶은 원수님

노래를 잘 부른다고 주어주자 어린것은 더욱 신명이 나서 한껏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불렀다.

새별같이 반짝이는 두눈, 보조개가 오목오목 패이는 양볼, 기쁨에 넘쳐 방글거리는 얼굴!

마구 불을 비벼주고싶은 충동을 이길수가 없었다.

《어린것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무심히 들을수가 없구만...》

노래를 다 부르고나서 할아버지의 목을 두팔로 그러안고 재롱을 부리는 손자애를 애무하며 하는 친구의 말은 뜻이 깊게 들렸다.

아직 동서남북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가리지 못하는 이 어린것들이 아버지원수님 보고싶다고 날마다 부르는 이 노래를 듣느라만 불비 쏘아지는 고지들을 찾아다니던 취재의 나날들에 만난 전우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자나깨나 가슴불태우던 인민군용사들의 잊을수 없는 모습들이 가슴뜨겁게 되살아난다는 것이었다.

취재수첩과 원고지가 든 전투가방을 멘 우리가 포탄차우에 몸을 싣고 적 야간폭격기가 밤새도록 머리우에서 맴돌이치며 발악하는 험한 마식령과 철령을 넘어 전선으로 내달아가던 그때로부터 어언 서른해란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취재수첩에가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는 잊지 못할 전우들, 세월과 더불어 영원한 망각속에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을 뿌리며 우리 생활을 보다 값있게 이끌어주고 우리 삶

을 보다 빛내여주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먼 적후정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적들에게 포위되어 절망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승리의 광장으로 달려가 만나뵈을 최고사령관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그려보고 장수힘을 얻어 포위망을 뚫고 기어이 부대로 돌아온 젊은 정찰병들에 대한 이야기며, 여러군데 부상당한 몸으로 고지에 혼자 남아서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악을 쓰고 기여오르는 원쑤놈들을 모조리 쳐물리치고 끝끝내 고지를 지켜낸 아바이전사에 대한 이야기들에 뒤이어 우리는 놈들의 《추기공세》가 한창이던 전선동부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되었다.

어려운 싸움이 거듭되던 어느날 밤 한 구분대에서는 기록영화를 돌리고있었다.

전쟁전, 해방된 조국의 벅찬 새생활들이 화면을 따라 사뭇치며 흐르는 동안 전투원들은 사뭇 웅성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장내에서 폭풍같은 환성이 터져 올랐다. 5.1절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주석단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오신 것이었다.

건잡을수 없는 감격이 장내에 회오리쳤다. 기쁨에 빛나는 눈들, 세차게 들먹이는 가슴들, 새근거리는 숨소리들...

그분의 명령이라면 불을 뿜는 적의 화구에도 서슴없이 뛰어들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서만 살고 싸우며 꿈결에도 애타게 그리던 어버이장군님을 영화화면에서나마 이런 가렬치절한 싸움터에서 뵈게 된 전투원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숨을 몰아쉬며 뜨거운 이슬로 번쩍이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던 전투원들은 마침내 주석단앞에 이르러 더 나아갈줄을 모르고 장군님을 향해 높이 쳐든 두손을 마구 흔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목메여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에게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주시며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뵈옵게 되자 너무나 벅차오르는 가슴들이 자칫 터질가 저어하는듯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볼위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었다.

아, 승리의 그날이 어서 오라!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명령따라 싸움마다 승리한 끝없는 자랑을 안고 승리의 광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충성의

보고 울리고 저렇게 장군님의 자애로운 애무를 받으리라!

전투원들은 저마다 뿔어오르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을 우러르고있는데 영화화면은 5.1절장면이 끝나고 그만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다.

순간, 감격의 절정에 섰던 전투원들의 마음은 삽시에 따뜻한 어머니품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처럼 허둥거렸다.

바로 이때 영화기술원을 향해 웨치는 한 전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리었다.

《필름을 다시 돌립시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인차 여기저기서 다른 전투원들도 그에 호응해 나섰다.

《알았수다!》

잠시 어안이 병병해있던 영화기술원도 전투원들의 불같은 심정을 전류처럼 받아안자 이렇게 웨치며 지체없이 영사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재빨리 필름을 다시 감아서 5.1절장면을 몇번이나 다시 돌리었다.

비록 영화화면에서나마 비울수록 흙모의 정 끓어올라 와락 그 품에 안기고싶은 마음 간절해지는 어버이장군님!

이제 새날이 밝으면 또다시 총창을 비껴들고 결사전에 뛰쳐나서야 하는 이 마당, 매 순간의 생사조차 기약할수 없는 가릴치질한 싸움터에서 그림고 그림던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몇번이고 몇번이고 우러러뵈는 전투원들은 당장이라도 평양으로, 최고사령부로 달려가고싶은 충동으로 몸부림쳤다....

그 누구도 잠을 이룰수 없었던 그날밤의 그 전투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누나들과 같이 책들을 뒤적이고있던 철남이가 잡지 한권을 펼쳐들고 와서는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물었다.

《할아버지! 이 아저씨, 아주마들 왜 우나요?》

그것은 조국을 찾아온 총련의 예술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량팔에 매달려 흐느껴울고있는 사진이었다.

이미 여러번 본 일이 있었지만 또다시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의 눈시울은 금시 화끈거렸다.

바다 건너 먼 이국땅, 악독한 민족적, 계급적 원수들의 모진 억압과 천대 속에서도 고개를 번듯이 쳐들고 곳곳이 살아올수 있게 해주신 어버이수령님, 자나깨나 그리고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꿈이 아니라 바로 생시에 이렇게 만나뵈옵고

따사로운 어버이사랑을 마음껏 받아안게 되었으니 어찌 심장이 높뛰고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오르지 않으랴!

이 격한 심정에 대하여, 이 뜨거운 눈물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해주어야 이 어린것의 의문을 풀어줄수 있을것인가?

친구는 딱해졌다.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구 떨어지기 아쉬워서 그런다. 이제 너두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 말뜻을 알게 될게다.》

두눈을 그냥 말뚱거리는 손자애를 꼭 그러안으며 이렇게 일러주었으나 친구의 말에는 자신이 없었다.

부모들의 따뜻한 품속에서 고이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그 절절한 그리움을 도저히 다 알수 없듯이 과연 이 어린것들, 괴로움도 슬픔도 모르고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기쁨과 행복만을 마음껏 누리고 자라는 계급의 우리 어린 세대들이 장차 어른이 된다고 이 말뜻을 다 리해할수 있을것인가?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터에서 영화필름을 다시 돌려가며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던 인민군용사들의 그 사무치는 그리움에 대하여, 그림고 그림던 아버지원수님의 팔소매에 매달려 마구 흐느껴우는 총련예술인들의 그 형언할수 없는 기쁨에 대하여 과연 다 리해할수 있을것인가?

여기서 나는 이보다 더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그 불같은 그리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몸가까이 만나뵈울수 있으며 집집마다 일터마다 초상화를 모시고 수많은 출판물들과 영화와 텔레비전 화면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날마다 우러를수 있는 우리들, 수령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북반부인민들과는 전혀 다른 처지에서 살아오는 남녘인민들이 해방전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오직 피끓는 심장속에만 고이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여야 하며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속에서 오래 신음할수록 태양을 그리는 마음이 더 못견디게 절절하듯 암

흑의 남녘땅에서, 그 지하에서, 감방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애오라지 그 사랑의 품에 안길 그날
만을 생각하고 천신만고 힘겹게 싸워오는 남녘형
제들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 끝없는 그리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을 그리는 남녘겨
레들의 그 뜨거운 마음과 철석같은 신념에 대하
여 남조선의 한 주민은 자기 수기에서 이렇게 썼
다.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
의 존귀하신 영상은 영원히 지울수 없는것이며
우리의 현실생활이 고달플수록 수령님에 대한 경
모의 마음과 그리움은 더더욱 간절해진다.》

그 무슨 힘으로도 누를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 사무치는 그리움은 또한 그대로 열화같
은 충성심이 되어 남녘겨레들의 심장을 세차게
불태우고 있지 않는가!

자나깨나 언제나 모진 재난을 이겨가며 어버이
수령님의 품에 안길 그날만을 애태우며 그리는
사람들...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찾아오는 눈부신 아침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아낼수 없듯이 이제 기어이
멀지 않아 오고야말 그날, 사무치고 사무친 그리
움이 마침내 폭발하는 그날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목이 쉬도록 만세
를 부르고 또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릴 그날은 오고야말리라!

우리는 한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없이 생각
에 잠겨 앉아있었다.

사무치는 그리움!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
의 마음의 시작이며 마음의 끝이다.

한것은 그 마음속에서 혁명의 승리가 이룩되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기때문인것이다. 또한 그 마
음이 어버이수령님을 받드는 인민의 충성심이기
때문인것이다.

손자녀석은 또다시 두손을 곱게 우로 올려 어
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노래불렀다.

나비같은 리봉에
아름다운 무용복
노래하며 춤을 추면
웃어주는 원수님

친구와 함께 나도 근엄한 생각에 잠겨 손벽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잠겨...

서리꽃

량덕모

울긋불긋 피어나
별나비를 부르던
산꽃 들꽃은 다 스러져도
여기 건설장엔 꽃피났구나!

아스라한 산정 솟음치는 총막우
저 연공들의 두툼한 숨옷자락에
타입공처녀들의 고운 눈썹에
하얀 서리꽃
반짝이는 서리꽃이

지동치는 눈바람속
언 하늘 언 땅에 가슴을 풀어헤치고
긴긴 겨울밤 지새우고도
기둥끝에서 지붕우에서 웃을줄 아는
그 심장들만이 피울수 있는 꽃

아, 향기없어도 좋다!

친구들아 벼를 사귀려면
서리꽃 가슴에 안은
이런 사람들과 우정을 맺자!
그 어떤 사선도
웃으며 함께 넘으리

터치지 않은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서리꽃 얼굴에 피운 이런 처녀들과 속마음을 나
누자!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한생토록 의 좋게 살리

아! 서리꽃 서리꽃
조국은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은금보화의 높은 령마루에서
그날도 반짝이는 네 모습
너를 피운 뜨거운 그 심장들을

정다운 미소

김인규

서둘러 아침밥을 지어놓은 손실은 남편이 쉬고 있을 방앞에서 잠시 귀를 기울여보았다.

조용하였다.

지난밤도 늦어서야 들어왔으니 곤한 모양이었다.

남편이 깨어날까 저어되어 옷방문을 살그머니 열고 바느질광주리에서 수들을 집어든 그는 조용히 발을 저저디디며 부엌으로 나왔다.

오늘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에 참가한 남편 김시봉이 제1단계목표인 10만키로메터 무사고주행을 마감짓는 날이었다. 이 뜻깊은 날에 손실은 제손으로 수놓은 기관사완장을 끼고 떠나게 하려고 짹짹 정성을 기울여왔다.

수들을 손에 들고 한뼘두뼘 누벼가는 그의 얼굴엔 저도 모르게 가벼운 그늘이 비끼고 《호-》 긴숨이 새어나왔다.

생각이 번거로웠다.

신혼살림에 별로 의가 상할 일이 있는것은 아니였지만 남편이 요즘 와서 어딘가 모르게 저를 못마땅히 여기는상싶었다.

무어라 말은 안하지만 눈치야 모를텐가. 물론 시봉은 원래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다.

수격수격 일만 아는 사람이다.

집에 와서도 남들처럼 익살을 부리거나 살뜰하게 굴 줄 몰랐다.

하지만 장마에 드는 별이 더 따갑듯이 과묵한 중에도 자기에게 보내주는 따뜻한 표정에는 남다른데가 있었다. 입귀만 벅글췌하고 소리없이 짓는 웃음이지만 그런 때면 온 얼굴에 환한 빛이 차넘친다.

말은 안해도 그 얼굴만 보면 자기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가를 한눈으로 알게 되는 손실이었다.

하기에 손실은 그 애무를 남달리 소중하게 여겨오는것이였다.

그런데 요즘 좀처럼 남편의 얼굴에서 그런 웃음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웃음은 커녕 불만기가 어린 표정까지 가끔 나타났다.

입은 더욱 철문처럼 꼭 다물려지고 묻는 말에나 겨우 외마디 대답을 할뿐 적던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어쩌다 한번 거들떠보는 눈치조차 곱지 않았

다.

(왜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걸까? 내 정성이 모자라서일가?)

(아니 일에 몰리다니니 그럴테지... 아무 일도 없는걸. 공연한 생각일거야.) 이렇게 부정도 해보았지만 역시 마음은 개운치않았다. 손실이 매듭진 실을 입으로 살짝 물어끓으며 일손을 마무리하는데 방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손실은 서둘러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자고있으리라고 생각한 남편은 어느새 일어났는지 성냥갑만큼씩한 모형화차를 주련히 련결한 《화물렬차》를 이리 굴리고 저리 당겨보고 했다.

거기에 정신이 팔린 시봉은 안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순간 손실의 머리속에는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자기가 달리는 구간에서 타력에 의한 짐더끌기를 시험하겠다고 며칠전부터 저렇게 머리를 짜내고있었던것이다.

밤낮없이 애를 쓰다가 마감고비에 이른 무사고 운동에서 그 어떤 실수라도 생기면 어쩔셈인지 몰랐다.

손실이 이번 경기나 끝내고 다음에 새 시험을 하는것이 어떤가고 몇번이나 권고해보았지만 시봉은 고집스러웠다.

앞으로도 시험을 해볼 날은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1년이나 걸려 쌓아올린 성과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새 시험을 고집할것이 무엇이란말인가... 한동안 착잡한 생각을 더듬고있던 손실은 모형렬차를 굴리고있는 남편앞에 다림발이 선 새 정복을 꺼내놓았다.

《이거 좀 보세요. 오늘은 의복도 갈아입으시고 서둘러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의 마음을 중편보며 이렇게 말을 댔 손실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지만 시봉은 자기 일에만 몰두할뿐 대꾸가 없었다.

손실은 무안감을 느꼈지만 물려서지 않았다.

《저... 한가지 물어도 좋아요?》

손실은 남편앞으로 다가갔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그 말에 시봉은 힐끔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았

다.

데통스런 남편의 눈길에 순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듯 했다.

하지만 순실은 빨강게 달아오른 얼굴을 차분히 숙이며 힘들게 말을 꺼냈다.

《오늘 꼭 짐더끌기시험을 하시겠어요?》

《그건 어째서 묻소?》

《...오늘이 전투 마감날인데... 시험이야 후에라도 할수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혹시...》

순실은 말끝을 마무리지 못하였다.

안해의 모습을 의문이 가득 실린 눈으로 바라보고있던 시봉은

《오늘은 그런 일을 하면 안되는 날이요? 그거 참 별나군.》

하그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남의 속은 알려구두 앓구 왜 엇나가기만 할가?)

시봉의 끔지 않은 대답이 못내 서운하였다.

물론 한번 먹은 마음은 좀처럼 돌리려 하지 않는 남편의 성미를 잘 아는 순실이였지만 너무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데는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들이 새 가정을 이룬것은 1년전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순실은 순간의 해이도 없이 남편의 일을 도왔다. 특히 경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얼마전부터 순실이는 역의 화물지도원 인만큼 끌고갈 짐을 짚는데서 자기도 모르게 원심을 써왔다.

이러한 자신의 지성이 합쳐졌기에 남편이 새로운 기적의 상상봉에 오르게 된것이라고 은근히 긍지를 가져온 순실이였다.

그러기에 순실은 오늘같은 날에 새로운 시험을 시도하는 남편을 두고 그토록 마음을 쓰고있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도 자기 욕심이 없을가?...)

불안과 원망을 아름 벌게 안은채 출근길에 나선 순실의 마음은 쇠덩이처럼 무겁기만 했다.

아직은 그 누구도 밝아본 흔적이 없는 숫눈길이었다.

이러한 길을 제가 먼저 걷기 저어하듯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저저던는 순실에게로 선잠을 깬듯한 강아지가 꼬리를 휘저으며 달려왔다.

그놈은 순실의 발밑을 감돌며 통을 걸어보다가 알은체를 하지 않는것이 이상했던지 저만큼 물러가서는 고개를 가우뚱하고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안해앞에서는 자기의 진짜 속심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것이 남자들의 속성의 하나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아침에 있는 남편의 표정과 달갑

지 않게 대하던 태도는 순실의 마음을 더욱더 불안스럽게 했다.

이러한 남편을 두고 심란해서 걷고있던 순실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남편에게 짐을 더 달고 안다는거야 화물지도원인 내가 할타이 아닌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담.)

순실의 입가에는 의연중 엷은 미소가 피여났다.

(오늘만은 양보할수 없어...)

마음속으로 이런 속다짐을 하고있던 순실은 누군가의 세수물 쏟아던지는 소리에 질겁을 해서 종종걸음을 놓았다.

《아이-지도원동지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찌기...》

순실이 신에 묻은 눈을 털며 사무실에 들어서자 밤일을 마감하고있던 화물원 옥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좀 서둘렀지 뭐.》

《참, 오늘이 바로 그날이지요?》

순실의 남다른 흥분을 느낀 옥녀는 의미있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러게말이야, 오늘 일이 잘되어야 하겠는데...》

순실은 근심스러이 말하며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걱정 마세요. 아저썬 오늘 보란듯이 정점에 도달할거예요.》

그는 마치 제가 증언할수 있다는듯 자신있게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디 마음을 놓을수 있니.》

《호호호, 언닌 걱정두 많네. 지금까지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는데 오늘이라고 못넘겠어요.》

옥녀는 한바탕 까르르 웃어제끼고는 별걱정을 다 한다는듯 밋지 않게 눈을 흘겨보였다.

《그렇긴한데...》

순실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옥녀는 여전히 조잘거렸다.

언닌 좋겠다거니 무사고운동에서 첫 테프를 끊는 아저씨가 더 의젓해보이겠다거니 하면서 입을 다물줄 몰랐다.

아직은 머리단장을 하기가 쑥스러운 시절이어서 긴 단발을 두어번 눌러주는척하다가 끝만을 안으로 살짝 말아올린 옥녀의 탐스러운 머리는 호기심많은 시절의 모습을 더욱 질게 해주었다.

《애, 사설은 그만두고 어서 마감한거나 가져

와.》

순실은 옥녀의 긴 말이 싫지 않았으나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옥녀는 순실이앞에 마감대장을 가져다 내밀었다.

대장을 받아든 순실은 오늘 떠나는 렬차에 달아주어야 할 짐량을 따져보았다.

오전에 떠나게 된 두개의 렬차에 자기 정량을 달아주고도 남편이 끌고갈 짐은 8천톤이 좀 넘을 상심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의 결의에서 미진되고있는 짐의 정량은 2,500톤뿐이었다.

순실의 눈길은 무심결에 창밖으로 향하였다.

눈은 그칠새없이 펄펄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아! 날씨두 참.)

날씨만 좋아도 3천톤쯤은 걱정할것이 없었으나 밤새워 내리고도 눈은 멎을상심지 않았다.

마음대로 한다면 마지막렬차를 끌고가는 남편에게 미진된 2500톤만 달아주고싶었지만 정작 속이 들여다보이는것 같아 그럴수는 없었다.

결심을 못하고 두루 생각을 더듬던 순실은 서류함에 물걸레를 놓고있는 옥녀를 불렀다.

《옥녀 아침에 떠나는 렬차의 견인기가 전기 5002호지?》

《예, 2천8백톤을 결의한 기관차예요.》

《열두시에 떠나는 렬차는?》

《전기 504호지요워. 3천톤을 결의한 기관차.》

그는 마치 외위든 대사를 내리엮듯했다.

《그럼 됐어요. 모든 렬차마다 자기 정량만 다 달도록 운전애다 계획을 넘겨줘요.》

순실의 눈길은 벽에 붙은 수송선전화에 끌렸다.

자신만만한 기세로 멀리 앞을 바라보며 가감변을 당기는 기관사의 틈틈한 형상은 남편의 미더운 모습으로 바뀌어보였다.

(제 정량은 끝수 있을거야.)

선전화에서 눈길을 땀 순실은 한결 안정된 기분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어쩐지 방안에서만 앉은방아를 쥔고있을 때가 아님을 느꼈던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이 꽃다발속에 묻히고 그이의 위훈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화제로 될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느라니 순실의 마음은 끝없이 설레었다.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기분을 안고 화물장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방송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여기는 기관차대방송실입니다. 승무원동무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 5001호기관사 김시봉승무조원들은 오늘로서 10만키로메터 무사고목표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기간 그들은 자기들이 결의한대로 매 렬차마다 300톤씩의 짐을 더 끌어 연 4만톤의 짐을 날랐습니다.》 방송원도 흥분되어 있었다.

방송은 계속되었다.

《지금 5001호기관차가 10만키로메터 목표에 도달하게 될 화천역에서는 환영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방송원의 목소리가 끝나자 이어 경쾌한 취주악이 울렸다.

순실은 가슴이 활랑거려 견딜수가 없었다.

향방없이 눈길을 밟으며 걸어가던 순실은 발목을 잡힌 사람마냥 굳어지고말았다.

생각지도 않았던 상하차장으로 가고있었던것이다.

(아이 내기 왜 이럴까? 기관차를 내가 물고가는것도 아닌데...)

순실은 숨갈이 하얀 눈을 한웅큼 쥐어서는 이마에다 대고 문질렀다.

산뜻한 뺨기가 이마에 닿자 정신이 맑아졌다.

그렇수록 순실의 눈앞에는 10만키로메터에 도달하기 위해 첫자욱을 떼던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아글라글 애쓰던 남편의 모습이 새록새록 안겨왔다.

경쟁이 시작되어 한달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밤일을 한 남편이 비를 후줄근히 맞고 돌아왔다.

들어온 밥상마저 뒤로 미룬 시봉은 그대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입술이 가랑잎처럼 말라들고 이마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집에 질린 순실이 진료소엘 가려고 서두르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다.

승무조직원이 진료소장을 앞세우고 들어왔던것이다.

승무조직원은 열에 들뜬 시봉을 지켜보며 허를 찼다.

《원 사람두 자기 몸에 대해서 영 돌볼줄을 모른다니까.》

그는 책망조로 이렇게 말하며 환자의 머리를 짚어보았다.

가뜩이나 검은데다가 불안까지 겹쳐서 금시까만눈에 눈물이라도 쏟아져나올것만 같은 순실은 신음하는 남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있었다.

않는 환자보다도 이러한 순실의 모습을 보기가 더 딱했던지 승무조직원은 《헛참.》 《내-원.》 하며 연방 속이 궁근 소리로 갑자르더니 이런

사연을 말하는 것이었다.

시봉이 물고오는 열차가 어느 굽인돌이를 달리 고있을 때였다.

철길옆에서 풀을 뜯고있던 젖소 한마리가 기적 소리에 놀라 갈팡질팡하다가 불시에 철길로 뛰어 들더니 곧추 내닫기 시작했다.

방목공이 질겁을 해서 고래고래 웨쳤으나 그놈은 막무가내였다.

불의에 나타난 정황이었다.

하는수없이 제동을 잡으면서 젖소가 철길에서 빠져나가기를 기다렸으나 그놈은 죽기내기로 달렸다.

결국 제동을 늦추었다 당겼다 하면서 한동안 신고를 했다.

웃음속에 파묻어버릴수도 있는 화제거리였고 우에다 제기해서 대책을 세울수도 있는 일이었다.

했으나 시봉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바쁘게 젖소 떼가 있던 곳을 찾아 떠났다.

그러한 일로 해서 또다시 다른 열차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목공은 채찍같이 쏘아지는 비를 맞으며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다. 잃어진 젖소때문인 모양이었다.

시봉이 올라미를 씌워서 끌고 온 젖소고삐를 넘겨주자 방목공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다.

이런 일로 하여 밤을 새운데다가 찬비까지 맞으며 30리길을 걷고나니 몸살을 만났던 것이다.

.....

지나온 일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며 걸음을 옮기는 순실의 귀전으로는 방송원의 힘찬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순실의 가슴속에 잠자고있는 추억들을 갈피갈피 들추어냈다.

밤일을 하고 낮에 쉬는 시간이 생기면 철길 료해를 떠났고 밤이면 밤대로 집원천을 찾아다녔다.

어찌다가 쉬는 날이 생기면 자기가 거치는 역들에 찾아가 그들의 작업방법과 성격까지도 료해하느라고 애를 썼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10만키로메터 무사고주행과 건인초과를 위한 일이었다.

실로 그에게는 하루 한순간도 수송문제를 떠나서 산 일이 없었다. 순실은 이러한 나날속에 남편이 쌓아나가는 그 충성의 매 키로메터가 더없이 귀중하게 여겨졌고 그의 노력이 결속될 그날이 언연중에 기다려졌다.

그런데 그 시각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순실은 쿵쿵 방망이질을 하는 가슴을 부여안고 입속으로 외쳤다.

(마지막 결속이 잘되어야 하겠는데) 달리기선수가 앞장에서 뛰다가 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경우라면 다시 일어나 앞선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열차의 《5. 18무사고정시건인초과운동》은 사정이 달랐다.

결승점에 도달했더라도 그 어떤 사소한 사고가 생기면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순실은 2천5백톤이라는 수자우에 얹혀졌던 500톤을 켜버린 것이 또 가슴에 걸렸다.

저도 모르게 걱정이 구름처럼 밀려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3천톤으로 수정하기란 낮간지러운 일이었다.

3천5백톤을 끌기에서도 단 한번 실수해본적 없는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평상시의 정량이 못되는 짐을 두고 이처럼 머리를 쓰게 되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습기도 하였다.

한동안 증측하던 눈썹이 다시 어리광을 부리듯 나풀거리더니 이어 평평 쏟아붓기 시작했다.

《저- 지도원동무 우리 짐을 이번 열차에 달아줄 수 없을까요? 이제까지 상차작업을 모두 끝냈는데... 아무래도 하루나 이틀이 모자라서 이달 계획을 못하게 될 것만 같아서...》

작업복을 입은채 근심어린 눈길로 순실의 결론을 기다리고있는 사람은 겨울용솜옷을 만들다가 달려왔다는 어느 한 피복공장의 녀성지배인이었다.

《지배인동무시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번 열차에 달고갈 짐은 정량이 넘었군요.》

이렇게 말하던 순실은 본의아닌 소리를 하고있는 지신을 깨닫고 혀를 깨물었다.

철이 들어 처음으로 이처럼 남을 속이는 말을 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자 체감에 낮이 화끈거렸다.

《미안해요. 다음 열차엔 꼭 달아드리겠어요.》

순실은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말을 골라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녀인은 잔주름이 가기 시작한 얼굴에 근심어린 빛을 띄우더니 《그럼 할 수 없군요.》

하고는 무겁게 발길을 돌렸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눈덮인 화물함을 시름에 겨워 걸어가는 녀인을 바라보는 순실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어쩐지 못할것을 한것만 같아 멀어져가는 녀인의 뒤모습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한동안 녀인의 뒤모습을 지켜보고있던 순실이 열차의 조성정형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몸

을 돌리는데 언제 다가왔는지 옥녀가 머리를 소
곳한채 서있었다.

참새처럼 재채거리던 옥녀로서는 너무도 의외
의 모습이였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순실은 의아한 눈길로 옥녀에게 물었다.

《저… 지도원동무, 그 솜방통을 이번 렬차에
달아주면 해서그래요 어쩐지…》

그는 사뭇 애타는 눈빛으로 말했다.

순실은 그만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 걸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했구
나.》

순실이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옥녀는
더욱 근심이 짙은 소리를 했다.

《아까 아저씨 절보구 오늘 새 운전법을 시험하
겠다면서 못해도 4천톤은 달아야 한다구 했는
데…》

옥녀의 말에 순실은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말았
다.

《애, 4천톤이 뭐 누구네 아이 이름인줄 아니.》

순실은 마치 그 장본인이 옥녀이기라도 한듯
그를 시까스르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저씨야 경험두 많구 그만한 짐이야 얼마든
지 더 달수 있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뒤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두 2천500톤이상은 더 달수 없어요.》

순실은 잘라 말했다.

이러한 순실의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섰던 옥녀는 한동안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섰
더니 또 입을 열었다.

《언니 정말 모르겠어요. 이전엔 한톤의 짐이라
두 더 실어보내지 못해 애를 쓰더니…》

남편의 마지막 렬차운행때문에 더 달수 있는
짐을 밀어버리는 순실을 원망하는 옥녀의 목소리
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옥녀의 그 말이 얼마나 절절하게 나왔던지 순
실의 마음도 언짢았다.

《원 애두, 너두 이답에 가정을 가져봐, 나처럼
원심을 쓰게 되지 않나, 사람의 마음이란 다 그
런가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가 타협을 바라는 마음이
스며들어있었다.

순실이앞에 자기 의견을 더 비쳐야 소용이 없
다고 생각되었던지 옥녀는 한동안 입술을 감빨고
섰다가 돌아서고말았다.

옥녀까지 들어가버리자 넓은 역구내에 혼자 남
게 된 순실은 갑자기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너무 좁은 울타리안에서 생각하는게 아
닌가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내가 뭐 일을 안하자고 그러나, 1년이나 들인
공을 결속이나 하고 보자는건데.)

이렇게 자기 고집을 세우고나니 한결 마음이
든든해졌다, 화차떼앞으로 다가간 순실은 빈틈이
없이 준비된 화차들이었으나 방수포끈도 당겨보
고 런결기도 제대로 잠겼는가를 새삼스럽게 살피
보았다.

그래도 어텐가 미심쩍은것이 있는것만 같아 좀
처럼 발길을 땔수 없었다.

순실은 공기호스도 흔들어보고 제동불량차라도
끼워있지 않는가 살피면서 화차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나갔다.

《오늘 지도원동진 정말 별나게 검차원같기도
하고…》

어느새 다가왔는지 뒤따라섰던 옥녀가 아직도
잡쳤던 기분이 채 사그러지지 않아 응석절반 불
բ은 소리 절반을 했다.

이러한 옥녀를 마주하자 순실은 자기로서도 쑥
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마 그렇게 얄궂은가보구나.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것들이 다 미심
쩍게만 생각되는게…》

《나두 언니 맘을 다 알아요. 아저씨가 오늘은
꽃목걸이를 걸고 목말을 타겠는데 왜 안그러겠어
요. 하지만…》

옥녀는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가 순실에게 말
머리를 빼앗겼다.

《글쎄 그래서 그런건 아니지만… 이봐 옥녀,
아무래두 오늘은 그이의 도중식사라도 좀 준비해
야할가보구나, 그런데 여기 제동불량차가 하나
끼워있구나.》

순실은 사뭇 근심어린 소리를 했다.

《그 많은 화차들 가운데서 무시될수도 있는 한
량의 제동불량차까지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가보
지요?》

옥녀는 생긋하고 의미있는 표정을 지어보이더
니 《호호호…》 하고 천성적인 자기의 성격을 드러
냈다.

《요건 그저 언제 봐야 방울새같다니까.》

순실은 귀엽게 노는 옥녀를 밍지 않은 눈으로
흘겨보며 마주 웃었다.

들끓는 역구내를 벗어나 한적한 사택길을 걷고
있는 순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모두가 다 자기의 심정을 리해해주고 축하해주
리라 믿었던 오늘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일은 없는듯하면서도 별로 심드
렁해진 남편이며 자기로 해서 방금전에 있었던
피복공장 지배인의 실망한 모습과 옥녀의 애석해

하던 모습이 자꾸만 되새겨졌다.

(남편의 일로 해서 원심을 쓰게 된 오늘이 아니라면 나도 그들에게 만족한 대답을 줄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오늘》이라는 일로 해서 녀성지배인에게 본의아닌 소리까지 한 자신을 남편이 알게 된다면 그이는... 어찌겠나, 경쟁인데... 그이를 위하여서인지...

이러한 생각을 곱씹고있던 손실은 윤기가 흐르는 솔뚜쟁이를 거머쥔채 창밖에 귀기울이며 움직임을 몰랐다.

《빨리 달려라 영희 이겼다.》

밖에서 들리는 떠들썩한 애들의 함성이 공공문풍지를 한 창유리틈으로 스며어들었던것이다.

(아마 애들이 달리기를 하는 모양이지?)

이때 그의 뇌리에는 결혼하기전 어느날에 있었던 일이 불쑥 떠올랐다.

명절분위기로 흥성이던 그날 시봉과 함께 시내를 거닐던 손실은 유치원어린이들의 체육경기를 보게 되였었다.

경기 마감고비에 이르러 남녀이어드달리기가 이채를 띠고있었다.

랑팀이 마지막 한명씩을 남겨놓았을 때 한쪽에서는 사내아이가 당장 뛰어나갈듯 뒤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서두는데 한쪽에서는 같은또래의 계집애가 갈게처럼 두주먹을 추켜들고 발을 구르고 있었다.

경기장은 한덩어리가 되어 움췌움췌하며 들썩이였다.

몇발자국을 사이두고 먼저 들어온 사내아이에게서 계주봉을 넘겨받던 계집애가 너무도 긴장했던탓에 계주봉을 떨어뜨렸다.

그 찰나 뒤따라 달려온 자기편의 처녀애에게서 계주봉을 넘겨받으려던 사내아이는 뜻밖에도 다른편 아이가 떨어진 계주봉을 집어다주었다.

그바람에 일정하게 거리가 생겼던 이어드달리기 사이가 한뼘사이로 줄어들었다.

경기장은 별바가지처럼 통겨놓은것처럼 아우성속에 파묻혔다.

승부는 불을 보듯 뻔했다.

했으나 얼마쯤 앞서 달리던 사내아이가 그만 앞으로 넘어졌다.

그 찰나 지나쳐버릴줄 알았던 처녀애가 엎어진 사내아이를 부추겨가지고 함께 달렸다.

종이장 하나를 사이두고 결승점에 들어선 선수들을 랑팀이 서로 불안고 돌아갔다.

참으로 보기 드문 경기였다.

검스레한 얼굴에 알릴듯 말듯한 미소를 머금고 경기를 지켜보고있던 시봉은 손실이쪽으로 얼굴

을 돌리며 말했다.

《저 동심이 얼마나 아름답소. 순결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이고.》

《하지만 얼마나 아쉬워요.》

《아니요, 경기의 승패는 경기와 함께 끝나지만 승부를 겨루는 그 마당에서까지 서로 돕고 이끌어가려는 그 정신에서 얼마나 큰 세계를 받아안게 되오.》

시봉은 저으기 감동된 목소리로 거듭 외쳤다.

《나는 오늘 저 어린것들에게서 많은것을 배웠소. 자신을 위해 바라는것보다 남을 위해 더 많은것을 주고싶어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저 동심이 그대로 자란다면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창창하겠소.》

《정말 사랑하고싶고 자랑하고싶은 세계군요.》

생각에서 깨어난 손실은 김이 서린 솔뚜쟁이에서 방울져내리는 물방울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밥주걱을 들었다.

(나는 그때 그이의 말을 긍정했지. 어린것들의 세계에서 우리들의 리상적인 앞날을 꿈꾸었지,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있는가?...)

손실은 한껏 즐거워야 할 오늘이건만 말할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에 파고듦을 어렴풋이 느꼈다.

무엇때문인가...?

조급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역구내로 들어서던 손실은 그만 선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남편이 끌고갈 렬차에는 자기가 정해준 짐보다 훨씬 많은 화차들이 렬결되어있었던것이다.

기관차옆에 녀성지배인이 서있는것으로 보아 그가 말하던 짐도 더 달린것이 분명했다.

편성된 길으로 보아 그것만도 아닌것 같았다.

손실은 이마우로 깊숙이 내려앉은 모자의 채양을 무심중에 바로잡았다. 순간이나마 사라졌던 일군의 량심이 뒤늦게 되찾아와 심장벽을 무겁게 쿵쿵 두다리느니 천방지축 달려오던 손실은 심장이 삼시에 달아오르는듯싶었다.

무엇이라고 할 말조차 없게 된 손실이였으나 목젖안에서는 채 울려나오지 못한 변명이 잦아들고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때문에...)

염가마에 뛰어들듯한 량심의 저림을 느끼며 발뼀발뼀 기관차결으로 다가가 손실은 들고온 밥판을 가슴에 안은채 소곳이 서있었다.

이무렵 기관차의 주행부 검사까지끝낸 시봉은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말없이 서있는 안해를 발견한 시봉은 선뜻 말머리를 떼기 주저하며 머뭇거리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마침 잘 왔소. 옥녀동무를 통해서 당신의 처사를 알수 있었소.》

순실은 저오기 긴장되었다.

시봉은 심각하게 상기된 얼굴을 순실에게서 떼지 않은채 말을 이었다.

《그래 우리 수송전사들의 이 운동이 무엇을 위한거요? 개인의 명예를 위한거요 아니면 나라의 긴장한 수송을 원만히 풀기 위한거요?》

시봉의 목소리는 차츰 높아갔다.

이러한 남편앞에서 잠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순실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저는 오늘날은 당신을 위해서…》

하고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참 한심하오. 당신은 말끝마다 <오늘> <오늘> 하는데 오늘이 어쩡단말이요.

당신이 오늘 무슨 일을 저지를번했는가 보오.》

시봉은 옷주머니에서 전보용지를 꺼내어 안해앞에 내밀었다.

어망결에 전보를 받아든 순실은 발신인 주소에 눈길을 박았다.

녀성지배인의 공장에서 온것이였다.

전보의 내용은 이러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감동된 노동자들이 농민들의 솜옷생산을 훨씬 앞당겨 끝낼것을 결의해 나섰는데 솜이 빨리 오지 않으면 생산이 중단될 형편이라는것이였다.

순실은 가슴이 철렁했다.

불꽃튀는 투쟁을 벌리고있을, 아니 솜이 도착하기를 안타까이 기다리고있을 모습들이 눈앞에 선하였다.

(그런데 수송때문에 생산이 멎게 될 형편이란 말이지!)

순실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를 번했는가가 느껴지자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안해의 모습을 지켜보고있던 시봉은 그가 전보용지에서 눈길을 떼자 말을 이었다.

《가정이란 뭘겠소, 그것도 다 우리모두에게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의 마음을 합쳐 보답해나가기 위해 필요한것이 아니겠소.》

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시봉의 말은 뜨겁고 절절했다.

고개를 숙인채 남편의 말을 듣고있던 순실은 물기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무렵 환송군중들이 가까이로 다가오고있었다.

시봉은 더 하고싶은 말을 남긴채 서둘러 기관차로 올랐다.

바로 그 순간 순실은 여느때없이 자기를 두고

가슴아파하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읽을수 있었다. 발부리에 눈길을 떨군채 서있는 순실의 귀전으로 방금전에 한 남편의 준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노기로 번뜩이던 눈, 물을 뿜듯 질책하던 그 목소리…

순실은 그대로 주저앉아 실컷 울고라도 싶었다.

어느새 취주악이 울리고 손에손에 꽃다발을 든 군중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순실은 어쩐지 그들속에 끼워있을 자격이 못되는듯싶었다.

모든것이 자기를 비웃고 멀리로 떠밀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순실은 쫓기우듯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고말았다.

맥빠진 사람마냥 의자에 걸터앉아 생각을 곱씹어보는 순실은 꿈속을 헤매고있는것만 같았다.

(아! 내가 왜 이럴까?) 자기를 되찾으려는듯 몸을 솟구던 순실은 방금 자기가 받아다놓은 남편의 빈 밥판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보자기짚으로 베죽이 내여민 종이쪽지가 보였던것이다.

늘쌍 있군한 습관이여서 무심히 쪽지를 펼쳐들었던 순실은 차츰 긴장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손잡고 이끌면서 변함없는 충성의 한길을 걸기 위한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당신은 내가 오늘날 무사고로 넘기면 일이 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려 하고있소, 요즈음 당신의 처사를 생각해보오,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소.

물론 당신의 심정을 모르는것은 아니요,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도와주는것을 난 바라지 않소.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온 10만키로메터가 오늘로 돌파된다고 해서 우리의 충성의 길이 끝나는것은 아니지 않소.

오늘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달려야 할 충성의 나날속의 하루에 지나지 않는단말이요. 개인의 명예속에 무엇이 있겠소, 우리는 한톤의 짐이라도 더 나룰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오.

이것을 잊지 말아주기 바라오. 시봉 씬.》

편지를 읽고난 순실은 봉긋이 솟아오른 가슴우에 두손을 모아짚고 《호!》 긴숨을 몰아쉬었다.

만나지 못하고 떠날것 같아 필적으로나마 자기에게 하려는 남편의 추궁이였다.

뜨거운 정이 가슴뿌듯이 안겨왔다.

일생을 두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그 무엇이 이

짧은 글속에 숨배어있음을 가슴저리게 느낀 손실이였다.

편지를 곹곹어 읽고있던 손실은 무엇에 이끌리듯 방에서 뛰어나왔다.

갑자기 넓은 세계가 그리워났던것이다. 산뜻한 눈가루가 달아오른 손실의 얼굴을 시원스레 적혀주었다.

답답하던 가슴이 확 열린듯싶었다.

(아, 난 왜 일찍 그런 생각을 할수 없었담 땡땡이같이-)

손실은 남편의 마음을 리해할수 없은것이 결국 안해로서의 사랑이 모자랐기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답답하게 살아온 자신이 못견디게 미워났다.

천근같이 무거운 자책감을 안고 흠을 나선 손실의 눈앞에서는 끝이 없는상실계 편성된 렬차가 출발을 서두르고있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터질듯한 불안을 던져주던 렬차편성이였다.

(4천톤! ...무사히 넘을것이야...)

이러한 손실의 생각은 전과 같은것이 아니였다.

남편의 명예를 바라는 안해의 위구심에서가 아니라 수송을 담당한 한 일군의 책임감에서 오는 믿음이었다.

소슬한 바람이 눈가루를 휘날렸다.

순간 손실의 머리에는 떡가루같이 하얀 눈을 뒤집어쓰고 아득히 치달아솟은 《아차령》이 떠올랐다.

손실은 자기도 모르는새 종주먹을 부르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차령》은 역을 떠나 한키로미터밖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경사도가 심한 구배였다.

어떻게 하나 렬차가 령을 무사히 넘도록 도와야했던것이다.

자기로 하여 피로운 마음을 안고 갈 남편을 위해 안해로서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이 령을 무사히 넘도록 돕는것이라고 생각한 손실이였다.

(그이의 말은 정말 옳아, 충성의 나날은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된 나날의 려속이지...)

이런 생각을 하며 달리는 손실의 옆으로 짐을 만재한 자동차가 눈가루를 휘뿌리며 지나갔다.

했으나 손실의 생각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도와주는것을 난 바라지 않소...)

손실은 남편의 편지구절을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이제는... 이제는... 알겠어요.)

손실은 한없이 되풀이하고싶은 이 말을 안고 해자루같은 입김을 토하며 뛰고 또 뛰였다.

미처 고개받이에 이르기전에 렬차가 달려들것만 같았던것이다.

목안에서 쇠비린내가 풍기고 당장 숨이 멎을것만 같았다.

하지만 손실은 그것이 오히려 좋았다.

거기에 바로 보람이 있고 자기를 뉘우치려는 진심이 있다고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이윽고 구배표식이 있는곳에 다달은 손실은 숨을 벗어들고 레루우에 소복이 내려앉은 눈을 털기 시작했다.

가쁜숨을 돌릴새 없이 고개마루를 향해 눈을 털어나가고있는 손실의 귀전에 은은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이때까지 무심히 들어오던 기적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기적소리가 별로 정답게 들렸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더운 정이 그 기적소리에 실려와 자기의 가슴속 깊은곳으로 흘러드는것만 같았다.

손실은 자기가 내림길에 접어든것도 모르고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뿌-웅!》

접근기적이 나서야 손실은 고개를 들었다.

렬차는 어느새 지척에 와있었다.

손실은 하얀 눈가루를 뒤집어쓴채 황급히 로반으로 물러섰다.

바로 그 순간 환하게 웃고있는 남편의 모습이 손실의 눈앞을 스쳐지났다.

치녀시절의 소중한 꿈과 함께 오래동안 가슴속에 고이 묻어오던 밝은 웃음이 깃든 남편의 그 모습을 다시 대하는 손실의 눈곱엔 맑은 이슬이 대롱대롱 맺혔다.

고개마루를 극복한 렬차는 질풍같은 속도로 내달렸다.

정다운 미소를 보내던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안겨왔다.

멀어져가는 렬차를 바라보는 손실의 눈에서는 맺혔던 수정같이 깨끗한 이슬이 방울져내리고있었다.

그것은 모자랐던 사랑에 대한 뉘우침의 눈물이였고 뜨겁고 열렬한 사랑의 힘을 합쳐 영원한 충성의 한길을 가고가리라는 새로운 결심의 상징이였다.

하기에 그 눈물은 행복과 기쁨이 어떤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그윽한것이였다.

두번째 배치장

백남룡

그 너자의 걸음은 나래돈힌것처럼 가벼웠다.
공장정문이 멀찌감치에서 바라보이자 그는 손가방안에서 조그마한 종이장을 꺼내었다. 푸릿한 종이에 찍힌 글자들이 틀림없는가를 확인이나 하듯 다시금 찬찬히 뜯어보았다.

배치장

이름 주혜옥 나이 34살
전직종 가공직장 선반공
이동직종 후방과 출납원
.....

종이의 맨밑에는 공장 로임과장의 도장과 중학생들이 흘려쓴 꼬찌누스를 편상시키는 지배인의 수표가 있었다.

한달전, 혜옥이가 온천료양을 떠날 때 받은 배치장이었다. 그 종이가 유리집속에 들어앉아 전자계산기나 만지작거리는 편안하고 깨끗한 일을 약속하는 문건임을 의식할수록 혜옥의 마음은 설렘이었다.

불현듯, 선반공으로 처음 배치받고서 마른 나무잎들이 떨어지는 공장구내길을 걸어가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단발머리를 한 혜옥은 엄숙하고도 진지한 표정으로 배치장을 들여다보며 걸었다. 마치도 그 조그만 종이장에 선반공이라는 사회의 한 위치에 선 처녀가 조국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가 씌여있기라도 하듯이...

비록 종이에는 그런것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혜옥은 선반기능을 배우면서 그것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선반기에 정을 들였다.

바이트날에서 불꽃이 일고 회전면판이 돌아갈 때면 선반기는 처녀의 긴장한 정신력과 완강한 육체적부담을 요구한다. 처녀의 눈동자는 바이트날끝에서 움직일줄 모르고 얼굴에선 구슬땀이 흐른다. 이따금 단 쇠뿔찌가 튀어올라 그의 아릿다운 얼굴에 팔알같은 상처를 입히곤한다... 어렵고도 보람있는 날들과 달이 흘러갔고 해가 지났다.

혜옥은 어느 달도 계획을 넘쳐하지 못한적이 없었다. 꽃밭울타리속에 서있는 공장영예게시판에는 혜옥의 사진이 새겨넣은것처럼 떨어질줄 몰랐다.

(참, 세월이 빠르지. 어제같더니 벌써 열여섯

해가 흘렀구나...)

혜옥은 배치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 푸릿한 종이에 자기의 청춘시절과 모성으로서의 꾸준하고 힘겨운 노동의 대가가 숨배여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사뭇 궁지감으로 부풀어오르는것이였다.

뒤에서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가볍게 놀랜 혜옥이가 비켜서자 진록색승용차는 그의 걸을 지나 미끄러지듯 공장정문쪽으로 달려갔다. 지배인승용차였다. 뒤좌석에는 나이 지숙한 사람이 몸을 제치고 앉아있었다.

(새로 오신 지배인동무구나.)

혜옥은 료양을 떠나기전에 지배인을 현장에서 한번 보았었다. 열한개의 직장들과 수십개의 부서들, 수천명의 종업원을 헤아리는 이 큰 공장에서 온지 얼마 안되는 지배인을 가까이 만난다는 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지배인은 공장사람들에게 얼굴보다도 사업으로 더 먼저 알려졌다. 지배인이 배치되여오는 날, 기사장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승용차를 보내놓고서 정문곁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얼마후 승용차는 운전사 혼자서 물고왔다. 지배인은 걸어서 떠난지오래다는것이다. 공장일군들은 한참이나 기다리다가 그만 흩어지고말았다. 오다가 다른곳에 들린것으로 짐작한것이였다. 밤이 껍 깊어서 기사장은 현장에서 수수한 작업복을 입은 낮선 사람을 만났다. 그가 지배인이였다. 이미 낮에 공장후문으로 들어온 지배인은 현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노동자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장을 《초별료해》했던것이다. 지배인이 공장진료소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부를 들춰보았다는것도, 합숙생들의 식사를 그대로 쟁반에 들고와서 먹어보고는 식모들을 혼계했다는 일이며... 생산과 공장의 모든 생활과 결부된 첫 사업 이야기들은 지배인이 온 날자들보다 더 긴 시간을 말해야 할것이였다.

혜옥은 별로 탈이 없는 자기를 속병과 관절에 좋은 온천료양에 보낸것도 지배인이 지시해서가 아닐가고 생각해보았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참 좋은분야야.)

혜옥은 배치장에 있는 지배인의 필적을 신뢰의 눈길로 들여다보았다.

(지배인동지는 여기에 수표를 하면서 내가 열 여섯해나 선반을 했다는것도, 두 아이의 어머니라는것도, 남편이 제관공이라는것도... 다 알아봤을거야.)

혜옥은 마음이 흐뭇해졌다.

공장정문에 들어선 혜옥은 후방부로 가는 구내 길어구에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나무 숲속에서 지붕이 파도식으로 잇달린 가공직장건물이 보였던것이다.

저녁노을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채광창들은 정열로 불타는 눈동자라도 같이 혜옥이를 정답게 반긴다. 고향집어머니의 자장가소리마냥 귀에 익은 기대들의 부드러운 소음은 그 어떤 짜릿한 향수를 안고 울려왔다.

순간 혜옥은 친근한 작업반사람들과 손때묻은 선반기며 알뜰한 공구함, 그리고 들꽃의 향기에조차 비기지 못할 단죄밥의 독특한 냄새... 가공직장의 정든 모든것들이 보이지 않는 억센 힘으로 끌어당김을 느끼었다.

(그래, 후방부엔 천천히 가도 될거야.)

혜옥은 발길을 돌렸다. 가공직장은 언제나와 같이 기계바다의 그 풍만한 선물로 혜옥을 맞이했다.

프레스들의 둔중하고도 장쾌한 음향, 쇠를 먹어들어가는 바이트와 공구들의 류창하고도 날카로운 부르짖음, 비둘기나래소리같이 경쾌한 천정기중기굴러가는 소리, 마차소리, 습합칼질소리... 관현악의 고조된 선율처럼 울리는 그 독특하고도 장중한 화음은 혜옥이가 16년동안 가슴속깊이 새겨넣은 친근하고도 잊을수 없는 선물이었다. 그 선물은 《기계바다관현악단》의 오랜 《연주가》인 혜옥이가 자기 《악기》를 버리고 이곳을 떠난다 해도 영원히 그렇게 장엄하게 공장구내에 울려퍼질것이라고 선언하는듯싶었다.

혜옥은 저르기 서운해져서 눈시울을 내리간채 잠자코 현장복도를 걸어가서 작업반휴계실에 들어갔다.

반원들은 작업분공을 받느라고 반장앞에 횡대로 서있었다. 작업반장은 한사람씩 이름을 부르고 도면을 주면서 가공상주의점을 차근차근 말하고있었다.

《...오늘저녁에 우리 작업반에서 특별히 중요한 작업과제는 스크류축입니다.》

작업반장은 큼직한 도면을 펼쳐들었다.

혜옥은 선반공의 세련되고 종합적인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그 스크류축도면이 누구에게 차례질것인지 궁금해서 반원들을 둘러보았다. 반장의

성미를 잘 아는 반원들은 저마다 그걸 꺾고싶어도 선뜻 나서지는 못한다.

(전에는 반장이 내게 저런걸 자주 맡겼지.)

혜옥은 출입문가에 선채 막연한 부러움과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리운실동무.》

뜻밖에도 반장은 혜옥의 귀에 설은 이름을 불렀다.

《네.》

《?...》

줄의 맨끝에서 웬 나이 지숙한 녀인이 작업반장앞으로 나와서 도면을 받았다. 품이 후렁한 토색작업복을 입고 틀어올린 머리에 모자를 꼭 눌러쓴 녀인이었다. 모자기습에서 새어나온 희색희색한 머리오리들이며 눈귀에 가는 그물을 씌운듯 잔주름이 서린 녀인은 오십살은 남짓이 돼보였다.

(어데서 온 녀인일가? 그 나이에 선반공으로 일하다니...)

작업분공이 다 끝나자 반원들은 혜옥이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다. 료양지에서의 생활을 토막토막 물었고 그가 후방부로 가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 녀인도 혜옥이 앞으로 다가왔다.

《처음 보겠습니다.》

녀인은 스스럼없이 인사를 하였다. 녀인의 손을 보니 칠판같이 째깍하고 억센 감을 주었다. 남자들처럼 말이 적은 간단한 인사를 마치자 녀인은 바빠 자기의 선반기쪽으로 걸어갔다. 녀인의 걸음씨는 어텐지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얼마후, 저쪽 소재더미에서 굵은 환강소재를 들고오는 녀인을 보자 혜옥은 그의 걸음씨가 확실히 순란치 못한것을 알아보았다. 소재가 무거워서 그런지 한쪽다리를 약간 저는듯하였다.

혜옥의 호기심어린 눈길은 줄곧 선반기옆에서 일하는 녀인에게 쏠렸다.

녀인은 등을 구뭇한채 소재를 숨씨있게 면에 물리고 편심을 맞춘 다음 심압대를 찍었다. 그리고 이미 갈아놓았는지 공구통에서 바이트를 제껴 꺼내어 인물대에 설치했다. 주축함이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곧 왕복대의 자동이송을 놓았다. 벌써 에나멜빛 쇠밥이 라선형으로 타래져나왔고 굵은 가마뚜껑을 열여섯힌듯 단 쇠김이 피여올랐다.

녀인의 몸동작은 좀 느릿했으나 군손질이 없이 정확하고 빈틈없는것이였고 오랜 선반공에게서만 볼수 있는 로숙성과 확신성이 느껴졌다.

그럴수록 혜옥은 너인이 불편스러워하는데 마음이 찌였다. 면판조임대를 돌리느라 힘을 쓸 때나 심압대를 당길 때… 너인의 몸짓은 유순하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것이 감촉되었다.

(그러면서두 선반을 하다니… 로임과에서 사람을 잘 모르고 선반기능이 높다고 그저 배치한 모양이구나… 하긴 본인이 말하지 않으므로 알수도 없겠구…)

혜옥은 점점 그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너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깎으면서 도면을 보고, 바이트를 갈아끼우고 재어 보고… 결눈 한번 살피지 않고 가공품에 심혈을 쏟아붓는것이였다.

혜옥은 너인한테 조용히 다가갔다.

스크류축의 초벌가공을 끝낸 너인은 한숨 돌리려는듯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고있었다. 흰 오리가 드문한 귀밑머리는 땀에 차분히 젖어붙었고 어진 두눈에는 피로한 기색이 어리였다.

《저… 발을 접지르게 아니예요?》

혜옥은 동정심을 담아 은근히 물었다.

그러자 너인의 솔진 눈섭은 당황한듯 우로 치켜올라갔다. 너인은 의문스러운듯 혜옥이를 유심히 지켜본다.

《내가… 그렇게 보이는가요?》

너인은 조심스레 물었다.

《난 알아봤어요.》

《세심하군요… 사실… 그전에 발목을 다쳤어요… 수술후엔 내내 경과가 좋았는데 근래와선 어떤지 좀 말썬요.》

너인은 솔직히 터놓은것이 쑥스러운듯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선반을 몇년이나 했어요?》

혜옥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너인은 기름때문은 손을 걸레로 닦고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생각에 잠긴 두눈은 서늘러운빛을 띠었고 남자처럼 이마에 굳건히 잡힌 주름은 미간으로 모여들었다.

《인제는 30년이 넘는군요…51년봄부터니까…》

《?!…》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굴안에서 찍하문 고장나곤하는 <하늘소선반>을 돌렸지요 포알두 깎구. 수류탄두 깎구… 폭격으로 전기가 오지 않으므로 손으로 피대바퀴를 돌렸어요. 웃이 늘 땀에 절었지요… 발은 그때 다쳤어요.》

《어떻게요?》

《그해 겨울에됐는데… 소나무밭속에 있는 림시숙소는 몹시 추웠어요. 난 남자들이 하는데루 가

마니를 깎 침상우에 모포로 온몸을 여러겹 감싸고서 털모자를 쓰고 잤어요. 굴안에서 자면 좋지는 않았지만 기대소리로 소란하구 공기가 나빠서 잔것 같지 않았지요… 깊은 잠에 들었었는데 놈들의 야간공습을 당했어요… 눈먼 파편이 발목을 쳤지요.》

《!!…》

《남편이 나를 업구 병원으루 뛰었다우 아니, 그때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수리공이였다우. 아무 인연두 없었지요. 난 열아홉살짜리 외태머리였으니까.》

《………》

혜옥은 깊은 동정과 존경어린 눈으로 너인을 쳐다보기만 했다.

(30년세월을… 참 오래두 선반을 해오는구나)

혜옥은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다. 기껏 열여섯해 선반을 돌리고서 궁지감에 넘쳐 자기를 뗏뗏이 돌이켜보다니… 이 너인이 피를 흘리면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손으로 선반피대바퀴를 돌릴 때 나는 아늑한 요람속에 누워서 달콤한 꿈에 취해있지 않았던가.

재더미밖에 없었던 전후복구의 엄혹한 나날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훈전을 아껴쓰던 공업화의 그 시련의 나날에도, 사회주의대건설의 벅찬 나날들에도… 너인은 다리를 절면서 선반을 돌렸다. 지난날의 공적으로 하여 후대가 조금도 나무라지않을 오늘에조차 너인은 서리내린 머리를 작업모속에 감추고 선반을 돌린다.

(그런데 나는?… 조국앞에 해놓은것이 무엇인가?… 피 한방울 바쳤는가?… 그리고고 버젓이 편안한곳에 가다니…)

혜옥은 배치장이 든 손가방을 지그시 틀어쥐었다. 심장은 금시 밖으로 튀어나올듯이 뛰었다.

(로임과로 가자. 아니, 지배인동지를 직접 찾아 가야 한다. 마감수표를 한 사람이 지배인동지가 아닌가.)

혜옥은 황급한 걸음으로 가공직장을 나섰다. 어둠속에 잠긴 관리부청의 창문들에서는 불빛이 쏟아져나왔다. 구내등을 켜놓은 나무숲공지에는 지배인승용차가 보였다.

조금후 혜옥은 2층의 아늑한곳, 업나무무늬단판을 모양있게 붙인 문앞에 마주섰다.

똑똑… 혜옥은 문을 두드렸다.

방음이 잘된 문안에서 가느다란 대답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지배인이 앉았을 창문 쪽을 향해 인사를 하였다.

《혜옥동무가 어떻게 왔습니까.》

《?!...》

뜻밖에도 그에게 물은 사람은 계획과장이었다. 그 열책상에 앉은 면목있는 지도원처너는 웃음을 참지 못해 손으로 입을 싸쥐었다. 사무를 보던 여럿의 계획과 사람들은 방문객을 호기심어린 눈길로 쳐다본다.

한순간 어리둥절했던 혜옥은 그제야 지배인이 앉곤하던 창문작에는 원탁이 놓여있고 그우에 남방의 고무나무화분이 무성한 잎을 펼친것을 보았다.

《아주머니, 우리 사업에 어떤 심중한 조언이라도 줄립니까?》

계획과장은 먼구스러워하는 혜옥을 도와주려는 듯 롱조로 물었다.

《저, 지배인동지를...》

《한주일전에 지배인방이 바뀐걸 모르시오?》

《전, 료양을 갔다가...》

《아, 그래 주소가 헛갈렸구만... 지배인동지방은 1층현관에 들어서면서 음달쪽으로 첫방이요. 도면청사실로 쓰던 방 있잖소.》

《아니, 그 접수실처럼 분주한곳예요?... 방두 좁은데...》

《그래두 지배인동지는 그 방이 노동자들이 지나가다가도 생각나면 걸핏 들릴수 있구, 여러모로 맞춤하고 좋은 방이란거요.》

《.....》

혜옥은 복도로 걸어나왔다. 층계를 내려서자 그는 현관옆에 있는 지배인방을 딱 마주서게 되었다.

지배인방의 문은 종전 도면청사실때의 출입문 그대로였다. 군청색라크칠은 퇴색하였고 접철부근에는 도토리알만한 웅이구멍이 나서 속이 영큼한 친구가 들여다보기 알맞을것 같았다.

혜옥은 문을 두드리고서 조금전 계획과에서의 실수를 되새기며 문지방을 조심스레 넘어섰다.

두대의 전화기가 놓인 량수책상의 지배인의자는 비어있었다. 직장장들과 과장들의 수만큼은 뭇 의자들을 벽돌레를 따라 주련이 붙여놓았는데 그 구석쪽의자에 한사람이 머리를 수긋한채 사업노트에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있었다.

방문객이 누구인지 전혀 아랑곳 않고 자기 일에만 골몰하고있는 그 사람이 로임과장임을 알아보자 혜옥의 마음은 허전해졌다. 잠시 문가에 서있던 혜옥은 직종변동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실무적단계를 뛰어넘어 지배인부터 만나는것이 옳은 처사가 아님을 직감하고는 로임과장한테로 다

가갔다.

×

혜옥의 말이 끝나자 방안은 한동안 침묵이 깃들었다.

로임과장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더니 성냥을 그어댔다. 그의 얼굴엔 난감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손을 저어 담배연기가 혜옥이쪽에 가지 못하게 하고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러니 선반을 그냥 하겠단말이지요... 나두 혜옥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올줄 알았소. 허지만 인제는 늦었소.》

《.....》

《난 아주머니때문에 지배인동지한테서 꾸중을 들었소.》

《?...》

《왜 나한테 무릎관절병이 있다는걸 말하지않았소?》

《저한테요?... 전 아직 무릎관절아픔을 느낀적은 없었습니다.》

혜옥의 호소를 듣고나자 로임과장은 자책감에 선지 한숨을 쉬고는 피염피염 말했다.

《지배인동지는 가공직장의 주혜옥선반공이 무릎관절시초라는걸 알아냈단말이요... 지난달의 건강검진결과를 료해했는지... 본인도 모르는걸 어떻게...》

로임과장은 다시금 자책감의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수 없어요. 저의 다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픔이 올 때는 벌써 병이 과도하다는걸 말하오. 관절은 시초에 고쳐야 하오. 이젠 지배인동지의 충고요.》

《.....》

《지배인동지는 아주머니의 나이때가 제일 바쁘다고 했소. 계속 선반교대작업을 하니 두 철부지 애들에게 더운밥을 제때에 해먹이지 못할 때가 드문할거라구말이요... 혜옥아주머니, 지배인동지가 알맞는 배치를 한것 같은데 후방과에 가서 일을 보시오.》

《!...》

손기척소리가 나고 지배인실 문이 열리더니 직장장들과 과장들이 하나 둘 들어왔다. 조금후에 사업노트를 옆구리에 끼고 몸을 궁식거리며 들어온 기사장은 앞상열의 의자에 가앉더니 누구인가를 보고 말했다.

《다들 빨리 모이라고 하오. 지배인동지가 곧

오겠는데.》

그리고 혜옥이를 스쳐보고는

《아주머니도 참모회의성원이요?》

하고 빙그레 웃었다.

혜옥은 그만 무안해서 황황히 밖으로 나왔다. 그는 관리부청사의 불빛에 비친 나무그림자속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가공직장으로 뻗은 구내길에 지게차가 멈춰서서 부릉거리었다. 운두가 낮은 모자를 쓰고 회색 작업복을 덧입은 풍채좋은 사람이 지게차운전수 청년을 도와 환강소재를 싣고있었다.

《아참, 지배인동지, 이젠 됐습니다. 옷이 뒹굽니다.》

《소재를 떨궈놓구두 남의 걱정을 다하는군, 어서 쫓무니를 들라우.》

두사람은 길다란 소재덩이를 힘겹게 맞들어 지게팔에 엮었다.

《이제 다시 바쁘다고 카브를 성급히 꺾었다간 경을 칠줄 아오. <면허증>을 떼겠소.》

지배인은 짐짓 엄하게 말하고나서 지게차운전수청년의 모자채양을 눈덕까지 꼭 내리당겼다.

저도 모르게 지배인한테로 몇걸음 옮기던 혜옥은 나무결에 주춤 멈춰섰다.

지게차가 달려가는 구내길쪽에서 묵직한 보자기를 든 녀인이 지배인을 향해 총총히 다가오는 것이었다.

낮익은 부자연스런 걸음씨, 틀어올린 머리... 혜옥은 먼발치에서도 그 녀인이 가공직장의 새로 들어온 선반공임을 알아보았다.

지배인은 녀인이 올 때까지 잠자코 서있었다.

《저녁밥이에요.》

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분주스레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데... 구내식당에서 어렵히 먹지 않으리.》

지배인의 책망조의 음성에는 따스한 정이 숨배여 울렸다.

《이봐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왜? 막내녀석이 또 텔레비존을 켜놓고 잘가봐 그러오?》

《학부형회의는 감감 잊었군요.》

《아, 그렇지.》

《애가 전학한 학교인데 당신이 가봐야잖겠어요.》

《가보겠소. 참모회의가 끝나면 곧 가겠소.》

긴 말이 필요치 않는 부부간의 레사로운 대화였다.

녀인은 그 불편스런 걸음으로 가공직장 구내길로 멀어지고 지배인은 밥보자기를 들고서 관리부청사쪽으로 걸어 갔다.

(그랬었구나!...)

혜옥은 나무결에 얼어붙은듯 서있었다.

얼마나 소박한 사람들인가. 그런 안해를 지배인이 맞춘한 자리에 앉힌다고 누가 탓할것이라. 배치장, 공장, 로임파에서 흔하게 발급하는 손바닥만은 보통종이장... 그러나 혜옥은 선배들의 피의 노력의 대가로 차려진 배치장을 다시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것이다. 행복한 시절에 조국이 준 위치를 쉽게 바꾼다면 준엄한 시절에는 어디로 갈것인가.

혜옥은 가슴속에 남아있던 량심의 이런 성실한 쪼각으로 온몸을 불태우면서 가공직장을 향해 걸어갔다.

가사

남해가 끓도록 만세를 부르리

안정기

남해의 물결도 새날을 부르며
이 밤도 파도쳐 설레이느냐
향도성 빛발 따라 통일의 길을 걷는
전사의 가슴에 새 동이 터오네

세월의 눈서리 사납게 날려도
백두송 푸른 절개 변함있으랴

불타는 이 가슴에 겨레의 소원 안고
통일의 한길에 이 한몸 바치리

수령님 모신 대에 통일을 못하고
주체의 전사로 살수 있으랴
위대한 태양 모신 통일의 광장에서
남해가 끓도록 만세를 부르리

먼바다어로공

정천례

나를 기다리는 품이 있어

내가 왔노라, 사랑하는 바다여
바다밖에 모르던 나
산중에도 아름다운 명산에서 휴양하고
너의 기슭으로 돌아왔노라
오탁이 설레이는 풍요한 전야

못견디게 구수한 흙냄새
피끌센 노래하고 숲은 설레며
바다사람을 반겨주어도

눈감아도 보여오던 풍만한 바다
잠결에도 들려오던 파도소리
바다 떠나 산에선 더욱 절절하던
어로장의 가슴이 내앞에 설레누나

두팔 벌려 한껏 들이긋노라
소금기 스민 비릿한 향기여
백사장에 달려와 나의 발목에
반가웁다 감겨돌며 부서지는 파도여

물고기를 푸는 콘베아의 번쩍임도
머리우에 감도는 갈매기의 울음도
레사로이 보고 들을수 없는
류다른 환희와 기쁨을 자아내누나

새로 지은 가공공장조업식의 눈부신 꽃보라
뽕끼색 산듯한 새 고기배들

눈에 선 새 모습들
생기 넘쳐 새 활기로 나를 반기나니

아, 분과 초를 다투며 거침없이 창조되는
생활이여
내 잠시 떠난 그 순간에도
쉬임없이 이 작은 기슭에도
더 큰 행복이 마련되고있거니
산에 가면 산에 바다에 오면 바다에
래일의 더 큰 행복 마련하고 또 마련해가는
크나큰 그 사랑 그 은정에
헤아릴수 없이 뜨거워지는 마음이여!

아, 한생의 보람과 기쁨을
바다에서 당의 뜻 받들며 찾은 그때문인가
그 품을 떠나서 기쁨도 행복도 없듯이
바다를 떠나선 기쁨도 자랑도 없어서인가

갈매기가 바다를 떠나서 살수 없듯
내 잠시 바다를 떠나도 그리웁고 보고싶고
손꼽으며 내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품에 안기고싶은 마음

조국의 대고조에 발을 맞추는 나의 발자국
먼바다 향해 파도우에 찍노라
사랑하는 나의 배와 동지와 조직이 있어
나를 기다리는 품이 있어...

아름다운 기슭이여!

비는 내리는데
새 어장으로 배는 떠나는데
나는 갑판우에 서서
멀어지는 기슭을 바라보노라

공원속에 솟아난듯

어로공아빠트들 푸른숲에 안겨있고
포장한 깨끗한 거리로는
빨간 버스 줄지어 달리여라

우리의 행복의 거리
사람들 웃고 떠들며 지나는

정다운 거리를 바라보며
내 눈길 땔수 없어라
푸르고 노랑고 빨강고
온통 꽃이 핀양 아름다와라

색색의 비옷을 입은
어로공의 아들딸들
색색의 사출장화를 신은
어로공의 안해들 누이들 동생들
거리는 꽃피는 봄날처럼 아름다와라

화창한 날에도
곳은 날에도
언제나 웃음과 노래 넘치는
언제나 행복한 기슭
쉬임없어 어버이수령님 가꾸어주시는
기슭

우리 먼바다에서
풍어기 울리며 만세 높이 부를 때
수풀속의 아빠트를 하늘 높이 솟아나고
조국으로 운반선 뜨거이 바래올 때

우리의 아들딸들
얼마나 복된 웃음꽃 피울것이나

환희로운 꿈을 안은, 기쁨을 안은
삶의 보람을 안은 우리들
풍랑 사나운 바다를 향해
비를 맞으며 떠나가도
해빛넘친 꽃밭을 걸어가듯
희망의 봄언덕을 걸어가듯

아, 나는 어로공
저 기슭에 따뜻한 것들 둔 어로공
파도우에 뿌리는 충성의 땀방울
저 기슭에 꽃으로 피어나나니

아름다와지라
더욱 아름다와지라
내 이 기슭으로
몰라보게 달라진 기슭으로
뜨거운 사랑 안고 달려오리니
한없이 행복한 눈동자에 담고떠나는
내 고향 어항의 아름다운 기슭이여!

먼바다해돋이

먼바다에서 또 하루
동녘하늘에 동이 떠오면
레사롭게 바라볼수 없어라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는 붉은 노을

아침마다
조국쪽으로부터 비껴오는 노을
질풍같이 달리는 조국의
속도전의 열풍과 번개
예까지 번져오는것인가

안아보노라
김철과 황철
강선과 김책의 강철전사들
세월을 당기며
로마다 펄펄 끓여내는
잘 익힌 쇠물빛인것만 같아

안아보노라
태천과 남포
세계를 놀래우는 건설장의

장엄히 피여오르는
용접불빛인것만 같아

안아보노라
검덕과 단천
지심깊이에서 파올리는 광석덩이의 번쩍
임과
유색금속제련소의
화산같은 불길인것만 같아
아, 하늘과 땅을 물들이며
여기 먼바다에까지 물들이며
조국땅에 끓어 번지는
80년대의 뜨거운 열풍은
어로전사의 가슴에 뜨겁게 흐르나니
그 노을에 화답하여
탐지기는 천길물속을 꿰뚫고
바다를 가득 채우며 씩없이 돌아가는
그물 끄는 로라의 동음소리
그물마다 옥실거리며
금빛고기떼 올라온다

바다는 깊고
 점령해야 할 고지는 높아도
 파도위에 선 숨은 영웅들
 말없이 저 노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조국의 숨결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나니

억만고기떼의 은빛비늘은
 황금노을을 받아 더욱 번쩍이며
 동녘하늘 붉은 노을속에 퍼져간다

조국이어!
 그대 장엄한 진군길에 펼치는
 아름다운 조국의 노을에
 먼바다 전투장에서 비껴가는
 억만고기떼의 번쩍임도 합치나니
 바다는 끓고 어로공의 심장은 뛴다
 아, 들끓는 조국의 열풍을 뜨겁게
 받아안은
 먼바다 해돋이의 장쾌함이어!
 바다에서 조국을 섬겨가는 긍지여!
 희열이어!

여기는 사철 조국땅

진수성찬 푸짐히 차려놓고
 -국이 식어요
 서둘러 부르며 갑판에 나서니
 아, 조국에서
 푸르싱싱한 냄새가 왔네요

한아름 가슴에 안고
 불을 대이며
 향기를 말아요
 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떠나올 때
 먼산에 점점
 흰눈이 쌓였더니
 조국땅에 벌써 봄이 한참인거지요

사방에 파도멀기, 날리는 물보라
 한줌 흩이 없는 허허바다우에서도

봄에는 푸르른 봄남새
 여름이면 풋고추, 풋깡냉이...
 가을이면 가을열매 향기뿜는 우리 배

아, 바다의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도
 귀중한 우리 어로공들
 식성맞춰주라고
 신선한 조국의 남새
 천리어장에 보내왔으니

나는 취사장에 다시 뛰어들어요
 상추쌈 좋아하는 신장아바이
 풋고추 즐기는 갑판장 김동무
 시금치 좋아하는 어로공 리동무
 싱글병글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모습
 아, 취사원 내 정성도
 당의 그 사랑 한껏 받들고싶어요

나를 반겨맞는 조국에...

배마다 듬뿍 물고기를 실은
 먼바다 어로선단을 이끌고
 나는 부두로 들어선다
 들끓는 어로전을 지휘하던 목소리로
 정모에 손을 올려 기쁨의 인사드린다
 -조국이어, 그대 얼마나 달려왔는가?

그러면 대답하듯
 우리 배를 마중하여
 어항거리가 온통 펼쳐나왔구나
 뻑뻑이 모여선 사업소사람들

추운 날에 모자도 없이
 지배인 당비서도 나와섰구나

마치 열병식을 앞둔 대렬인듯
 꼬리없이 자동차는 줄지어 서있구나
 흰김 올리며 서있는 랭동렬차
 평양행, 개성행, 강제행...
 화살표는 들끓는
 조국의 모든곳을 가리키누나

아,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들을 마중하여
조국은 이 새벽을 마련했는가
축하의 꽃바다로 정다운 환호로
반겨맞이하는가

우리를 한껏 반겨맞는
친근한 저 사람들에게
차량들에 짐차들에 뺑동창고에
행복하여라
넘치도록 듬뿍듬뿍 안겨주고
마음껏 실어줄수 있는 풍만한 수확이여!
저 기차들이 달려가는 모든곳에

가정들에 식당들에 상점들에
건설장들에 유치원들에
속도전의 열풍 이는 조국땅 방방곡곡
인민이 사는 모든곳에

웃음과 활기를 부어주는 나의 로동이여

나는 땅으로 내려선다
정다운 나의 조국산천이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국을 위하여
함께 달리며 흘린 땀방울은
이렇듯 상쾌하고 신성한가

달과 달을 바꾸며
사나운 풍파를 헤쳐온
나의 가슴은
일시에 기쁨으로 가득차누나

조국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안는
아, 이 순간을
내 천금과도 바꿀수 없으라

그날의 맹세를 안고

황승명

밤이 깊구나
달도 별도 구름속에 깊이 잠든 밤
고르로운 양수기의 동음을 지켜
이 밤도 나는 잠들지 못한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나를 부르는듯
속삭이는듯
머나먼 추억의 장막을 두드리며
이 가슴을 흔드는 저 소리

그때도 이런 밤
락원의 10명 당원들은 잠들지 못했다
악에 받친 원쑤들의
시한탄을 안아내며

폭음을 짓누르던
그날의 망치소리...
꺼지지 않던
용선로의 그 불길...

한장의 내화벽돌을
목숨과 바꾸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마음의 기둥이
눈앞에 어린다

꺼질줄 모르던 그 숨결이
내 가슴을 후덥히누나
하나의 작은 부속에도

그 녀이 어리고
그날의 맹세가 사무친
저 양수기소리...

뿔어올리는것이 어찌
천리에 굽이치며
억만의 뿌리에 닿을
젖줄기만이라

퍼내고 퍼내어도 마를줄 모르던
그 충성의 샘이
땅을 적시고
가슴마다 스며들거니

풍작이여 소리치며 설레여라
세월이 흐른다고
한번 다진 그 맹세
변함있으랴
무엇때문에 이 밤도
양수기와 함께 뿔뛰는
이 심장이냐

하늘의 불바람이
왕가물을 몰아와도
우리는 언제나
알찬 열매를 무르익히며
수령님께 다진
그날의 그 맹세를
만풍년의 노래로 이어가리라

혁명적비극의 참다운 본보기

-예술영화 《월미도》에 대하여-

박영래

주체적영화예술이 올라선 높이를 뚜렷이 보여주는 특출한 성과작의 하나인 예술영화 《월미도》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용감한 월미도방위자들의 영웅투쟁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지금 세상에 나오자마자 만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크나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영화가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은 단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적투쟁사실을 방불하게 그리고있는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영화는 월미도해안포병들의 희생적인 투쟁사실을 취급하면서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빛나는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전쟁물주제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준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사상을 철저히 구현한데 있다. 그리하여 예술영화 《월미도》는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에게 조국이란 무엇이며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리켜주는 참된 교과서로,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백전백승의 길에 바쳐진 참다운 삶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오늘과 같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의세게 싸웠습니다.》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는 예술영화 《월미도》가 거둔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우리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백전백승하지만 그 길에는 희생이 있을수 있다는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인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을 바친 월미도방위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준 데 있다.

월미도방위자들은 조국의 풀 한포기, 꽃 한송이, 흙 한줌을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귀중히 여겼으며 그것을 지켜 목숨을 바친 영웅전사들이다.

그들은 혁명전사들처럼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데 바쳐진 생이 더 아름답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움으로써 인민의 행복을 사수하였다.

영화는 월미도방위자들의 이러한 숭고한 정신세계를 높은 경지에서 생동하게 펼쳐보이면서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어머니라 부르는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며 참다운 애국심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영화의 중심에는 리태운을 비롯한 그의 전우들이 서있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만 아니라 그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야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통해서만 밝혀질수 있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조국의 한치땅을 피로써 사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사람까지 결사적으로 싸워 빛나는 승리를 거둔 월미도방위자들을 전형으로 내세우고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고 그들처럼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도록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실재한 력사적사실과 원형에 기초하여 예술영화 《월미도》는 우리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며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백전백승하지만 그 길에는 희생이 있을수 있다는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혁명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안팎의 정세가 긴장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매우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이다.

작품이 제기한 심오한 철학적문제는 주인공들의 깊이있는 성격형상과 격동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훌륭히 밝혀지고있다.

첫날전투후 중대를 찾아온 대대장은 중대장 리태운에게 전쟁전에 본 어떤 외국책에는 아득한 옛적부터 선조들이 살아오던곳 아버지의 뼈가 묻혀있고 들판에서 종달새가 우짖는 정든 고향이 바로 조국이라고 써여있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선조들도 아득한 옛적부터 이 땅에서 살았고 그때도 종달새는 울었소. 하지만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기전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단말이요? 난 그 종달새가 우짖는 곳에서 왜놈의 채찍밑에 뼈가 휘도록 고역살이를 했소. 동무도 그랬지? 그러니 우리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겠소? 조국이란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오...》

《그러니 우리가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것이 무엇이겠소.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다는 말이 아니겠소.

태운이! 우리 비록 몸은 장군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장군님을 호위하는 심정으로 이 섬을 사수하자구.》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가.

영화는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한 대대장의 절절한 목소리에 담겨져있는 깊은 사상을 핵으로 하여 조국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대답을 주고있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고향이라고만 볼수 없었다.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선조들이 살아내려오는 땅 자기가 나서자란 종달새 우짖는 아름다운 고향이 있었다.

하지만 착취자들이 모든 권력과 재부를 독차지한 그때에는 종달새 우짖는 푸르른 들판이 아무런 기쁨도 없는 참담한 고역장이였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망망한 바다는 칠성관을 걸머진 어부들의 원한이 사무친 죽음의 나락이었으며 공장과 도시는 근로자들의 피땀을 짜내는 악마의 소굴이었다.

주인공 태운에게도 태를 묻고 자란 고향이 있었지만 열살도 되기전에 왜놈의 짐수레를 끌어야 했고 소년화부로 고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취사병 종섭이 역시 기름진 들판이 뻗어있는 고향땅은 머슴살이의 피눈물나는 생활과 잇닿아있는 땅이었다.

그렇다면 것처럼 귀중한 어머니조국이란 무엇인가?

근로하는 모든 인민이 자주적인 권리를 차지고 떳떳하고 보람있게 사는 바로 그러한 조국이 참된 조국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오로지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잃었던 조국을 되찾아주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참다운 삶이 꽃피나는 진정한 조국으로 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의 품을 떠나서 조국의 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영화는 주인공들이 조국의 이름없는 섬을 지켜

혁명에 한목숨을 바친 그 정신적바탕이 무엇이였는가를 밝혀주면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열렬한 조국애와 결부하여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주인공들의 이러한 사상감정을 영화에서는 나 어린 무전수 영옥의 노래를 듣는 장면에서 매우 인상깊게 형상하였다.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치는곳
아 내 고향 푸른 들 한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줄 나는 나는 알았네
.....

마치도 소생의 활력을 주는 봄비와도 같이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영화의 사상적핵을 움티우고 자래워 형상의 꽃을 피우면서 조국이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깊이있는 사상을 정서적으로 힘있게 안팎집해주는 영옥의 노래! 노래를 들으며 부모처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했던 나날들과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그리는 병사들...

이러한 그들이였기에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떠나서 조국을 생각할수 없었다.

영화는 바로 이러한 형상속에서 자기들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자신이 참다운 삶과 모든 행복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과 땀해야 땀수없는것으로 생각하는 인민군용사들의 철석같은 신념을 밝혀내고있으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 품속에서 영생하리라는 맹세를 안고 당과 수령과 조국을 지키는 성전에 바친 생은 가장 고귀한 삶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월미도는 사랑하는 조국의 한 섬이다.

비록 지도에는 자그마한 점으로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섬이었지만 그것은 조국의 한 부분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잇닿아있는 귀중한 땅이었다.

《...동무들! 조국은 위협에 처했습니다.

아직은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명백한것은 어떤 경우에도 중대가 월미도를 고수해야 한다는것이요. 우리 뒤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있으며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기에 리태운을 비롯한 월미도방위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조국의 섬을 사흘동안이나 수호한다.

이렇듯 예술영화《월미도》는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며 진정한 조국애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한다.

또한 영화는 주인공들의 깊이있는 성격형상을 통하여 인민군용사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를 심오하게 형상하고있다.

영화는 월미도방위자들의 최후를 통하여 비감

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영웅적기개를 격동적인 생활화 쪽으로 보여준 영웅서사시이다.

태운을 비롯한 해안포중대원들은 3일간 섬을 사수할데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미 준엄한 결사전을 각오하였다.

하지만 누구하나 비감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며 조국을 위한 투쟁의 길에는 희생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인것이다.

사실 리태운을 비롯한 월미도방위자들은 불명예스럽게 사느니보다 더없이 귀중한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목숨을 바치는것을 영예로 가장 큰 행복으로 간주하였다.

영화를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중대장 리태운은 이미려단포병참모장으로 소환명령을 받은 사람이며 나 어린 무전수 영옥이도 섬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월미도방위자들의 정다운 고향에 피어나는 행복의 상징이였고 부모처자들앞에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게 싸우고있는가를 비추어보는 거울이기도 한 청신하고 구김살없는 애 어린 영옥이만은 살아남기를 모든 전투원들이 진정으로 바란것이다.

그러나 봄이면 사과꽃 피고 가을이면 황금이삭물결치는 내 고향 푸른 들 한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 어머니라 부르는 조국이고 그 조국이 어버이장군님의 품인줄을 심장으로 체득하였기에 그는 섬을 떠날수 없었으며 자기 몸으로 통신선을 이어 전투승리를 보장하고 영웅적최후를 마친다.

기뢰병 석준이와 당분조장 민국이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였다.

지난날 광산로동자였던 민국이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였다가 회복되지도 않은 몸으로 다시 섬으로 돌아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기뢰병 석준이도 섬을 떠나지 않고 기뢰를 안고 적함을 찾아떠나 결사대로서 마지막순간까지 싸워 승리하며 보람있게 살기 위하여 한목숨 바친다.

이것은 자기들의 청춘과 삶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이 있어 받아안게 된것이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인민은 불패이며 조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녔기때문인것이다.

그러기에 최석준은 최후의 순간에 전우들과 작별하면서 《전 한이 없습니다. 혹시 전할길이 있으면 해군중사 최석준이가 장군님의 안녕을 축원하면서 나갔다는것을 전해주십시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것이며 중대는 최후의 승리를 굳게 믿으면서 마지막 편지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이며! 번영하라!》는 글발을 남기었던것이다.

주인공들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숭고한 자기 희생성과 혁명적락관주의를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주체형의 인간들의 혁명적인생관, 삶과 죽음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깊이 있게 해명하고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단순한 희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는 삶, 백전백승의 길에 바쳐진 참다운 삶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룩한 승리가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질수 있었는가를 절감하게 하며 온 세상이 부러워마지않는 우리인민의 행복의 락원도 바로 이러한 피 어린 투쟁을 통해서만 마련될수 있었다는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되새기게 한다.

이처럼 예술영화 《월미도》는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확고한 혁명관과 옳바른 인생관을 튼튼히 심어줌으로써 혁명과 삶에 대한 참뜻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적비극의 본질을 새롭게 밝힌 《월미도》

문학예술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새것을 창조할뿐아니라 낡은것을 타파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어야 한다.

예술영화 《월미도》가 거둔 예술적형상의 특출한 성과의 하나는 비극에 대한 고정관례를 대담하게 타파하고 혁명적비극의 형식과 양상을 새롭게 개척하고 완성한것이다.

처음 고대회합에서 발생하여 점차 독립적인 극형태로 발전하여온 비극은 원래 계급사회의 불상용적이며 첨예한 갈등을 반영하여 그것을 주인공의 희생으로써 해결한 극형식의 하나이다.

비극작품의 주인공들은 당대사회의 필연적요구를 체현하고있으나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낡은 세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희생되는 인물들이였다.

따라서 비극의 주인공은 낡은것을 증오후에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정신과 의지가 강하기때문에 그의 죽음은 관중들에게 동정과 슬픔을 자아냈다.

적대계급으로 분렬된 계급사회의 불상용적인 모순을 반영한 비극은 오래동안 근로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하며 정의와 행복에 대한 그들의 지향을 억제하며 새것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착취사회의 사회적화근인 비극적형상을 극형식에 담아왔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비극적인것이 발생할수 있는 사회계급적기초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종래와 같은 비극은 더는 산생되지 않게 되였다.

하지만 자주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속되는만큼 그 투

쟁과정에는 희생이 있을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친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주인공들의 비극적결말을 통하여 보여줄수 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산 경험과 교훈을 주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비극은 필요하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혁명투쟁과정에 있을수 있는 희생을 비극적인것으로 그리는 경우 과거와 같은 그러한 양상의 극형식에 담을수는 없는것이다.

때문에 혁명투쟁과정에 있을수 있는 희생을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한 형식과 양상에 맞게 담기 위한 탐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들과의 성스러운 싸움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리태운해안포병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주체의 혁명적인생관에 기초하여 새롭게 형상함으로써 혁명적비극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완성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창작가들은 영화에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주인공들이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 모두 장렬하게 희생되는 대담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풀기 어려운 형상적과제를 혁명적비극으로 아주 훌륭하게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주인공들이 모두 희생되지만 슬픔을 주지 않는 비극, 비애가 아니라 신심과 용기를 주는 혁명적비극을 새롭게 창조하였다.

영화를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창작가들은 죽음을 맞바나아가는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생활론리와 성격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파고들면서 그들의 행동에 능동성과 적극성을 부여함으로써 죽음을 가장 영웅적인 행동으로 승화시키고있다.

월미도의 3일, 물에서 동떨어진 날마다 한복판에 자리잡은 월미도에서의 3일은 바위가 타고 모래가 타는 격전장이였지만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칠 줄 안 영웅전사들의 아름다운 생활과 미래가 락관적으로 꽃핀 3일이기도 한것이다.

따라서 리태운중대장을 비롯한 영웅전사들의 비극적결말에서도 사람들은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조국의 아들딸들의 최후를 보게 된 비장감보다도 열백번 죽어도 넘어지지 않는 또 넘어뜨릴수도 없는 강한 안간을 보게 된 감동으로 하여 가슴끓이게되며 월미도의 영웅들처럼 언제나 굴함없이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게 된다.

이것은 영화가 종래의 비극에서와는 달리 애절한 희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하는 삶과 잇닿아있는 가장 값높은 인간들의 최후를 비극적결말속에 새롭게 해명한데 있다.

바로 여기에 낮은 세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희생되는 주인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슬픔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던 비극의 형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혁명적비극의 본질을 깊이있게 천명한 《월미도》의 혁신적성과가 있다.

예술영화 《월미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공들의 희생에서 비장감보다도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 조국이 부를 때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원수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창을 박는 백병전에 서슴없이 뛰어들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게 하는것은 작품의 정서적색갈을 생활의 본색 그대로 잘 그려나간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정서적색갈에 관한 문제는 작품의 양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그의 사상정치적 인식교양적 기능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

왜냐 하면 생활을 어떠한 색깔로 그려나가는가에 따라 예술적형식이 달라지게 되고 작품의 사상과 정서와 결합되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게 되기때문이다.

《월미도》는 어둡고 침침한 색조에 빠지기 쉬운 생활들을 그리고있으나 그것을 시종일관 영웅적이고 량만적인 생활정서가 넘치게 그리였다.

포연자욱한 은폐호의 창문가에도 해당화가 붉게 피어있고 한모금의 물이 귀한 때에도 꽃이 시들세라 탄피꽃병에 물을 주는 영옥이의 마음과 중요한 전투임무를 맡고 기약할수 없는 길을 떠나면서도 꽃병에 물을 주라고 부탁하는 윤식이의 마음, 그리고 전우들에게 따끈한 생선국을 먹이겠다고 하면서 함포탄이 우박치는 바다가에 나가 물고기를 건지는 장면들은 혁명적정서가 흘러넘치는 기쁜진 화폭들이다.

영화는 주인공들의 성격형상에서 이처럼 형상의 색깔을 혁명적정서로, 량만적인것으로 훌륭히 일관시킴으로써 우울과 비감을 자아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화는 사람들에게 백전백승의 길에는 희생도 있을수 있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만약 혁명의 길에 월미도방위자들이 겪었던것보다 더 엄혹한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들처럼 운명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옹위하는 그 길에서 장렬하게 한목숨 바칠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게 하는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혁명적비극의 본질을 새롭게 천명하고 그 형식을 빛나게 완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고 온갖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끝까지 굴함없이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해주는 혁명적비극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우리 작가들은 예술영화 《월미도》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들을 깊이 연구하여 혁명적문학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간석지에 핀 노을

양의선

ㄷ 간석지건설사업소 시공과장 로영택은 가둑나무숲이 뒤엉킨 비탈길을 터벌터벌 내리면서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자기 자신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다.

이제 십오분후이면 이 섬의 한쪽절반을 뭉쳐 들어날리는 250만산대발파가 진행된다. 방대한량의 막돌이 어느쪽으로 날려썰이는가를 측면에서 관찰하기 위하여 그는 제방쪽으로 내려가는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간석지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중대사를 코앞에 놓고 시공과장인 자기가 전혀 하지않은 문제에 자꾸만 신경이 썩여진다는 데었다.

(젠장, 이번 발파가 어떤 발파라구, 처녀의 머리우에 얹어놓았던 그 알량한 꽃수건따위로 발파 신호기발을 하다니!...)

그는 벌써 세번씩이나 석비레판에 엉덩방아를 찢으면서 이렇게 두덜거렸다. 코마루에 흘러내린 불투명한 안경을 올려놓으며 그는 고개를 기웃했다.

(더우기 그런 엉뚱한 궁리가 서로 웅치간인 림혜숙과 강철준 사이에서 떠오른데는 알다가도 모르겠거던... 당비서동무가 나를 향해 의미심장하게 그 시커먼 속눈썹을 깜빡거리며 <이것이 그대로 생활인데 어찌겠느냐>고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서로 물과 불, 웅치간이 아닌가?)

시공과장 로영택이가 강철준과 림혜숙의 관계를 물과 불처럼 생각하게 된데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

담당설계원인 림혜숙은 250만산발파천공문제때문에 돌격대장인 강철준이와 천공도면을 놓고 마주설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강철준은 거칠게 깎아내린 목각처럼 엄격한 표정으로 처녀의 창백하고 매끈한 이마를 꿰는듯한 눈길로 쏘아보았고 림혜숙은 림혜숙이대로 청년의 앞가슴 두번째단추에 차갑고 무표정한 눈길을 준채 조금 치뜨거나 내리뜨지조차 않았다. 오고가는 말은 그들의 표정보다 더 딱딱하고 차가운 랭기가 풍겼다. 로영택이가 보기에도 별로 흠잡을데없는 처녀의 발파설계도면에서 강철준은 어김없이 매번 흠집을 잡아냈다. 림혜숙은 발파각도와 단면을 똑바로 잡아나가지 못한다고 짙은 목소리로 말하곤 하였다.

그들은 분명 마음속으로 서로 버르고 심사숙고해서 상대방의 결함들을 생각해뒀다가 말하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서로의 의견이 매번 그렇게 바늘처럼 예리하고 정확할수있겠는가.

로영택은 서로의 마음이 고슴도치처럼 되어가지고 사업때문에 부득불 마주서야 하는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피로우랴싶었다.

(무슨 웅뿔힌 사연이 있길래 저럴가? 꼭 둘사이가 물과 불이거던...) 그들자신도 자기들의 처지를 몹시 피로와하는것이 알렸다. 서로 만나 의견을 주고받은 날이면 그들은 온밤 잠을 들지 못하였다.

후미진 섬기슭으로 밤밀물이 소리없이 밀려들고 자정이 훨씬 넘은 밤하늘에 잔별들만 새물거리고있을 때 건설자합숙에는 유독 꺼지지 않는 두개의 불빛이 있었으니, 그것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빛나는 강철준의 호실과 림혜숙의 창문이였다. 하나는 피로움받는 사나이의 불라는 심장처럼 빨간 불빛이였고 하나는 고뇌가 어린 녀자의 눈동자를 방불케 하는 파아란 수은등빛이였다.

퇴근길에 자주 바라보게 되는 그 불빛으로 하여 대단히 걱정스러워진 로영택은 그들의 사연을 손수 알아보기로 결심하였다.

어느날 저녁, 로영택은 제대군인합숙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한 제대군인한테서 그들 둘사이 에 있는 그럴만한 사연을 들었다.

...제대배낭을 간석지건설사업소 합숙에 벗어던지고 고향에 찾아가 강철준은 친척들의 주선으로 소개받은 처녀를 만나보았다.

그 처녀가 바로 림혜숙이였다.

모든 제대군인들이 그러하듯이 사회생활에 대한 리해가 단순했던 강철준은 처녀에 대한 첫인상도 명백했었다.

처녀가 그의 마음에 들었다. 굼니는 머리칼을 시원스레 올려붙여 하얗게 드러난 목과 턱언저리의 단아한 모습이 순진한 어린아이를 방불케 하였다. 한순간 얼핏 치꼴다내리는 눈길에선 처녀의 그윽한 감정이 무지개발처럼 뽀얗게 뿜겨나오는듯싶어 철준의 머리를 핑그르 돌게 하였다.

《술직히 말해서 나는...》

강변에 나왔을 때 철준은 단도직입 이렇게 말 머리를 뺐다. 그러나 그뒤를 어떻게 이어야 할지를 몰랐다. 《사랑한다》는 말은 심장으로나 할 말

이어서 그런지 좀처럼 입에 오르지 않았고 《나는 다른 의견이 없소.》라고 해버렸으면 시원하련만 그 무슨 청구서에 결재나 하듯 표현이 딱딱하고 너무 미옥스러워 그렇게 말할수도 없었다.

처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그는 이 순간을 그냥 서서 자기의 자태를 지탱해 내기가 몹시 힘겨운 모양이다. 가슴 봉긋이 숨결을 모두며 처녀는 실실이 늘어진 버들가지를 살며시 모아쥐었다.

하늘의 못별들이 물결위에 소리없이 부서지며 눈웃음쳤다. 축축한 돌간길에 꺼꾸로 비친 등그런 가로등이 검푸른 심연속에서 그들의 심장처럼 늘었다줄었다 하며 천천히 오르내리고있었다.

철준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내가 묻고싶은것은… 나는 일생을 간석지건설에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요. 동무가 이 변화한 거리를 떠나 과도사나온 진펄에 가서 평생 후회가 없었소? 간석지일이란 구질고 장참 떠돌아다녀야 한다구들 하던데…》

처녀는 몹시 놀란듯 두눈을 등그렇게 치켰다. 철준은 그의 놀래는 표정이 자기와 함께 가야 할 두렵고도 매혹적인 별다른 세계에 대한 처녀다운 호기심때문인줄로 알았다. 이어 그 눈길에 방긋웃음이 피어나고 애되고 점직한 목소리로 무엇인가 신뢰에 넘친 대답을 해주리라 믿었다.

그 황홀한 순간을 지켜 처녀의 두눈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처녀는 입술만 새파래져서 떨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미소가 아니라 의혹과 놀렘이 그 어떤 뽀얀 불신임과 배반당한 노여움으로 뒤바뀌는것이였다.

처녀는 왈각 터지려는 울음을 막으려 모아잡았던 버들가지를 뿌리치고 얼굴을 싸끈채 획 돌아서서 어둠속을 총총히 달려갔다.

철준은 그를 부르려 한걸음 나서다가 얼굴에 부딪치는 실버들가지에 흠칫 몸을 떨며 우뚝 서버렸다. 때아닌 광풍이 일어 갑자기 나긋나긋한 실버들이 모진 채찍이 되어 그의 얼굴을 호되게 후려갈긴것만 같았다…

강철준은 난생처음 힘 연약한 녀성의 버림이 안겨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며 피로운가를 체험했다. 자기자신에 대한 환멸과 모멸감, 끓어오르는 수치와 모욕감… 이러한 감정은 사나이들의 심장에 칼을 받는것보다 더 혹독한것이였다. 철준의 얼굴은 며칠사이에 깎아내린듯 엄엄해졌다.

그처럼 정력에 넘치고 유쾌하던 짙은 안광은 폭꺼지고 뽀얀해졌다.

며칠후에 처녀쪽에서 <처음부터 상대자를 기만하는 남자한테 어떻게 일생을 의탁하겠느냐>는 뜻으로 청혼을 거절한 이유를 밝혀왔다.

《예구, 이 늙은 에미가 망녕을 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철준의 어머니가 무릎을 치며 한탄조로 실토하였다.

《난 너를 외삼촌한테 말해서 여기로 떼올 궁리만 하고 처녀한테 그렇게 말했었구나. 제대해오면 곧 여기 어디 경제지도위원회 같은데 지도원으로 들어갈거라구…》

한참동안 자기 망녕을 울며불며 탓하던 어머니는 웃고름으로 눈귀를 찌으며 이제라도 처녀편에 전후사연을 알려져서 오해를 푸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은근히 비치였다.

《어머님은 절더러 구절을 나서라는겁니까!》 하고 철준은 대답했다.

난생처음 아들의 입에서 이처럼 서리발같은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가슴속이 다 썩늘해져서 아무말도 못하였다.

철준은 두눈이 뽀얀해지고 얼굴이 해쓱해져서 간석지합숙으로 돌아왔다. 이 열흘도 못되는 짧은기간에 그의 가슴속에는 하나의 신념이 뿌리깊이 박혀졌다. 다시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자기 생활에서 허용치 않을것이다. 나한테서 이성문제는 이것으로 끝이다. 모든 정력과 힘을 오직 일에만 쏟아붓자! 또다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맛보지 않기 위하여 그 어떤 녀자, 그 어떤 사랑의 유혹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을것이다. 생활에서 굴종은 수치와 모욕뿐이라는걸 너는 이제야 깨달았단말이나?

그는 자기를 조소하며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합숙의 같은 제대군인친구들이 철준의 《휴가결과》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질기게 캐여물었으나 그저 집에 가서 실컷 덩굴며 소설책이나 보다 왔노라고 짤막하게 대답하였다.

그의 깎아내린듯한 얼굴과 어두워진 눈빛을 보고 동료들은 더 묻기를 단념했다. 그러나 며칠후에는 벌써 다른 선으로 그 내막을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그 녀자>에 대하여 결론까지 내리였다.

《웬걸, 녀자들이란 원래 앙큼해서 입술은 그럴듯하게 놀리지만 속심은 판데 있어. 흥 기만이라구? 보나마나 간석지에 시집오기 싫으니까 좋은 핑계를 붙잡았지!》

《그 끝날같은 친구를 마다한 그 녀자의 얼굴을 내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걸. <돈문 눈이 어디 가 붙었소?> 하고 물어보게 말일세.》

합숙의 제대군인들속에서 그 녀자에 대한 조소와 야유가 이렇게 한창 무르익어가고있을 때 뜻밖에 그 녀자 자신이 간석지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임심사납던 제대군인들도 한결같이 숨을 죽이고 그 녀자의 거동만 지켜보았다.

처녀는 파리하고 새침한 얼굴로 로동과와 직장 사무실, 합숙으로 찾아다니면서 입직수속을 하였다. 나흘만에는 연한 회색작업복에 진달래꽃무늬의 빨간 머리수건을 쓰고 현장설계원으로 작업장에 나타났다.

그날저녁, 합숙에 돌아온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철준을 둘러싸고 타이르기 시작하였다.

《어보게, 보아하니 처녀가 생각과는 다르더군. 자네를 못잊어 찾아온게 분명한데 이제라도 화해를 하게나.》

그러나 강철준은 동무들이 내놓은 타협안을 칼로 베듯 맹정하게 잘라버렸다.

《한순간이라도 날 그런 너절한 인간으로 본 너자를 용서할수 없네. 설사 그가 백번 생각을 고쳐먹고 찾아왔다 해도.》

견결한 그의 성미를 잘 아는 친구들은 뒤통수를 툭툭 치며 물러갔다. 그리고는 다른 방에 가서 자기들끼리 협의 끝에 인젠 다른 방도가 없으니 너자쪽을 한번 움직여보자고 하였다.

사리에 밝고 말 잘하는 친구가 추천되어 너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심분도 못돼서 그 친구는 한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머리를 긁적거리며 돌아왔다.

《그 동무한테 미련이 있어서 간석지에 온것이 아니예요.》 하고 처녀가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제가 그때 저절한것이 결코 이런데 시집오기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싶었을뿐이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량심, 자기 심장의 결백성을 증명해보이고싶어서 간석지에 왔다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도고하고 자존심이 센 심장들인가!

《젠장, 무기분해결합이라면 눈감고도 해치웠겠는데 천상배필이 틀림없는줄 뻔히 말면서도 어찌지를 못하고있으니, 참! ...》

로영택이한테 그들의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 해주던 친구도 제결에 가슴이 답답해났던지 합숙 창문을 활짝 열어제켰다.

《저것 보십시오. 무슨 방도가 없습니까?》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애가 타듯 부르짖었다. 《오늘도 저렇게 밤들을 새울겁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이 밤에도 꺼지지 않는 두개의 불빛, 그것은 강철준의 방과 림혜숙의 침실이였다. 이 밤따라 그 두 불빛이 어둠속에서 피로움과 고뇌로 더욱더 외롭게 떠는듯싶어 로영택은 생각깊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피로겠소...》 하고 로영택은 경험있는 년장자다운 용단을 가지고 말하였다. 《이런 경우엔 서로 갈라놓는것이 제일 상책이요!》

그 다음날아침, 로영택은 철준을 조용히 사무실에 불러들여 그 의향을 비추어보았다. 청년은

그술진 눈섭을 찌프리고 물끄러미 앞을 바라보며 자기 군복상의단추만 비틀었다. 림혜숙이가 그와 마주설 때마다 지켜보곤하던 그 두번째 단추였다. 그걸 저렇게 비트는 버릇이 이번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 간들거리는 실오리를 로영택은 측은한 눈길로 건너다봤다.

강철준은 그의 눈길이 어디에 와닿았는가 눈치채자 단추를 비틀어떼서 주머니에 쓸어넣으며 통명스럽게 말하였다.

《그래 그 동무와 나와와 관계가 지금 하고있는 일에 방해라도 됩니까?》

방해되는것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깔끔한 관계가 서로의 결함을 제때에 발견하여 오히려 250만산발과효률의 과학성을 실천적으로 더 확고히 담보해주는듯도 싶었다. 그들이 있는 합숙의 두 불빛이 그러한 밤이면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않는것이 우연한 일이었는가?

로영택은 희유스름한 속눈섭을 습벅이며 말하였다.

《하지만 서로 마음들이 피로와서...》

그러나 그는 말끝을 미처 맺지 못하였다.

《그런 걱정 마십시오.》 철준은 견결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전 지금 250만산발파에 전념하고있을뿐입니다.》

그 다음날은 림혜숙을 만나보았다.

처녀 역시 조용히 눈시울을 내리깔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까지 근심을 끼쳐드려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런 공연한 근심을 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저 250만산발파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로영택은 그들의 대답이 서로 약속이나 한듯 똑같은데 놀랐다.

(하긴 250만산이 크긴 크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자기들의 사소한 감정을 얼마든지 숨길수 있을만큼은... 하지만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심장들이야!)

로영택은 생활속에서 몇몇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사랑의 실련이 가져다준 아픔을 사업을 통하여 잊어버리는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들처럼 자기의 결백과 자존심을 지나치게 내세우던 나머지 자신들의 심장을 가장 피로운 처지들에 가져다놓고 생활의 신념들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가는 젊은이들은 처음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피로운 처지가 실망과 고민, 자포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생활과 공적인 사업의 파멸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기마당에 끌리듯 하나의 지향속에 더욱 엄격히 철저히 얹혀들어가고있음을 느끼지않을수 없었다. ...

(참 그들사이엔 알다가도 모르겠거던. 내 보기엔 분명 물과 불인데...)

로영택은 방금전 발파준비현장에서 벌어진 수
수끼끼같은 일을 두고 기웃거렸다.

이같이 중대한 발파를 두고 신호기발준비같은
것을 잊어먹었다는것부터가 벌써 수상쩍은 일이
였다.

발파준비를 서둘러 온 사업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홀동안 끓었다. 폭약을 수천톤 장약하는
데 삼사일이 걸리고 도화선을 늘이고 전기발파장
치를 하는데도 웅근 반나절이 걸렸다. 린근 수산
사업소들에 고기배들을 안전한곳으로 대피시킬데
대한 연락이 취해졌다. 그 누군가의 다감한 손
길이 밤새에 발파할 벼랑의 갈매기 등지와 알들
을 후미진곳으로 옮겨갔다. 근심많은 아낙네들이
찬장우에 없어놓았던 유리그릇과 꽃단지들을 안
아내리웠다.

모든 준비가 빈틈없이 되었다. 각 신문사와 방
송국의 기자, 텔레비존촬영기자들이 벌써 몇번씩
이나 렌즈의 초점을 다시 맞추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갑자기 산정의 바위등우에 놓
여있는 노르끄름하고 네모난 전기발파기에 쏠렸
다. 이제 저 두줄기의 파란 전기선이 달린 발파
기의 스위치만 돌리면 250만산이 뭉청 하늘로 날
아오르리라 하고 생각하니 모두의 가슴은 소리없
는 거센 충격으로 긴장해졌다.

산정에는 발파전 이상한 정적이 깃들었다. 바
로 이때 누군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발파신호
기발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아연해서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정말로 신호기발은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발파신호를 하게 된 강철준이에게로 쏠렸다.

한순간 강철준의 얼굴이 검검해지는데싶었다.
그러나 인차 그는 구원의 듯배라도 발견한 사람
처럼 두눈을 번쩍 빛내이더니 결연한 태도로 림
혜숙을 향해 걸어가는것이였다.

림혜숙은 사람들의 뒤 좀 떨어진 까치밥나무덩
쿨옆에 조용히 홀로 서있었다. 그런듯이 단정하
게 서있는 처녀의 머리우에선 진달래꽃무늬의 붉
은 머리수건이 바다바람에 불타듯 팔락거리고있
었다.

강철준이 그앞에 다가섰다.

《혜숙동무, 그 머리수건을 좀 벗어주요.》

(저런?...)

로영택은 두눈을 홑뜨며 숨결을 죽이였다. 처
녀는 거절할것이다. 거절할수 있는 리유는 충분
하게 있다. 머리수건으로 신호기발을 하다니? 그
리고 그들은 물과 불처럼 서로 웅치간이 아닌가!

이제 철준이가 당해야 할 거절과 수치, 무안을
생각하니 로영택의 등골에는 땀이 다 흘렀다...

그런데 뜻밖에도 림혜숙은 눈시울을 조용히 내
려간채 머리수건을 벗어서 철준이앞에 내미는것

이였다. 로영택은 어리벉벉해진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즐거운 웃음을
띄우고 두 젊은이를 대견하게 바라보고있었다.

《그건 안됩니다. 처녀의 머리수건으로 신호기
발을 하다니!...》 단 한사람이 깔깔한 소리를 내
지르며 그들앞을 막아나섰다.

텔레비존촬영기자였다.

《그걸 어떻게 온 나라에 대고 방영을 한단말입
니까?》

(옳거니!...) 하고 로영택은 마음속으로 같은
장단을 쳤다. (이번 발파가 어떤 발파이기에 처
녀의 머리수건파위를 내두르다니...)

그런데 이때 사람들속에 섞여 별로 눈에 띄우
지 않던 당비서가 옆에 나섰다. 그는 풍파많은
시련을 손수 헤쳐온듯싶은 그 두툼하고 억센 손
을 젊은 기자의 어깨우에 얹고 웃으며 말하였다.

《어찌하겠소. 그대로 이게 우리 생활인데야...
신호기발이 꽃수건이긴 하지만 색깔이 얼마나 열
정적이구 아름답나말요? 그 폭도 넓소. 우리의
생활처럼!...》 하고는 기자를 한쪽으로 끌고가 몇
마디 귀속말로 진중히 속삭이는것이였다.

당비서의 말을 들으며 로영택은 문득 발파날이
가까와올수록 더욱더 잠들줄 모르고 빛나던 두불
빛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두 불빛은 그 밤
에 밀려들던 밤밀물소리와 함께 이상한 정서를
가지고 그의 가슴속을 후덥게 적셔주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비껴드는 이상한
감정을 애써 지워버리려는듯 머리를 고집스럽게
가로 저었다.

...로영택은 그 어떤 거세찬 충격에 제방우에서
나떨어질변하였다. 대발파가 진행된것이였다.

딜고선 대지가 폐부를 찢린듯 흠칫 뒤걸음쳤
다.

커다란 산봉우리가 뭉청 들리워 하늘중천에
높이 뻗었다. 그것이 그대로 바다에 쏟아져내리면
서 썩아-하고 거창한 해일을 몰아왔다.

로영택은 너무 좋아서 몸을 솟구고 두손을 내
흔들며 어린아이처럼 환성을 질러댔다. 그는 일
생에 오늘처럼 장쾌한 발파를 처음 보았던것이였
다. 발파성과는 예상외로 놀라왔다.

이 순간 로영택은 방금전까지 이마살을 찌프리
고 생각하던 머리수건이니, 혜숙이와 철준이와의
관계니 하는것들을 깡그리 잊어먹었다. 파도에
덜쳐 안경도 잃고 흠뻑 물침봉이 되었으나 그는
물결을 맞받아나가며 힘껏 발돋움하였다.

지금 그의 눈엔 오직 대지의 몸부림속에 눈부
시게 내장을 드러낸 수백만톤의 막돌산이 보일뿐
이였다. 해빛을 받아 하얗게 번쩍이는 막돌산,
아니 막돌바다가 폭연을 헤치며 그를 마중하듯
장엄하게 떠올랐다. ...

로영택은 된감기에 걸렸다. 안해는 그가 바다물에 흠뻑 젖은데다가 지나치게 흥분했단 탓이라고 하며 이불깃을 꼭꼭 여미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병석에서도 안절부절을 못하고 결을 뜨러는 안해의 팔소매를 어린애처럼 붙잡았다.

《여보, 결에 좀 앉소. 당신은 교원이니 말해보구려. 물과 불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할가?》

안해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말이 많아진 남편의 변화에 웃음을 참지 못하며 그런건 왜 묻느냐고 물었다.

로영택은 짜증을 냈다.

《글쎄 말해보란말요. 남편이 갑자기 인생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수도 있잖소.》

안해는 생글생글 웃으며 놀리는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긴 <물과 불의 결혼식>이라는 재미난 동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문제와 무슨 관계예요?》

《관계있소.》

안해는 남편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다가 방그레 웃으며 《당신은 감기에 걸리더니 이상해졌군요. 그러지말구 250만산발과 텔레비존방영을 보시지 않겠어요?》 하고 물었다.

로영택은 이부자리를 걸어차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손서를 알렸어요. 지금쯤 시작할지도 몰라요.》하고 안해는 옷방에 올라가 텔레비존을 켜놓으려고 하였다.

《가만있소, 그 좋은걸 집에서 혼자보다니... 직장사무실에 나가 동무들과 함께 보겠소.》로영택은 무작정 옷을 걸어입기 시작하였다.

직장사무실은 예없이 흥성거렸다. 로영택은 빼곡이 들어찬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다.

《시공과장동무가 오늘은 왜 이렇게 해덤비우? 남의 발잔등을 체면없이 꼭꼭 지리밟으면서말요》하고 누군가가 통절반 핀잔절반인 목소리로 뇌까렸다.

《체면을 돌보게 됐소?》하고 로영택은 근시인 자기의 초점흐린 눈이 텔레비존화면에 달을만큼 가까운 자리에 퍼다앉으면서 건방지게 대꾸했다.

《저번 발파에 난 안경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때마침 250만산발과장면이 시작되었다. 텔레비존촬영기자는 분명 자기의 렌즈를 신호기발을 높이 쳐든 강철준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한 모양이었다. 레의 그 말썽많은 진달래꽃무늬의 붉은 머리수건기발이 힘있게 필력거렸다.

지금 보니 그 기발은 정말 색깔도 열정적이고

폭도 넓고 아름다웠다. 아마도 환희와 걱정엔 넘친 강철준의 모습이 그 기폭의 아름다움과 열정적인 기상을 더해줬는지는 모른다.

그 기발이 힘있게 내리워졌다.

핑음이 울리고 대지가 솟구친다. 만세의 환희성이 터져올랐다.

교차되는 화면속에 열정에 끓는 강철준의 환희로운 얼굴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림혜숙의 꽃같이 활짝 핀 얼굴이 나타났다.

저들의 심장에 과연 저같은 열정, 저같은 기쁨이 숨겨져있었던말인가?

두 청춘남녀가 서로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 날새게 구도잡혀 텔레비존화면에 가득 채워졌다.

텔레비존촬영기자는 이 장면에서 분명 자기의 숨씨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장엄한 발파의 순간에 서로 교차되는 그들의 뜨거운 눈길, 포옹할듯 다가서 손을 마주잡는 모습! 기자는 이 희한한 생활화폭을 놓치지 않았던것이다.

로영택은 놀람과 걱정, 환희와 경이의 감정이 뒤바뀌는 격동속에 몸을 벌떡 일으켰다.

이 순간 그는 저 장엄한 폭음이 가져다주는 생활의 의의와 폭넓은 공간을 자기는 왜 알지 못했던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저 발파를 산을 뭉쳐 끌어올린 장엄함과 쏟아져내리는 막돌바다로만 보았지 사람들의 지향과 감정, 사랑, 기쁨, 환희, 이모든것을 한덩어리로 합쳐주는 순간임을 몰랐었다. 심장의 주위에 엉켜있던 하찮은 오해와 불신들을 날려버리고 뜨겁고 열렬한 심장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인줄을 몰랐었다.

로영택은 발파의 순간에 합쳐지는 두 심장의 포옹을 더 가까이 보고싶어 흐릿한 눈을 부비며 얼굴을 화면에 바투 가져다댔다.

뒤에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 비키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건말건 그는 그채로 고개를 돌려대고 《아니 친구들, 하나 묻겠소. 물과 불이 하나로 결합되는 경우도 있소?》하고 밤뻐꾸기같은 소리를 하여 사람들을 격분케 하였다.

《비키시오. 화면앞에서 물러나란말요! 무슨 잠꼬대같은 소릴 하고있소?》

《있소. 있지 않구...》 누군가 너그러운 목소리로 대답해주었다. 《저 화면에 웃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증명해주잖소?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해준다고... 우리의 생활이말요!》

수평선 멀리 비친 노을빛을 배경으로 간석지전설장전경이 펼쳐졌다. 길게 뻗어간 제방뚝을 따라 굴착기와 준첩선의 검은 팔뚝들이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여기저기서 정다운 모닥불들이 피어오르고 청춘남녀들이 성음을 맞춰 부르는 노래소리가 간석지저녁노을의 정서를 한껏 돋구며 은은

히 들려왔다.

.....

비바람 헤치며 수령님 오신
그 자욱 생각했네
불타라 심장아, 청춘의 심장아

(허! -강철준이 그 친구가 그럴듯하단말야. 텔레비존으로 사랑의 언약을 맺은 셈이로군. 온나라 사람들이 다 보는앞에서... 허참!)

로영택은 제방쪽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병긱병긱 웃었다. 지금쯤은 그들의 부모들도 어지간히 놀란 얼굴로 텔레비존앞에 앉아있으리라 생각에 또 한번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억센 로동의 숨결이 고여오르는 건설장의 전경을 물기어린 눈길로 둘러보며 로영택은 생각하였다.

(그들에게 말해줄수 없는것이 유감인걸! 여기 간석지의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향도, 뜻도, 사랑도 하나로 묶어주는 궁지높은 우리 생활에

대해서말야...)

바다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날렸다. 갈매기들이 머리우에서 끼룩거리고 기슭을 따라 밀물이 철썩거리며 밀려들었다. 모래불에서 배전을 띄운 굴착선과 준척선, 자동부림배들이 검은 연기를 물청물청 뿜어대며 통탕거리기 시작하였다.

(하기야 내부터가 우리 생활이 좀 벅차긴 해도 이처럼 좋은줄 몰랐지. 그 벅찬것으로 해서 곱절이나 더 좋고 훌륭한 생활인줄을... !)

그는 자기의 발길이 집으로가 아니라 벅찬 숨결에 끌리듯 간석지건설장으로 향한줄도 모르고 고개를 제껴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보기 힘든 그런 생활변화의 한 고비를 지금 자기가 넘어서고있다는것은 더 우기 모르는 모양이었다.

걸음걸이도 완연 다르게, 활개를 저으며 그는 노을비긴 제방쪽길을 힘있게 걷고 또 걷는것이였다. ...

-대계도에서-

수양버들

베오프 그라토프

판문점

분계선상

38도선우에

수양버들들이 서있어라

해빛밝은 날에도

이따금 콧은비 내리는 날에도

이 수양버들들

흐린 물우에 가지 드리우고

슬퍼하고있어라

수양버들

조선의 버드나무여

노을진 어둠속에

그대는 조용히 머리속여 서있구나

분렬된 이 땅우에 서있음을

슬퍼하고있는것 같구나

수양버들

조선의 버드나무여

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대의 가슴을 갈가리 찢는구나

아, 조금이라도 그대가

그네들을 도와줄수 있다면

가지들을 팔처럼 활짝 펴서

남녘으로 쭉 뻗칠수 있다면

나는 믿노라, 그리고 보노라

분계선상

38도선우에

서있는 수양버들들

남과 북 다같이

행복의 별빛아래서

영원히 한가정으로

살 그날이 오리라는것을.

청천강반에 노을이란다

-남흥청년화학종합공장을 찾아서-

리치운

출근길 아침이었다.

우리는 청년화학종합공장을 향해 걸었다.

자전거출근대오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길복판으로는 아닐론섬유통구리며 색색가지 폴리에틸렌박막을 실은 자동차들이 분주히 달리고있었다.

대화학기지가 자리잡은 남흥의 얼굴이며 숨결이었다.

우리가 청천다리를 건너서니 젓빛안개가 서서히 걷혔다. 그러자 청년화학종합공장이 거창한 자태를 드러냈다.

아아히 솟은 은빛철탑의 숲이며 교예극장 지붕을 방불케 하는 둥근 대형저장탱크들과 산악같은 건물들의 허리를 감돌아 혈맥처럼 뻗어간 배관들... 하늘중천에서 화불굴뚝이 쉬임없이 뿜어올리는 불길이며 노래처럼 울려퍼지는 기계의 우람찬 동음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이곳 로동계급들이 새진군길에 올라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장한 모습이 되어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공업은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과 알곡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부문입니다.》

공장정문에 들어서니 청년화학종합공장 생산과지도원 한형선동무가 마주 걸어왔다. 우리는 이 공장건설때부터 어지간히 깊어진 사이여서 서로 만나면 허물없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번에도 폭포구경을 왔습니까?》

《네, 새해를 맞은 3형제폭포가 보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눈 우리는 웃었다.

《3형제폭포》란 아닐론섬유, 고압폴리 에틸렌박막, 뇨소비료를 생산하는 이 세계의 공장들이 한울타리안에 가지런히 서서 폭포처럼 제품을 쏟아낸다는 의미에서 부르는 말이다. 이 공장건설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에 습관되었던것이다.

《이제 보시면 다 알겠지만 새해에 들어와서 3형제폭포들이 승벽내기로 기세를 부쩍 올리고있

답니다.》

아닐론방사직장에 들어서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문열고 들어서니 그의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방아기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돌아갔다. 고르로운 동음은 노래처럼 구성지게 울려퍼지고 방사기의 로라를 타고 햇숨같은 아닐론섬유가 물결처럼 흘러가고있었다.

그결에 몇명의 나 어린 운전공처녀들이 서있었는데 그들은 일한다기보다 기대를 감시하고있었다. 책상물림의 애티나는 처녀들의 얼굴마다에는 온 나라 인민이 입고 살 질 좋고 화려한 옷감을 자기들의 손으로 마련해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진하게 어려있었다.

우리가 방사기 1. 2계렬사이를 걸어가고있을 때 저쪽에서 빨간색의 아닐론섬유가 흘러가고있었다. 황홀한 광경이었다.

《천연색섬유가 쏟아지누만.》

우리는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이때 생안과 지도원동무가 다가오더니 《이건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방사직장의 공정을 새롭게 갱신한 면모입니다.》라고 허두를 떼면서 아닐론공장에서 염색공정을 새롭게 내오게 된 경위와 그 과정을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공장에는 염색공정이 따로없었다. 염색처리하는 방직공장에서 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이 공장에서 염색제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무방한 일이었다.

그렇건만 이 공장 섬유연구실 기사인 김운봉동무를 비롯한 이곳 기술집단과 로동계급들은 염색공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담한 발기를 제기하고 고심찬 전투를 벌려 끝내 성공하였다고 한다.

그런 결과 방직공장에 가서 다시 걸쳐야 하던 공정들과 거기에 투하되는 수많은 로력과 시간을 얻어내어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행인가.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화학종합공장에서 설비를 얼마 개조하지 않고 아닐론섬유를 물들이는데 성공한것을 높이 치하하여주시었다.

들을수록 가슴 뜨거운 이야기였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우리 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감사문을 받아안은 크나큰 신임에 보답하기 위해 결기모임을 가지고 더 높은 생산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비해 높이 세운 전투 목표도 거의 1.5배로 넘쳐수행하고있습니다.》

지도원동무의 열정에 찬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섬유직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섬유직장은 방사직장과 하나로 련달려있었다.

방사직장에서 사각통에 실려 온 아닐론섬유를 섬유직장의 기계팔이라고 불리우는 건절기가 좌우로 앞뒤로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꼬지통에 차곡 차곡 쌓여주고있었다.

《보시다싶이 우리 운전공들은 온 나라에 보낼 아닐론옷감을 매일 수천수만벌씩 이렇게 장만해가고있답니다.》

우리결에 서있던 직장의 한 일군이 하는 말이였다.

《정말이지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아닐론옷을 철따라 구색에 맞게 입고 다닐테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일해도 성찬줄 모릅니다.》

이번에는 운전공이 우리의 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노라니 나어린 운전공처녀들이 더욱 돋보였다.

이때 직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수첩을 펼쳐보이며 말했다.

《참,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고 흥분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닐론섬유 1만톤이면 랑면 뜨개옷이나 자켓트를 800만착, 양말이나 장갑은 수천만켤레나 만들수 있고 외투천은 270만평방메터를 생산할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여기서 생산되는 아닐론섬유의 생활력은 얼마나 놀라운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제날 천대받고 못살던 우리 인민이기에 남보다 더 잘살아야 한다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몸소 현지에 오시여 이 공장 부지를 잡아주시었다.

공장건설이 완공되어 첫 아닐론섬유가 생산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친히 방사직장에 오시여 제품도 만져보시고 운전공들의 일모습도 보아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실실마다에 비껴 아닐론섬유는 캄캄한 밤에도 아름다운 꽃으로 빛을 뿌리는 비단의 폭포가 되어 쏟아지는게 아니라.

(아, 사랑의 폭포! 아닐론폭포!)

우리는 그 무슨 시구절과도 같은 이 말을 속으로 뇌이며 섬유직장을 나와 고압폴리에틸렌공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자, 여기서는 <날알>폭포가 쏟아집니다.》

생산과 지도원의 룡섞인 말이였다. 아닌게아니라 하나의 광경이 펼쳐졌다. 자그마한 기계에서 신통히도 입쌀알같은 고압폴리에틸렌알갱이가 쏟아져내렸다. 그결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몇장의 속도판을 통하여 이곳 전투원들의 고심찬 로력투쟁을 들여다볼수 있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 계속혁신》, 《매일 계획1.5배!》 글자마다에도 혁신의 기상이 약동하는 듯싶었다. 우리가 몇장의 혁신자사진이 나붙은 영예게시판앞에 다가섰을 때였다. 압축기운전공인 로농통신원 김성숙동무가 한장의 사진을 짚어보이며 이 동무가 년간계획이 마감고비에 들어섰을 때 돌파구를 연 책임기사동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구면친구를 대하기나 한듯 반가운 마음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어텐가 강의한 의지가 엿보이고 열정에 넘쳐있는 중년의 사나이였다.

통신원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련속공정에 만부하를 걸고 년간계획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치던 어느날, 이 공장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열분해로의 급랭각기계통에 뜻하지 않은 위험이 조성되었다. 중요한 부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것이다.

최고압에서 움직이는 이 공정을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고 수리를 보장할것인가.

전투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였다.

《동무들, 급랭각기를 멈추는가 돌리는가 하는 문제는 년간계획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든 의견을 말하십시오.》

부문당비서는 누구라없이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할 방도는 아직 없으나 기대를 멈출수는 없습니다.》

《웁습니다. 기대는 멈출수 없습니다. 우리가 년간계획을 못하고 발편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전투원들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돌아가는 기대대를 멈춰세워서는 안된다는것은 하나의 신념이였다. 그러나 이렇다할 기술적방도나 묘책은 서지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온 공장의 긴장된 눈빛들이 여기 급랭각기계통으로 달려오고있었다. 작업반휴계실은 한동안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이때였다. 누군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비서동지, 그 임무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책임기사 리현일동무였다. 자기를 놀라운 눈빛

으로 바라보는 전투원들을 향해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언제 타산을 앞세우고 일해본적이 있습니까. 진격의 돌파구를 여는 전사가 타산을 앞세우고 불뿔는 화구를 맞받아나갔겠습니까.》

그의 말에 부문당비서도 작업반원들도 모두가 뜨거운것을 삼켰다. 그리하여 당정책관철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을 실천활동으로 보여준 한 기술일군에 의하여 위협에 처했던 급랭각기는 구원되었다.

이렇게 하여 고압폴리에틸렌공장 로동계급들은 지난해 1천톤의 고압폴리에틸렌을 더 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기쁨과 만족을 드렸던것이다.

참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사람들만이 발휘할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로동동신원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매일 계획을 120%씩 수행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폭박막생산에 성공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관철에서 이룩한 고압폴리에틸렌공장 로동계급들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대폭박막생산이라니요?》

우리가 물었다.

《종전에 2미터폭을 생산하면 고작이던 기계에서 4미터이상의 박막을 생산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요구가 그러했던가요?》 하고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수집은듯 귀밀을 살짝 붉혔다.

《그런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해냈습니다.》

알고보니 대폭박막생산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있었다.

새해에 들어선 이곳 로동계급들은 이해에도 대풍을 마련할 로동계급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 농장에 나갔다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배관이며 박막의 사용가치며 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 4미터폭의 박막이면 온실지붕이나 바람막이를 통채로 할수 있다는것을 알아냈던것이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지체없이 기술을 혁신하여 단 며칠사이에 무려 2만5천평방미터의 4미터폭을 폴리에틸렌박막과 수천미터의 고압폴리에틸렌배관을 생산하여 새해 첫 농촌지원물자로 협동농장들에 직접 가져다주었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심장에 받아안은 청년화학종합공장 로동계급들의 립장과 자세는 이러하였다. 참으로 혁명앞에 지닌 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해가는 이들의 충성의 열도는 불보다 더 뜨거운것이였다.

생활제품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곳 화학공업전사들의 뜨거운 충성심을 충분히 들여다볼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수십종의 생활필수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새해에 들어와서도 가지수를 늘였답니다.》

작업반장은 자기들이 고압폴리에틸렌원료를 가지고 100미터배관으로부터 장통, 소랭이, 고뿌, 국수사발 지어 사탕봉지에 이르기까지 수십가지 생활제품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였다.

생각하면 여기 청년화학종합공장에서 생산되는 고압폴리에틸렌이 전국의 그 어디에나 가서 지방산업공장들과 생활직장들에서 여기서 만들어내는것과 같은 생활필수품들을 수없이 쏟아내고있으니 우리 인민의 생활은 또 얼마나 나날이 윤택해질것인가.

우리는 이런 흐뭇한 마음을 안고 이번에는 노소비료생산기지로 향하였다.

우리가 비료직장에 들어서자 저쪽 하조장의 천정에서 희디흰 노소비료가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흰눈송이처럼...

순간 우리의 눈앞에는 이 공장 부지를 잡아주 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뚝이 안겨왔다. 가슴이 저절로 뜨거워났다. 이러한 마음을 알아보기도 한듯 생산과 지도원동무가 의미있는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정말이지 시인이라면 참지 못할것입니다. 우리동무들은 여기서 쏟아지는 노소비료를 사랑의 눈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 공장은 만풍년의 고향이라고 자랑한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가 있는 그 력사의 날, 하늘을 온통 메우며 내리는 흰눈송이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외투자락에도 가볍게 내려앉았던것이다.

지금 하조장의 천정에서 그날의 그 사랑의 눈송이들이 쉬임없이 내린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차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찌 비료만이라.

고압폴리에틸렌박막이며 햇숨같은 아닐론섬유가 다 이렇게 쏟아져내리는것이리라. 주체시대 화학공업의 휘황한 설계도우에 사랑의 집이 새로이 솟아난 남흥의 《3형제폭포》가 되여 ...

우리가 잠시 서있는 사이에도 비료포대들이 콘베아에 실려가서는 비료산을 높이높이 쌓아가고 아닐론섬유며 고압폴리에틸렌제품들이 차판마다 무득무득 실려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떠나고있었다. 긴 화차는 기적소리도 높이 울리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삶과 이상에 대한 사색과 탐구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에 대하여 -

리봉진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김동욱)은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이것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문학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결실인 동시에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 문학이 올라선 높은 경지를 말해주는 뚜렷한 표시로 된다.

1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이 그렇듯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다운 삶의 고향이란 무엇인가 하는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철학적으로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준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향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그렇다면 그 귀중하다는 말의 진가는 참다운 의미에서 무엇이며 어떠한 사람만이 그 참뜻을 심장에 새기고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초소를 참된 삶의 고향으로, 가장 행복한 고향으로 꾸려나갈수 있는것인가. 무릇 사람들은 자서전의 한귀퉁이에 적어놓은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두고 고향이라고들 불러오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거기에는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린시절의 삶의 요람이 있고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과 애무가 기다리는 정든 집과 정든 사람들이 있고 잊을수 없는 추억들이 고스란히 깃들어있는 유정한 산천이 있으며 꿈과 청춘을 키워오던 삶의 보금자리가 있기에 사람들은 어린애마냥 떠나온 고향을 두고 것처럼 애타게, 것처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것이리라.

그 누구나 느낄수 있고 체험할수 있는 이 모든 감정은 영예로운 조국보위초소에서 다년간의 병사생활을 마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초소부터 찾아가며 거기서 제대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가는 우리 주인공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남달랐고 각별하였던것이다.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에 대한 감정은 언제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애뜻하고 정다운것이였다. 그러기에 그 고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까울것 없는 그들이였다.

하지만 당에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태를 묻은 고향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새로운 초소, 탄광으로 불렀던것이다. 그들이라고 탄광이 다른부분에 비해보면 아직은 어렵고 힘들다는것을 모르고 살기 좋아서 왔을리는 만무한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그들은 병사시절 정든 고향마을을 두고 자기들의 래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포부, 이상을 키워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당의 부름앞에서 그들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탄광으로 왔으며 여기서 한생을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이것은 병사생활을 통하여 배우고 익숙된 그들의 의지이며 자세이며 량심인것이다. 그러나

부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웠다. 어딘가 모르게 땅도 거칠고 사람도 거칠며 일은 또한 얼마나 힘겨운가. 감탕물고인 버럭을 굶어내야 하며 석수가 억수로 쏟아지는 막장에서 온몸이 그대로 물침봉이 되어 발끝을 뻗디디며 탄차를 밀고 동발을 세워야만 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생활에서 탄광은 《버림》을 받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탄광으로 오려고도 하지 않고 부모들 또한 딸자식을 탄광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것이다. 어떤 처녀들은 약혼한 제대군인을 따라 탄광으로 가기를 거절하기도 하는것이다.

참으로 탄광은 험치않는곳이다. 탄광은 어렵고 힘든곳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땅을 땀대하고 버려야 하는가. 외면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와서 반드시 기름지게 가꾸고 지켜가야만 하는 조국의 초소, 혁명의 초소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이 땅으로 우리 청년들, 제대군인들을 부른것이다.

탄광이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은 어렵고 힘든곳이기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제대군인청년들을 부른것이다. 이것은 당의 요구이며 혁명의 요구인것이다. 그러므로 탄광은 당이 부른 청춘의 활무대이며 나의 일터이고 내가 살 땅이다. 그 땅, 그일터를 자기의 로력과 땀으로 기름지게 풍

만하게 가꾸어서 새 삶이 약동하는 주체시대의 탄전으로 삶의 고향으로 만들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 한생을 바쳐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청년들, 세대군인들의 이상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향이 있고 그것이 귀중하다는 말의 참뜻이 있는 것이다.

말하는것은 언제나 쉽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자기 이상으로 희망과 포부로 받아들이고 심장에 새겨 실천으로 옮기는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이 과정에는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중첩되는 시련이 앞을 막아나서고 동요분자 소극분자들과의 투쟁을 벌려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 투쟁과정에서 그들은 때로는 정든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더듬으며 때로는 청춘의 패기와 희열에 넘쳐 위훈을 갈망하기도 한다.

사랑도, 청춘도, 영예도 오로지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그길에서 찾고 그길에서 병사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그들이었기에 우리의 주인공들은 어떤곳이 참으로 고향인가를 잘 알고있었다.

고향, 그것은 나서자란곳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초소를 자기의 이상과 로력, 땀으로 아로새기고 거기에 심혼을 쏟아부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는 또하나의 새로운 고향이 있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의 그 모든것을 향유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자기의 이상과 포부,

의지와 열정, 사랑을 쏟아부어 하나의 혈연적 관계를 맺은 새 고향, 제2고향을 창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앞에 나서는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임무이다. 이 영예로운 임무를 그들은 심장으로 받들었기에 마침내 물웅덩이우에 서있던 미래의 탄부도시의 전경도가 아니라 새 삶이 꽃피나는 탄전의 청춘도시, 행복한 새 고향을 일떠세웠고 갱막장마다 종합적기계화를 도입하여 탄을 캐지 못하여 《죄》를 짓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던 지난날을 가시고 기쁨과 즐거움속에 삶과 청춘을 즐기는 락원의 새 고향을 일떠세워놓게 하였던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청년들의 주체의 인생관이 있고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으며 청년건설자로서의 무한한 긍지의 행복, 자부가 있는 것이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은 이처럼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해결을 바리는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를 종자로 삼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해결한 바로 여기에 그의 문학적발견이 있고 그예술적형상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을 다 읽고나면 사람들은 스스로 고향이 귀중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것이구나 하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하며 따라서

사람들은, 청년들은 반드시 당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며 일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데 이 중편소설의 철학적깊이가 있으며 그 사상에술적성고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사회주의현실주체를 사회주의애국주의주체로 깊이 취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만 얻어진 결실이다.

2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은 우에서 본바와 같이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절실하게 해결을 바라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였을뿐만아니라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전형적성격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하였다.

문학의 력사는 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성격창조의 력사이다.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성격창조를 떠나 문학의 발전력사에 대하여 그리고 문학의 인식교양적작용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새로운 인간문제, 그것은 곧 새로운 인간성격창조의 문제이다. 새로운 인간문제는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통해서만 옳게 밝혀질수 있다. 작품에 아무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인간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지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학의 문제로 될수 없다.

오직 개성적이며 비반복적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독창적으로 보여주는 거기에 진정한 성격창조의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간의 성격창조문제는 언제나 우리 문학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로 된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특징적인 작품의 하나라고 봐야 할것이다.

이 중편소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품속에서 주체사상으로 교양육성된 주체형의 새세대청년들의 시대적성격을 새로운 경지에서 형상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래삼을 비롯한 세대군인청년들의 성격형상이 잘 말해주고있다. 그들이 체현하고있는 성격적특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그것은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오래삼, 왕병도, 전덕훈 등 세대군인들은 당의 부름을 받들고 한결같이 탄광으로 지원하였으며 한달음으로 이 어려운 땅으로 달려온 청년들이다. 바로 그러한 그들이기에 탄광마을 작은 체신분소에서 처음으로 만났지만 벌써 의사소통이 되어 꺾꺾거리며 안고 돌아가는것이다. 《같이 해볼

만하군.》 《뭘 그저 겨루어볼만 하겠지.》 이것이 그들이 나눈 첫 인사이다.

당이 바라고 혁명이 요구하는 초소로 일치하게 지원해왔다는 목적과 신념의 공통성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그 모든 체취와 기분은 이땅이 아직은 어렵고 힘든 고장이라는 그런 리기적인 《리해타산》 같은 것은 꼬물만치도 없는 락천적인 생활이었다. 오직 병사의 신념과 의지, 병사의 기분 그대로이다. 바로 여기에 당의 명령지시를 심장으로 받드는 우리 시대 제대군인청년들의 높은 정신적풍모와 락천적인 생활방식이 있다. 그들의 높은 사상정신적 면모는 또한 아버지수령님과 당이 부르는 그 길에서 자기들의 리상과 포부 희망을 찾고있는데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오래삼을 비롯한 그들 제대군인들은 미래에 대한 남다른, 리상과 원대한 포부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삼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그가 탄광으로 지원해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선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가 갈매기나는 수평선, 무한대한 푸른 바다, 푸른 하늘을 자기 삶의 활무대로 꿈꾸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덕훈의 경우나 왕병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은 찬란한 태양의 자기의 리상, 자기의 희망이 아무리 귀중하고 큰 것이었다고 해도 당과 혁명이 부르는 길, 그 길에서 볼 때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심장으로 감수할 줄 알았던 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부르시는 길, 당에서 바라는 일, 그 자체가 곧 그들의 리상이고 희망인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기쁨이 있어서는 안되며 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여기에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그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그들의 모든 사고와 활동에서 하나의 생리로 사상정신적특질로 체현되고 공고화되었기에 이처럼 희망과 포부에 넘쳐 이 어려운 땅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이러한 주체형의 새세대청년들의 성격미를 처음부터 기성형태로 격식화하거나 개념화하지 않고 생활의 곡절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고수하고 아름답게 꽃피워나가는가 하는 것을 산 인간과 실생활로 충만시켜 현실 그대로의 진실성과 생동성으로 구현하고있는 것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래삼과 그 전우들은 부대에서 떠날 때 탄광이면 의례히 깊은 산골로만 생각하였으며 그 고장에는 길가의 나무도, 거리도 온통 검을게라고만 생각할만치 천진하고도 순박하였다. 참으로 그들은 희망과 포부를 안고 탄광으로 왔으며 그런 마음과 기분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고향마을은 그들을 전혀 다르게 기다리고있었던 것이다.

탄광에 배치받았다는 죄안인 《죄》로 하여 그처럼 기다리던 아들의 귀향을 선득 축복해주지

못하는 어머니, 자기를 따라 탄광으로 갈수 없다고 하는 어머니를 두고 우리의 주인공은 얼마나 실망하였던가. 어린시절의 추억속에 것처럼 사무치게 그려보던 어머니, 병사시절 것처럼 향수에 젖어 그려보던 고향, 그 어머니, 그 고향이 아닌 《다른》 어머니, 《다른》 고향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주인공은 아직은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세계를 리해하지 못하였기에 그것은 그만큼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것이다.

소설은 여기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정신적우여곡절들을 타당한 생활적전제들을 잘 조성하면서 그의 성격발전을 더욱 깊이 추구해들어가는 것이다.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고향인가, 얼마나 보고싶던 어머니인가? 그 고향, 그 어머니는 과연 어디로 갔단말인가. 너무도 가혹한 현실앞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피로움으로 자기 한몸도 지탱하기조차 어려워 몸부림치는 오래삼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덕훈의 불행까지 겹쳐들었던 것이다. 덕훈에게는 학봉마을에 약혼녀가 있었다. 그 약혼녀의 어머니가 그가 탄광에 배치받았다고 하여 파혼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과연 이럴수있는가? 자기자신과 자식의 운명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에 그런 립장과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탄광에 가게 되었다고 하면 그들처럼 행동할수 있단말인가.

소설은 우리의 주인공이 겪고있는 극적체험과정을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층 더 심화시켜 끌고나간다. 렬차칸에서 맞닥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야기인즉 애인의 직장에 일도 잘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는 속물적인 한 일군이 있었는데 그가 이번에는 국가물자를 가지고 협잡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격분한 그들은 그런 너절한 인간은 탄광에나 꼭 보내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레사롭게 던진 그 말이 우리의 주인공의 격분을 불러일으킬줄은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들이 말하고있는 것처럼 탄광이란 그런 너절한 인간들만이 가는 곳이고 또한 그러루한 사람들만이 사는 곳인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고 아무리 저항하고 몸부림쳤으나 그것은 도저히 부정할래야 부정할수없는 너무나도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어머니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자기가 탄광에 간것때문에 결국 어머니와 또다시 헤어지게 되었고 또 덕훈이도 탄광에 배치받은것때문에 애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다면 탄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살기 어렵고 힘든 곳이기때문에 나쁜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란 말인가. 그것때문에 탄광은 일부 사람들의 《버림》을 받는단말인가, 살기 어렵고 힘든 땅, 그러나 내가 살고 내가 지켜야 할 땅이 과연 이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여 그는 이 땅을 버리고

모독하는 그 모든것에 대하여 치솟는 분노의 의분을 느끼며 몸부림치면서도 아직은 몇몇하게 그럴수 없다. 《탄광은 참으로 살기 좋은곳이다.》 《탄광마을은 나의 고향이요.》 《우리한테 우리 고향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자랑스럽게 행복에 넘쳐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인공 오태삼인것이다.

이것은 주인공의 성격발전에서 초기상태이다. 이 시기 주인공은 당의 부름으로 탄광으로 지원하여오긴 하였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무시로 부딪치는 난관앞에서 몸부림도 치고 저항도 하고있으면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난것이기때문에 본의아니게 마음의 동요까지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주인공이 겪는 사상정신적체험세계는 매우 격렬하고 극적이며 심각하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그의 성격을 제시해주는 전세에 불과한것이다.

소설은 다음으로 주인공을 탄광의 갱막장에 세워놓고 거기로부터 겪는 극적체험과정을 각이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심화시켜나가고있다. 그것이 바로 룡천갱 갱장인 엄학섭과의 관계이다.

학섭은 자기의 피땀으로 가꾸어지고 자기가 탄을 캐는 이 땅을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귀중히 간직하고있으며 그것을 궁지에 넘쳐 자랑하며 그 주인으로 자부하는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 그의 영예가 있는 동시에 그의 슬픔이 있는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룡천갱의 주인으로서의 자부와 함께 그것을 고수하고 보존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했으며 그러한 자기의 생활신조를 조금도 그 누구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듯 그는 자기가 일떠세운 《자기의 갱》, 《자기의 청춘시절》을 흘러보낸 이 룡천갱의 주인으로서 자기 만족에 깊이 빠져있었다. 그러나 생활은 언제나 그에게 그런 식대로 이 룡천갱을 불안고만 있으라고 내버려두지 않았다. 오태삼을 비롯한 우리의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일판을 벌리는 잡도리에 있어서나 일본새가 달랐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그의 심중을 무겁게 하였다. 그리기에 그는 청년들이 탄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일이나 물인지불인지 가리지 않고 덤빈다는식으로만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로잡아 주어야하겠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굴진기도입문제, 발파문제, 작업정량문제 등에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이것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인 새세대청년들의 사기를 저락시켰으며 그들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보수적인 이 낡은 사상과의 투쟁은 주인공의 성격발전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었다.

또한 성보아바이, 왕병도, 전덕훈, 장미와의

인간관계도 그의 성격발전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소설은 오태삼을 비롯한 제대군인청년들이 겪는 극적체험세계를 더욱 심화시켜나가면서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 투철한 새세대청년들의 높은 혁명정신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다음으로 소설은 주인공의 의식장성과정, 성격발전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다양한 사건선들과 계기를 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인공의 성격형상화에로 지향해나간다. 주인공의 성격발전을 추진시키는데서 기본은 혁명적실천투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식발전과정, 혁명화과정을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보여주는것은 성격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성격의 생동성, 진실성을 보장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적인 옹호자, 관철자로서의 주인공의 투철한 성격을 바로 제대군인소대조직과 그 집단적인 혁신적투쟁과정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제대군인소대조직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던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발기였다. 그리하여 이 발기는 제대군인들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속에는 내놓고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며칠이나 가는가 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만큼 주인공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것이다. 제대군인소대가 조직되어 그들이 첫 사업으로 내민것이 막장에 굴진기를 도입하는것이였다. 갱장 엄학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함수층으로 인한 지압과 불리한 운반조건, 쥘 버력 등으로 하여 지금까지 굴진기도 일을 포기해왔다. 그런데 그 굴진기를 다시 갱으로 끌고 들어가는것이다. 제대군인소대는 처음부터 혁명적이고 진취적이며 모든 일에서 패기와 열정에 넘쳐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제대군인소대통장》을 만들어 저금소에 자기들의 《구좌》를 두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해결해나가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한다. 참으로 이것은 그 일본새와 생활에서 3대혁명의 시대, 우리의 청년들만이 발기할수 있고 실천할수 있는 그런것이였다.

제대군인소대는 벌써 조직된 그 첫달에 소대앞에 떨어진 생산과제를 보기 좋게 해낸다. 제대군인소대원의 기세는 참으로 충천하였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제와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생에 대한 희열과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태삼은 병사의 의지와 정의감으로 하여 이 땅을 배척하는 그 모든 락후한 《사회적인식》과 낡은 관념에 대하여 울분과 분노를 터뜨리

면서도 아직은 그 지향이 명백치 않던 그런 단계에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땅을 자기의 피와 땀으로 가꾸고 꾸리는것이 우리 제대군인들의 본분이며 영예로운 임무라는것을 실천행동으로 옮기고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는것이다. 그러나 생활은 그들이 바라는데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락반사고로 인한 확장공사중지였다. 하늘을 찌를듯하던 그들의 기세는 뚝 떨어지고말았다.

소설은 이렇게 종자의 요구와 그로부터 흘러나온 주제사상적지향에 맞게 부단히 주인공의 체험세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이 땅에 대한 주인공의 사랑과 애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그의 성격형상에 어떻게 축적되고 형상되어나가는가하는것을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에, 맞게 잘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우리의 위치요. 온 나라의 <돌과구>를 말아나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것만큼 조국이 전진한다는거요.

그때문에 당이 바로 우리 제대군인들을 이 지대전선으로 부른것이고 우리는 제대군인소대를 무었소.

그런데 이게 뭐요?!... 천정이 한번 무너졌다구 앉아서 담배질만 하다니?... 우선 규률이 없소, 소대가 규률이 없으면야 그게 무슨 제대군인소대요! ... 오늘 작업조직은 이렇게 하겠소. 우선 여기서 씨름을 하겠소.》

실지에 있어서 있어본 일도 없고 또 있음직하지도 않는 갯막장에서의 씨름, 그것도 천정이 내려앉아 사기가 뚝 떨어진 정황에서 씨름을 한다는 소리에 모두 어이가 없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마음들은 벌써 움직이고있었다. 태삼은 바로 이런 청년들의 심리를 용의주도하게 포착하였던것이다. 것처럼 평배하게 긴장했던 막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천반사고를 내고 확장공사를 중지당하여 맥을 놓고있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 병사의 웃음을 웃고 병사의 기분으로 되돌아왔던것이다. 그 흥겨운 병사의 웃음과 기분은 산더미같은 버력을 순식간에 처리해내게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발파를 들이대는것이다. 갯장인 학습이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으며 또 그런 《무지한》 행동을 그냥 내버려둘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학습은 발파는 절대로 할수 없으며 탄광이 싫거든 가라고 분노에 차서 욕욕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은 어제날 동발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여 주눅이 들어 하고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갯장이 서술이 등등해서 이렇게 그들의 전진을 막아나설 때 우리의 주인공은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확신에 넘쳐 《우리는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

리는 꼭 발파를 해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맞서는것이며 끝내 발파를 하고야마는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모험도 투기도 아니며 공명도 아닌것이다. 오로지 당이 준 명령에 대한 투철한 관철자, 옹호자로서의 신념이며 의지이고 그 자각인것이다. 바로 이러한 그였기에 제대군인소대의 점수제에 의한 실무적인 일생산총화로부터 대담하게 탈퇴하여 매개인에게 하루 계획을 주고 엄격한 재정총화와 정치적평가 즉 당과 조국을 위하여 바친 하루하루의 충성의 《길이》를 재는 방법으로 소대원들의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기에 덕훈이 문제를 두고 것처럼 원심을 쓰며 마침내 스스로가 대오에 되돌아오도록 하는것이다. 그는 제대군인소대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뜨겁게 안아 하나의 단합된 집단으로 꾸려나가기 위하여 참으로 무진 애를 쓴다.

막장에 비상사고가 일어나 무서운 위험이 닥쳐왔을 때 생명을 내걸고 굴진기를 구원한 장미의 모험적인 행동을 두고 《로동안전》 위반이라는 뻥뻥한 비판을 들이대면서도 오래삼은 그러한 영웅적행동을 단행한 또 단행할수 있는 룡천강의 탄부들을 보는것이 이처럼 자랑스럽고 행복하여 무한한 희열과 기쁨의 눈물을 짓는것이다.

이러한 축적과정을 거쳐 소설은 마침내 결정에 이른다.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저의 피땀으로 가꾸어지고 저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이땅이 저의 고향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주인공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절절한 웨침, 내가 사랑하고 아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그 모든 귀중한것이 다 있는 이 땅이 바로 《나의 고향》, 《나의 조국》이라고 그렇듯 기쁨과 행복에 넘쳐 절절하게 토로하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명령에 대한 주인공 오래삼의 투철한 립장과 태도가 있으며 또한 여기에 독자들을 이처럼 공감시키고 매혹시킨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진면모가 있고 그 아름다움이 있다.

이처럼 소설은 주인공이 겪는 부단한 고향과 거기로부터 환기되는 심리적굴절과 내면적인 체험세계를 개방하며 그것을 통하여 그의 아름다운 성격미를 도출함으로써 시대적미감과 생활적진실로 충만된 새세대의 시대적성격을 비교적 손색없이 창조해낼수 있었다.

소설에는 주인공 오래삼뿐만아니라 왕병도, 전덕훈, 장미 등 새세대청년들의 개성적인 성격들도 참으로 매력적으로 형상하였다.

그리하여 소설은 오래삼과 그의 전우들이 병사로서의 신념과 의지, 병사로서의 지향과 꿈, 병사로서의 열정과 《강행군》으로 이룩한 그 고귀

한 결실이 바로 참다운 병사의 고향, 인간의 참된 고향임을 확증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키워낸 주체형의 새세대청년들의 새로운 성격미가 있는 동시에 우리의 새세대청년들의 고향에 대한 새로운 아름다운 룰리가 있고 매력 있다.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채취공업전선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서있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이 이룩한 높은 사상 예술적성과의 중요한 한 측면이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기본으로 주체형의 인간의 사상정신적품모를 성격과 생활의 룰리에 맞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방침을 창작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얻어진 빛나는 성과이다.

3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은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민족적정서에 맞게 현대적미감문제를 비교적 잘 해결하고있는 점에서도 우리의 주목을 끌고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되어가고 변모되어가는 오늘 사람들의 사상미학적감정도 그에 상응하게 발전풍부화되어가고있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에서 인민대중의 미적감정에 맞게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중편소설은 매우 긍정적인 시사를 던져주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에 맞는 색깔과 랑만, 우리 시대청년들과 인민들의 미적감정에 맞는 정서와 속도감으로써 새세대청년들의 고상한 품모와 내면세계를 잘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담담한 조선화적인 화폭과 같은 인상을 주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학적인 이야기와 사건전개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이 소설에서 취급되고있는 기본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인 채취공업전선, 그 가운데서도 더 많은 석탄을 캐기 위한 우리의 청년제대군인들의 영웅적투쟁이야기다. 그러므로 소설에서는 석탄생산문제가 주요한 기본사건으로 되고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사건자체를 그대로 생경하게 라렬하면서 불필요한것까지 《풍부하게》 그림으로써 독자들을 지루하고 따분하게 만들던 그런 소설들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성격형상화에 력점을 찍고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문학적인 이야기로 엮어 펼쳐나감으로써 성격소설로서의 자기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있다.

소설은 석탄생산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

는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문제를 통하여 이 어렵운땅. 아직은 험치 않은 탄광생활에 대한 새세대청년들의 참다운 삶과 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꽃피어나는가 하는 인간문제해결에로 이야기를 즐기치게 지향시키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은 이야기줄거리와 사건전개에서 생산기술적문제 그자체에 빠지지 않고 어디까지나 작품에 심어 놓은 종자와 그것을 체현한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부각하는데로 끌고나감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소설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 인간문제해결을 추동하는 예술적인 봉우리들이 성격발전과 생활의 룰리에 맞게 조화롭게 안배되고 거기에 맞는 사건들과 정황들, 그리고 선택된 생활세부들이 모두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어디까지 정황묘사이고 생활세부인지, 어디까지 심리세계의 개방인지 그 구획을 딱히 가릴수 없을 정도이다.

예술적정황들과 계기들도 그자체를 지루하게 설명하기 위한 순수한 정황이나 계기로서가 아니라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사상감정의 련관관계의 교감관계를 보여주며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묘사되어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에서는 순수한 사건설명과 순수한 정황설명을 찾아볼수 없으며 독자들이 보고싶어하며 희망하고 기대하는 장면들과 정황들, 그리고 일화들과 잘 선택된 예술적세부들이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집약적으로 색깔과 속도를 조화롭게 맞추면서 부단히 교차되고 심화되면서 주인공의 성격발전을 추동해나가는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소설은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도 않으며 흥미있고 재미나게 읽히우면서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이다.

레컨대 주인공 오래삼과 갱장과의 인간관계와 거기서 야기되는 사건만 보아도 이것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그들의 인간관계는 현실적이고 생활적인 인간관계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복사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여 그들의 갈등관계를 사건적으로 지지콜콜이 따라가면서 그런것이 아니라 예술적전형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적인 대립관계로 가장 극적인 대목만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적지 않은 생산기술적문제와 사건설명을 뒤생략로 생략처리하면서 인간들의 미묘한 깊은 교감세계를 개방하는데로 지향해나갔던것이다.

육중한 굴진기를 기증기에 떠서 공중에 뚱뚱 매달아놓고 한쪽에서는 가져가겠다고 기세를 돋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로 가져가지 못한다고 필사적으로 몸을 내대며 욱옥하고있는 정황을 조금만이라도 상상해보라, 바로 이런 정황에 나타난 갱장을 보면서 움직이는 각이한 인간들의

심리적과동은 얼마나 격렬하며 극적이며 또한 얼마나 방불한것인가. 이런 인간관계는 주인공과 장미, 주인공과 덕훈이, 주인공과 어머니와의 관계 등에서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사건선들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극성을 체현한 인간관계, 거기에서 환기되는 인간의 내면세계에로의 폭넓고 깊이있는 추구는 절대로 지루하지않다는것을 이 소설이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문제는 또한 새세대청년들의 리상과 희망, 그들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해결에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이 소설이 독자들의 이채로움과 인기를 끌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지에 있어서 이 소설에서 가장 색깔이 있고 기름지고 정서적유펙을 주는것이 이 문제설정과 그 해결이라고봐야 할것이다. 소설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있는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만 고유한 사상감정과 정서 그 지향세계를 병사의 고향이라는 독자속에 체현시켜 청년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 이것을 고수하고 꽃피우는것이 곧 우리 세대 청년들의 리상이고 희망이며 그것을 참된 삶의 고향으로 가꾸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 한생을 살아가려는 그 지향속에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과 포부, 청춘과 사랑, 그 모든것이 깃들여 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오태삼과 장미의 사랑선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아직은 일부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있는 이 어려운 땅을 기름지게 가꾸고 꾸리는 그 열렬한 지향과 투쟁속에서 싹틔우고 자래운 그들의 사랑의 감정이야 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것인지 청춘과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사색도 하며 고민도 하고 번민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삶에 대한 강렬한 열정과 투쟁의욕을 더욱더 불려일으키는 것으로 하여 그렇듯 열렬하고 뜨거운것이다.

그들은 그 어떤 애잡잡한 연애편지를 통하여 저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일도 없으며 달콤한 산보를 통하여 사랑을 속삭이는 일도 없다. 그들의 사랑은 오로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이땅우에 활짝 꽃피우려는 충성의 한길에서 그들의 사색과 감정, 그들의 리상과 지향이 하나로 융합되어 일생을 함께 걸어갈 생활의 벗으로서 혁명적동지로서 결합되었기에 그처럼 순결하고 깨끗한것이다. 참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청춘과 사랑, 그것은 곧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으며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고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사랑은 자연과 사회개조의 선구자, 가장 적극적인 담당자로서 영웅성과 용감성, 희생성과

랑만성을 동반하는것이며 거기에는 그들의 위훈에 대한 갈망도 깃들여있는것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혈기왕성하며 한가지 일을 해도 통이 크게 벌리고 불이 번쩍나게 해제껴야 성차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그 모든 고유한 특질들이 풍부한 정서적유펙과 기름진 세부들과 결합된 사랑의 화폭은 얼마나 감동적으로 안겨오는것인가. 이처럼 소설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구미와 미감에 맞고 그들이 바라마지않는 청춘과 사랑, 리상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자기의 사상미학적풍격을 뚜렷이 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특징적인 면모의 하나가 있다.

다음으로 이 소설에서 현대적미감문제는 인간관계설정과 그 해결을 종자와 작품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잘 처리한데서 찾아보게 된다.

소설작품에서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고 잘 푸는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이 준 어렵고 힘든 혁명초소 이 땅이 바로 나의 청춘과 리상을 꽃피울 삶의 고향이라고 심장으로 체득하고 호소하기까지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체험세계는 매우 격렬하고 극적이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주인공의 열정과 지향은 그만큼 강하게 울리는것이며 그와 상반되는 생활에 대한 부정 역시 그만큼 강하게 반작용하면서 주인공의 앞을 막아나서는것이다.

소설에서 그것은 주로 갱장과 의 인간관계에서 빚어지고있다. 우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갱장으로 말하면 이 탄광과 함께 일생을 같이 하여온 개발자의 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이 룡천갱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신성한곳이었으며 모든것이 만족스러운곳이었다. 그러한 그의 생활에 뜻하지 않은 파문을 던진것이 바로 오태삼을 비롯한 제대군인청년들이였다. 그들의 관계는 한쪽은 상급이고 오랜경험과 기능을 가지고 이 룡천갱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갱장이며 그 상대편은 그의 밑에 있는 전사이고 아직은 이렇다할만한 경험도, 기술도 없으며 특히는 이 갱을 위하여 피와 땀을 바친 공지를 아직은 느낄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관계에서그들의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며 결국 갈등이 조성되는것이다. 그들의 충돌은 우리의 전진도상에서 응당 있을수 있는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보는것처럼 정황의 긴박성에 있어서나 내용의 심각성에 비해볼 때 그 충돌은 외부적으로는 매우 완만하고 조용하다. 그러나 그들 내부에서 흐르는 심리적과동과 맥박은 매우 충격적이고 격렬하고 극적이다. 그것은 부정선에 있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강한 긍정성과 강한 부정선에 의한 결과일것이다. 때문에 작품에서 그들의 관계를 중시하고있는것이며 거기

에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주인공과 갱장과의 마찰과 충돌은 어디까지나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이며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계급투쟁으로 된다. 그만큼 그것이 치렬성을 띠게 되는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문제는 그들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어떻게 푸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면 이 소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모든 작품에서 인간관계의 조직과 그 해결을 다 일률적으로 한본새로 하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종자의 요구와 작품의 생리에 따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푸는것이 예술적효과성을 내겠는가 하는데 달린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편소설은 그가 해결하려고 지향하고있는 문제 즉 종자의 요구와 그로부터 확증된 주제사상적과제에 기초하여 거기에 맞는 해결방식과 방법을 선택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지향과 그에 역행하는 갱장의 부정선과의 충돌을 격렬하고 치렬하게 조성해놓고서는 그 해결은 심리적갈등형식으로 또는 뒤생활로 충분히 편상시키고 납득할수 있게 해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주제의 장중편소설들에서 있을수 있고 파생될수 있는 생산기술적문제와 지루한 사건설명들을 생략하고 피하면서도 무리없이 처리해나갈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이것이 소설로 하여금 다른 소설들과 자기를 구별할수 있게 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주되는 요인의 하나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면 충돌에 의한 정면묘사의 방법으로 그들의 인간관계를 해결하였더라면 이 소설은 우선 도식과 류사성에서 탈피할수 없었을것이며 과중한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과 불필요한 정황과 세부의 비만성에서 벗어날수 없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전형적이 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만 존재하는 어둡고 침침한 생활의 이러저러한 낡은 요소들과 국면들이 정면에 섞여들어 작품이 지루하고 어둡침침하고 밝지 못한 결과를 불피코 가져왔을것이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고 갈등관계를 잘 해결한 여기에 이 중편소설의 인간학적인 높은 경지가 있다고 보는것이다.

이 중편소설에서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당조직선문제이다.

이 소설에서 부정선의 색깔은 이렇게나 저렇게

나 당정책관철을 방해하는 낡고 진부한 보수주의와 관련되는 문제인것만큼 당조직선의 설정이 필요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당조직선을 정면에 내놓지 않고서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즉 이 소설은 초급당조직이나 부문당조직을 내놓고 부정과의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한것이 아니라 이 작품의 종자와 생리에 맞게 이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하였다. 그것이 바로 작품에서 정보아바이션을 설정한것이다. 그는 이 갱의 분초급당위원이며 갱에서 고문격으로 일하며 나중에는 제대군인소대 대원으로 일하는 로탄부이며 로당원이다. 우리의 주인공이 이 어려운 땅의 주인으로서의 영예와 자부를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기까지의 그 간고하면서도 영광에 찬 로정에는 참으로 그의 숨은 노력과 성의가 고스란히 깃들어있는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오랜 세대와 새세대들이 호상 의거하고 존경하고 서로 합심해서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현실을 확증하고있다.

동시에 당조직선을 정면에 내놓지 않고서도 정보아바이의 형상을 통하여 당조직의 역할과 그 모든 요구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정보아바이션이 가지는 형상적의의는 매우 큰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인간관계의 설정과 성격발전의 깊이있는 추구, 내면세계의 개방에 생활묘사의 진수가 있다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잘 구현한데서 얻어진 결과이다.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민족적정서에 맞는 현대적 미감문제를 잘 해결한 기본 비결이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의 기저에는 당의 지도 밑에 작가가 기울인 시대와 혁명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끊임없는 사색, 피다는 탐구와 노력이 깃들어있다. 참으로 작가가 당정책을 받들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울인 그 모든 노력과 고심의 흔적은 작품의 이모저모에서 감득된다.

이것이 귀중한것이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서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막장의 불빛

박희구

웃으며 떠들며
갱구로 들어설 때
남먼저 성냥을 그어주는 사람
우리 광부들속에 있어라

한점의 그 불빛
간데라마다에 옮겨질제
불빛에 젖어 걷는 마음
오늘도 굴길과 함께 생각은 깊어지누나

아, 한점의 불빛이 되어
심장과 심장들에 불을 달고
온 막장을 불붙여가는 사람
성스런 이름으로
부르며 따르는 혁명의 전위

그대 처음 입갱하던 날
새 간데라를 받아안고
쫓아보며 담고 또 담던 그 마음이
거울같은 화면에 비끼
자기의 웃는 얼굴 마주보며
안전모밑에 빛나던 그 눈빛이
불빛으로 넘쳐흐르는 갱도길이여라

일매지게 다듬어진 막장의 한끝까지
지압을 떠받들고 선
어느 동발목을 봐도
그대의 손길 어려있고
달리는 전차소리
배관에 흐르는 바람소리 들어도
그대의 숨결 뜨거이 안겨온다

천길 땅속의 숨은 광맥도
우리 광부들의 가슴속에서
먼저 보고
우리 품은 생각과 결심
마음의 보석으로 안아보며
자욱자욱 빛내여준 이 굴길

무심히 볼수 없으려라
배관따라 갱속에 흘러드는 맑은 물
숲푸른 산정의 샘줄기를

여기 천길막장에 이어준 그대의
그 발기 그 숨은 지성
이 가슴을 적신다

예가 아니더나
쏟아지는 석수
앞을 막아서던 그 단층구간
부러진 정대를 갈아대며
달아오른 착암기 놓을줄 모르던 전위
에돌지 말고 돌파구를 열자고
웨치던 그 목소리
불덩이로 받아안고
불을 뿜으며 돌격하던 우리의 막장이여

우리 창안의 작은 싹이
그대의 지혜우에 꽃피나
완성된 새 발파법
다량락광의 열쇠되어
발파소리 드높이 쏟아지는 광석폭포
끝없이 끝없이 땅우로 흘러가누나

아,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영광스러운 당중앙 우러러
기쁨 드리는
지하막장의 미소이런가
노을이 피어나는 조국의 하늘가에
키를 솟구며 높이 솟아오르는
150만톤 유색금속고지여!

지심천리
깊어 깊어 지는 굴길에
혁신의 자량과 노래를 가득 채우며
손잡아 이끌어주는 미더운 그대 모습

그 어느 막장의 한끝에
한점 불빛이 되어 흘러도
아, 전위의 그 모습은
불타는 기발이 되어
위훈으로 우리 광부들을 불러주며
지하의 별
충성의 별무리로
찬란한 승리봉으로 이끌어세우고있으려라!

용해장에 흐르는 시간

백의선

얼마나 환희로운 음향이나
드넓은 용해장을 흔들며
울리는 종소리
출강종소리

순간, 약속이나 한듯
불타는 눈빛들이
둥근 벽시계를 본다
아, 또다시 앞당겼구나
용해시간이여

기쁨이여라
푸르른 조국의 하늘을 물들이는
쇠물빛 노을보다 먼저
가슴속에 피어나는 환희의 노을이여

로속에 펄펄 솟구치는 쇠물
가슴에도 철철 넘치는 쇠물
시대앞에
혁명앞에
용해공의 량심으로 바쳐지는 이 순간

작업모 제껴쓴 머리 흰 로장도
즐거이 손흔드는 젊은 용해공도
쇠물남비 대여놓은 단발머리치너도
이 하루 드팀없는 삶의 한초한초를
웃음속에 새겨보나니

심장에 울려오는 시계의 초침소리속에
찾으며 부르며 달리던 마음들
가슴으로 로를 안아
백열로 올리고싶던 그 열정
노을에 비끼여 타오르는것이냐
쇠물에 스미여 쏟아지는것이냐

하루를 백날로 주름잡아 살며

오로지 한마음
당을 받드는 순간순간으로
용해공들 창조한
소중한 새 용해시간

이 한초한초를 새기며
해빛 내리는 저 구내선너머
화차들은 쾌속으로 달려가고
이 한초한초가 맥박으로 뛰여
선반공은 만속의 불바람을 일구리

이 시간이 흘러
강줄기를 휘여잡는 언제우에
새 불빛들이 하늘의 별무리와 마주웃고
직포공의 번개치는 일손아래
비단바다 물결쳐흐르리

이 땅의 낮과 밤을 새기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
용해공들이 안고사는 그 시간은
3대혁명의 기폭을 날리며
조국이 솟구치며 나래쳐가는
장엄한 대진군의 발걸음

울려라 출강종소리
시대의 새 속도를 부르며 이끌며
세월에 맞서
온 나라의 거창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강철전선의 시간이여

새 용해시간에서
새 용해시간으로!
오,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속에 태어난
80년대의 새 속도를 창조하며
뜨거운 심장의 맥박으로만 재여가는
조선의 새 시간이 용해장에 흐른다

백양나무 설레는 땅에서

계훈

누구나 강선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강선에 언제 한번 와보았거나 이고장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몇역전부터 제강소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차창가에 자리를 바꾸어잡느라고 은근히 마음을 바재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언제 한번 《랑패》를 보았거나 예견성있는 사람들은 시발역에서 벌써 맛쫓은 자리를 택한다. 나도 그러한 사람들에 속했다.

나는 차창을 다시한번 닦은후 서성거리는 사람들과는 무관심한듯 들고있던 책을 펴들었다.

《미안하지만... 바꾸어앉지 않겠습니까?》

마흔이 갓 넘어보이나 머리칼이 묘하게 빠져 정수리가 허영계 들여다보이는 인상좋은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쪽의 자리를 보았다. 네명이 앉게 된 좌석에 한 녀인이 앉아있을뿐이다. 책 읽으며 려행하기는 그자리가 좋다는것이다.

나는 상대방에게 슬쩍 웃어보였다. 그의 속심을 알수 있었기때문이다. 또 그 마음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가까이 사귀고싶었다.

《여기 조여앉읍시다.》 나는 자리를 조이고 멋적어하는 그의 팔을 끌어앉혔다.

기차가 강선땅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공장정문이 보인다. 대동강변을 따라 넓게 뻗은구내길, 아슬히 솟은 철탑들, 그리고 저기 우렛이 보여오는 백양나무

-온 나라가 다 아는 강선의 백양나무!

타오르는 쇠물빛에 저녁노을이 한데 어울려 붉게 물든 강선의 노을, 모든것이 빨갭게 보여온다. 하늘도 땅도 설레는 백양나무도...

차창은 어느결에 발그레한 쇠물빛노을에 물들었다. 이럴 때면 그 노을빛이 사람들의 마음도 속속들이 물들여주는 모양이다. 가슴이 설레인다. 마음속에 자리잡고 뒤흔치는것이 있다. 그림고 미더운 얼굴들, 일생토록 사랑하고싶고 무엇이든 바치고싶은 강선사람들...

창조자들

우리는 곧장 공장구내길에 들어섰다.

기차칸에서 만났던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그는 흑색야금설계연구소의 설계기사였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공장을 나라의 대야금기지로 꾸리기 위해 펼쳐나선 이곳 동무들을 돕기 위하여 현지에 파견되어오는 길이었다.

였다.

우리는 같이 동행하게 된것을 서로 기쁘게 생각하였다. 나는 야금설계전문가인 그에게서 현대야금공업의 발전추세와 여러가지 과학적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 있었고 그는 이미 이 공장에 현실체험기지를 두고있는 나에게서 현장에 대한 안내와 이러저러한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던것이다.

질게 물들어오는 저녁노을은 우리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용해장으로 이끌어 갔다.

다급하게 울리는 출강종소리, 지동치는 전기로의 동음, 현장방송원의 힘찬 목소리... 용해장의 이 모든 음향은 우리들의 가슴을 들먹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젊은 용해공을 만나 이곳 1강철직장 8호로 로장인 로력영웅 정창주동무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용해공동무의 안내를 받아 로앞으로 다가서던 우리는 그만 그자리에 멈추어서고말았다.

8호전기로앞에서는 출강을 앞둔 용해공들의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던것이다.

삼단같은 불길의 너울거리는 두터운 쇠정판위에 강단이 있어보이는 선고개의 한 용해공이 서있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사품치는 로안을 보안경너머들여다보는 그의 눈길은 준엄하였다. 그가 눈짓과 손짓을 하면 방열모를 쓴 젊은 용해공들이 불길을 맞받아달려나가며 합금철을 투입하고 쇠물을 젖군한다.

불꽃이 튀길듯한 로장의 눈, 불길에 번쩍이는 적동색얼굴들, 화끈 달은 그 마음이 내비친듯싶은 배전공처녀의 빨간 머리수건... 긴장한 시간이 로앞에 흐르고있다.

저 한쪽 산업텔레비죤화면앞에도 두사람이 서있다. 한 용해공은 생산지령서를 손에 쥐고있고 한사람은 무선전화기를 메고 줄곧 어딘가를 부르고있다.

이런 시각에 로장동무와 이야기를 나눌수 없다는것을 생각한 우리는 산업텔레비죤화면앞으로 다가갔다.

잠시후 텔레비죤화면속에 실험공처녀가 나타나

더니 새하얀 수자모형을 몇개 골라 쇠물의 화학 원소분석수치를 칠판에 건다.

《맞았다!》 큼직한 두눈으로 화면을 짝 붙잡고 부동자세로 서있던 용해공이 소리질렀다.

성급한 용해공 한명이 쇠장대를 들고 출강구쪽으로 달려가려 하자 로장의 엄한 눈길이 로안을 가리킨다. 쇠물시료를 떠낸다. 하얗고 부그그한 제련기 슬라크를 제끼자 새보얀 안개를 일구며 파아란 쇠물이 드러난다.

긴장한 몇쌍의 눈길이 그 한점에 모인다. 좋다! 로장의 입가에 한순간 미소가 피어난다. 《출강!》

쇠장대가 번쩍이자 몽실 불구름을 피워올리며 쇠물이 쏟아져내린다. 불꽃이 튀긴다. 수천수만 갈래의 아름다운 쇠물꽃이 날아내린다.

이때라고 생각한 우리는 로장 정창주동무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오늘의 성과를 축하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담배를 맛있게 한모금 들이킨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체의 원료로 중요한 고질강 끓여내었습니다. 그런데다 출강시간을 또다시 40분 앞당겼고 전력원단위도 종전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로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그마한 수첩에 무엇인가 자꾸만 적어넣던 설계기사는 몇번이고 안경을 들었다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기적적인 수자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나 야금공업계획수행에서 1%의 초과도 대단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료로 중요한 고질강을 생산하고 이런 새 기록을 냈다는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그는 과학자답게 우리 용해공들의 성과를 찬양하였으며 그 비결에 대해 묻기 시작하였다.

로장동무는 오늘의 이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새로운 용해법을 완성하던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출강을 앞두고 로에 불은 기계팔이 저절로 쇠물을 젖는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용해공들은 또하나의 쇠곰베를 들고 불길을 맞받아 쇠물을 젖는단말입니다. 몇분 아니 몇초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지요.》

그는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장이 하루아침 용해장에 들어서다 장입대에 오르는 쇠층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한패의 젊은 용해공들이 쇠층계를 뛰어오르고 뛰어내리며 떠들어대기때문이었다. 웬일인가 하여 다가가보니 누가 이미 있던 쇠층계를 떼내고 새것을 붙여놓았었는데 완만한 경사로 아홉층계 되었던것이 세층계로 되어있었던것이다.

후에 알아보니 층계에 오르는 시간을 당기기

위해 부반장 강정수동무가 밤사이 만들어놓은것이었다.

《이런 마음들에 의해 우리의 출강시간이 단축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받들려 오늘의 <80년대속도>도 창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동을 억제할수 없어 로장동무의 손을 힘있게 잡아흔들었다.

얼마나 소박하고 수수한 말인가. 그러나 그의 말속에는 우리의 가슴속에 술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크고도 숭고한 뜻이 담겨있는것이다.

그렇다! 《80년대속도》 창조-력사의 폐지에 기록될 이 거창하고 위대한 속도도 아홉층계를 세층계로 뛰어짚으려는 그 걸음새에서, 우리가 날마다 당겨 걷는 지름길에서 충성의 그 마음속에 모아안은 그 한초한초가 모여 이루어지는것이다!

백양나무 설레인다

밤노을 타오르는 강철지구 구내길을 걸으려면 마음속마다 기쁨이 차오르고 생각하는 모든것이 아름다워지고 귀해지는것이다. 강철직장을 나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걷고 걸었다.

《저기를 보십시오.》 나는 함께 걷는 설계기사 동무에게 가만히 말을 건넸었다.

《강선의 백양나무입니다.》

시원히 탁 트인 공장구내 한복판에 쇠물빛을 받아 잎새마다 붉게 번쩍이며 백양나무 한그루가 설레이고있었다.

나는 가슴깊이 숨을 들이긋고 무엇인가 터놓고 싶은 충동에 못이겨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언제인가 식물에 대한 참고도서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에 자라나는 백양나무 몇가지중에 강선의 백양나무가 일련의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식물학적으로 <강선백양나무>로 명명한다는 내용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후 나는 강선에서 자라나는 백양나무의 잎새며 줄기머를 관찰해보았으나 식물학에 대한 내 짧은 견식으로써는 그 특성을 갈라낼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명백히 인식하고있는것은 강선의 백양나무가 그 어느 고장의 백양나무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식물학적특성보다도 이 나무에 깃든 사연으로 놓고 말할수 있습니다.

강선에서 태어났거나 사는 사람은 물론 언제 한번 살아본 사람치고 그의 운명이 이 백양나무와 련결되지 않은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찾아오게 되는곳이 백양나무 설레는 이 구내길인것입니다.

온 공장이 모여앉는 각종 쫄기모임도 여기서 가지고 로동속에서 만난 애어린 처녀총각들의 첫사랑의 약속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중학교모표자리가 아직 또렷한 신입공들의 첫자욱도

여기서 시작되고 공장과 함께 일생을 같이 한 로인들의 총화의 마지막자옥도 여기에 찍혀집니다.》

설계기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가 문학적인데요.》

《아니지요. 생활이 그대로 문학적인것입니다.》

백양나무밑 정갈하게 꾸려진 잔디밭이며 화강석층계들 여기저기에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어떤곳에는 이삼십명의 사람들이 모여앉았고 어떤곳에는 두세명이 또 어떤곳에는 홀로 말없이 거닐고있었다.

우리는 먼저 이삼십명이 모여앉은곳으로 갔다.

《압연직장동무들입니다. 저기 일어서 토론하는 동무가 압연공 박태환동무입니다.》 나는 설계기사동무에게 소개를 했다.

《동무들! 포연도 채 가셔지지 않은 전후의 그날 폭격에 아지찢긴 이 백양나무밑에 우리 수령님을 모시였던 그날을 생각해보십시오. 보이는것마다 가슴 허비던 그날에 수령님께서서는 여기 부서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걸음 백걸음을 걸어 100년이 걸려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던 미국놈들의 뒤통수에 쇠물폭포를 들썩우자고 하시며 자력갱생의 혁명적불씨를 심어주시었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 또다시 우리 공장을 현지도하시고 나라의 대규모적인 야금기지로 꾸릴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매일 초과수행한 압연강재를 새로 일떠서는 현대적인 산소전로건설장에 보내주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열광적인 박수갈채소리가 터져나왔다.

우리는 후더워오는 가슴을 안고 백양나무가까이로 다가섰다.

거기에는 몸집이 큰 중년의 사나이가 세명의 청년들과 나란히 앉아있었다. 나는 어스름속에서도 짙이는데가 있어 좀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보았다. 틀림없었다. 그들은 2강철직장의 용해작업반장 차재만동무와 그의 세아들이었다.

차재만동무의 웅골은 음성이 조용조용히 들려왔다.

《나라사정이 어렵던 1956년 12월,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눈내리는 강선의 구내길에서 만톤의 강재만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나는 동무들만을 믿는다고 뜨거운 당부를 남기시고 밤이 이슬해서야 평양으로 떠나셨다.

그날밤 나는 온밤을 잠들지 못하며 생각했다. 내 일생을 두고 쇠물을 끓이며 살리라고... 나는 너희 3형제를 낳아서도 오직 쇠물로 수령님께 기쁨을 드려달라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너희들의 이름을 《용해공》이란 말을 따서 용철이, 해철이,

공철이로 지었다. 그런데 오늘은 공철이 너까지 용해공이 되었으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너희들은 이렇게 귀밑머리 희여서도 용해장을 못떠나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우리 가정은 쇠물로 아버지수령님과 당중앙을 길이길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가슴은 뜨거움으로 가득차올라왔건만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나눌수 없었다.

불같은 강선사람들!

일생의 그 모든 행복과 아름다운 꿈을 쇠물빛 노을속에 깡그리 바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내길에 말없이 충성의 자옥을 찍어가는 사람들!

그 불타는 심장들의 박동을 타고 세상을 놀래우며 천리마가 나래 쳐올랐고 《강선속도》가 창조된것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뜨거운 눈길을 들어 사연깊은 백양나무를 오래도록바라보았다.

얼마나 키높이 자랐는가,

얼마나 보람찬 혁명의 년륜이 여기에 새겨졌는가. 이 백양나무가 아지를 펼치며 푸르싱싱 자랄때 용해공들의 가슴이 넓어졌다. 이 백양나무와 함께 이고장 아이들도 자랐고 강철튼수도 나날이 늘어났다. 이 백양나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런 당중앙을 강철로 높이 받들어가려는 강선사람들의 철석같은 신념이 억센 뿌리를 내렸다.

《강선에 오면 기술자인 우리도 여기 걸음새에 맞게 보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던 설계기사동무는 진심이 넘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했다. 나 역시 그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나는 이 영광의 땅에 이 불같은 심장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의 노래를 바쳐가는 그 기쁨을 다시금 가슴깊이 느끼게 됩니다.》

의미깊게 서로 마주보는 우리의 눈동자들에는 노을빛이 담겨있었다.

어디에선가 은근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백양나무가 설레인다.

한낮엔 그 푸르른 기상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던 백양나무.

이밤엔 뿔어치는 전기로의 불광을 받아안고 찬만앞새 붉게 번쩍이며 강선의 백양나무가 설레인다.

마치도 충성스런 강선이 추켜든 꺼질줄 모르는...해불마냥

네번째사람

윤승홍

혁명소조원 박정옥의 푸른색 수첩에는 기대공들과 조립공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있었다.

자기가 담당한 발브직장 노동자들의 이름이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의 이름밑에는 빨간줄을 그어 놓았다.

일군들의 사업수첩에 흔히 표시되는 동그라미,

삼각형, 의문표와 같은 그 어떤 참고표 같았다.

빨간줄을 친 첫번째 사람은 선반공 오동무였는데 그는 기능급수가 높은 사람이었다.

고속도절삭에 강력절삭을 들이대는 솜씨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기대를 알뜰히 다루는데는 빈구석이 있었다.

그는 소조원의 도움을 받아 이 부족점을 고쳤다.

두번째 사람도 역시 선반공이었는데 그는 일도 잘하고 기대를 끈지게 다루는 처녀였다.

굳이 흠이라면 천성이 그런지 어딘가 좀 독한 편이였고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다.

총각들은 그를 《독쟁이》라고 불렀다.

소조원 박정옥은 이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도 이제는 명랑한 처녀로 알려졌고 휴식참이면 《아무도 몰라》를 끝잘 불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번째 사람은 볼반공이었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부족점은 배우려는 열망이 그리 높지 못한 그것이었다.

학습강사가 쫓아다니며 공부를 하라고 하면 《참 세월이 좋긴 좋다》 하고 탄복은 하면서도 더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바이도 소조원의 손에 이끌리어 지금은 제법 독학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세사람의 이름밑에는 빨간줄이 그 어지게 되었다.

네번째 사람의 이름에는 아직 그 어떤 참고표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소조원 박정옥은 아까부터 빨간색 원주필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조립공 리동무를 생각하고 있었다.

직장일군들은 리동무를 가리켜 《관록있는 조립공》, 《책임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다.

아닌게아니라 리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놓고보면 별로 나무랄대가 없었다.

아침 출근으로부터 퇴근에 이르기까지 일과생활이 빈틈없이 짜여져있었고 학습도 우수한 축에 속했다.

직장별 예술소조공연때면 중창조에 끼워 무대에 척 나서곤하였는데 부드러우면서도 성량이 풍부한 그의 노래는 종업원들의 박수갈채를 불러냈다.

작업반에서는 《100%선수권보유자》로 알려져있었다.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최근 10년동안에 자기의 일별계획을 한번도 미달해본적이 없다는것을 고려해보면 사실 그럴만도 했다.

소조원 박정옥은 주머니에서 전자계산기를 꺼내어 지난 몇년간의 직장종업원별 작업실적을 분석해보았다.

조립공 리동무의 계획수행률은 거의나 100%에서 110% 어간에 머물러있었다.

그래서 아마 《100%선수권보유자》로 알려진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이것을 흠잡을수는 없었다.

뽕 잡는게 매라고 아무튼 자기의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한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소조원의 눈은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계속하지 않으면 생활이 높아져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이 없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점차 떨어질수 있습니다.》

과연 리동무가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그렇게 살며 일하고있는가?

《80년대속도》가 창조되는 이 벅찬 시기에 우리 노동계급은 어떻게 투쟁해야 하며 전진해야 하는가?...

깊어지는 생각을 거듭 음미해보며 그날 조용히 리동무를 만난 소조원 박정옥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계획을 102%로 완수했더군요. 어때요. 한번 더 높이 날아볼 생각은 없어요?》

《더 높이요? 글썄... 하지만 자기 계획을 매일 수행하는것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겠지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리동무의 얼굴에는 자기일에 대한 일종의 만족감이 짙게 어려있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박정옥은 소조원으로서 한결음도 양보할수 없었다.

《담보하는것은 곧 퇴보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10년전에도 100% 했는데 오늘도 계속 100% 한

다면 리동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겠어요?》

이 말에 리동무는 손에 들었던 나사틀개를 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생각지도 않았던 강한 《타격》이 그를 놀라게 했던것이다.

《그럼 제가… 락오자란말입니까?》

그것은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적지 않은 로동생활을 해왔지만 락오자라는 말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리동무였다.

직장일군들도 숨쉴고 말없이 수직수직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왔고 새로 공장에 들어온 신입공들도 존경하며 따르지 않았던가.

말하자면 《칭찬》과 《만족》은 알았지만 《결함》과 《비판》은 거리가 먼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소조원의 말은 여전히 답답하게 울렸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의 락오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동무가 처음 로동생활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칭찬도 받고 숙보에도 났을거예요.

그때에는 동무가 모범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만큼 앞섰습니다.》

여기서 소조원은 잠시 말을 끊었다.

리동무가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물었던것이다.

성냥을 그으려고 하였으나 자꾸 성냥가치가 부러져나갔다.

고요하던 리동무의 생활에 파문이 일어났던것이다.

잠시후에 박정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 평범하게 살겠노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한다는데 그렇게 사는것이 과연 평범하게 사는것일가요?

앞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뒤떨어지지도 않고 앞뒤를 재여가며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평범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처럼 평범하게 사는것이 정말 그런것이라면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야 할것이 아니라 빛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동무는 말이 없었다.

소조원의 이야기가 너무도 깊은 뜻을 안고 가슴에 파고들었던것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이 없어지니까 아글타글 애쓰며 더 혁신하려 하지않고 적당히 일하려고 하면서 마치나 평범한 사람인듯이 자신을 위로하는 현상들이 없지 않습니다.

3대혁명이 높은 단계으로 심화된 오늘 우리의 투쟁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리동무를 두고 정말 많은것을 생각하게 돼요…

리동무, 어때요? 제 말에 가슴이 아파요?》

《소조원동무, 전 이런 비판을 처음 받아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플거예요. 아픈것만큼 동무는 꼭 고칠수 있어요.

리동무, 저와 함께 기술혁신을 하나 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 150%, 200%의 계선을 넘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보지요.》

소조원 박정옥은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가차없이 대했지만 일군들과 로동자들에 대해서는 친누이가 되고 혹은 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따듯이 품어주기도 했고 이끌어주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우리 소조원》, 《참된 혁명동지》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따르는것이 아닌가.

리동무의 굳어졌던 얼굴에도 부드러운 웃음발이 잔물결쳤다.

《소조원동무앞에서는 왜 그런지 꿈쩍 못하겠습니다.

사람의 심금을 그토록 울려주는데 어디 견딜수 있습니까?》

《좋아요. 그럼 나사찍는 기계를 하나 만들어보지요. 여기서는 발브를 많이 조립하는데 매번 다른곳에서 나사를 가져오겠어요?

우리도 제발로 걸어보지요. 하면 했지 못할것이 뭐 있어요》

그리하여 그날부터 조립공 리동무는 소조원처녀와 함께 반자동화 된 나사찍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사실 이 기계는 오래전부터 소조원처녀가 구상하고있었던것이므로 그의 머리속에는 벌써 기계의 작용원리와 기술적특성, 가공품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무르익어있었다.

소조원 박정옥은 리동무의 지혜와 창발성을 제발시켜나가면서 그에게 자기의 기술혁신안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때로는 리동무가 더욱 기발한 착상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처음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소조원의 손에 이끌려가던 리동무였으나 기술혁신이 일정에 오르고 승산이 내다보이자 기세가 부쩍 올라 욱욕하며 달라붙었다.

참으로 사상이 발동된 인간의 창조적힘은 큰것이였다.

그렇게 막연해보이던 나사찍는 기계가 얼마후에는 작업장 한쪽에 덩실하게 솟아올랐다.

리동무는 낮과 밤을 이어가며 부속품을 깎고 맞추고 조립해나갔다. 그러나 나사를 찍는 압착날 제작만은 리동무로 하여금 맥을 놓고 주춤거

리게 했다.

압착날의 강도와 재질, 이동속도와 가해지는 힘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거듭 실패의 결과를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열한번째로 실패하고 이마의 땀을 씻으며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구인가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 주었다.

돌아보니 소조원처녀였다.

《없던것을 창조하는것이 그렇게 쉽겠어요. 실례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조원처녀는 품속에서 압착날을 두개 꺼내놓았다.

거기에는 소조원처녀의 남모르는 탐구와 고심이 어려있었다.

《소조원동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니 새힘이 솟습니다.》

리동무의 목소리는 감동에 젖어있었다.

많은 동무들이 이들의 기술혁신안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나섰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새형의 기계!

크지는 않지만 탐탁하고 간편하여 쓰기도 편리하고 능률도 높았다.

소재를 물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사가 찍혀 자동적으로 떨어졌다.

시운전이 끝나고 첫 제품이 쏟아져나오던 날 소조원 박정옥은 리동무의 손을 뜨겁게 잡고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좋아요. 선반에서 나사를 깎던것에 비하면 20배의 능률을 내지 않아요. 기술혁명의 시대에 사는 로동계급은 이렇게 큰 걸음을 내디디며 높은곳에서 더 높은곳으로 나래쳐 올라야 합니다.》

리동무의 얼굴에도 삶의 보람과 창조의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정말 일하는것 같습니다.

소조원동무! 나도 이제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하루를 살아도 쇠소리가 나게 살겠습니다.》

《기쁩니다. 제가 기쁜것은 여기에 솟아오른 한대의 기계보다도 리동무의 새 모습을 보게 되어서 더 기쁩니다.》

그들의 마음인양 나사치는 기계는 반짝이는 여러가지 규격의 제품들을 순간마다 찍어내며 경쾌하게 돌아갔다.

이것이 불꽃이 되어 기술혁신의 불길인 온 직장에 더욱 세차게 타번졌다.

나이 어린 신입공처녀들까지 가치있는 창고안들을 내놓았다.

소조원 박정옥은 이 새싹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뒤에서 밀어주기도 했고 앞에서 이끌어주기도 했다.

하루는 리동무가 새 도면을 들고 소조원을 찾아 왔다.

《만능조립지구를 하나 만들어볼가 합니다. 도면이라고 그려보았는데 한번 보아주십시오.》 박정옥은 도면을 받아 펴보기도 전에 리동무의 기쁨은 손을 덥석 잡았다.

《이럴줄 알았어요. 이 시각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반가와요. 기뻐요.》

리동무는 먼구스려운듯 뒤더수기를 만지작거리며 《아니 도면을 보지도 않고...》 하고 점직해하였다.

《저에게는 이 기술혁신안이 성공할수 있겠는가 하는것보다 리동무와 마음속에 자란 키가 더 귀중해요. 됐어요. 이젠 됐어요.》 이렇게 하여 또 한사람이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며 혁신자의 대오에 힘차게 들어서게 되었다.

그날밤. 소조원 박정옥은 자기의 사무실에 앉아 하루 일과를 총화해보며 푸른색 수첩을 펼쳤다.

네번째 사람!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한자리에 앉아뭉개던 그가 이제는 《80년대속도》 창조의 불바람속에서 비약의 역센 나래를 펴고 더 멀리 큰 걸음을 내디디기 시작 하였다.

소조원의 영예와 높은 책임감이 어려있는 박정옥의 가름한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원주필을 꺼내어 네번째 사람 이름 밑에 빨간줄을 진하게 그었다.

래일부터는 다섯번째 사람과의 사업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 다음엔 여섯번째 사람...

소조원 박정옥은 자기가 만나보아야 할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그려보았다.

얼마나 정답고 좋은 사람들인가.

그들은 다 제 나름대로 더 많이 일하려고 애쓰고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좋은점은 살리고 부족점은 바로잡아주면서 《80년대속도》 창조에 모두가 발을 맞추게 해야한다. 갈길은 아직 멀다.

서른네번째 사람... 마흔두번째 사람

이렇게 3대혁명소조원 박정옥은 일군들과 로동자 한사람한사람의 취미와 성격, 우점과 부족점들을 깊이있게 분석해주면서 그들모두를 충성의 한대오에로 이끌어갔다.

공장지구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였다.

참 좋은 밤이였다.

미완성조각

고병삼

5월, 광주의 밤거리로 하얀 위생복을 입은 의대생 처녀가 걸어가고있었다.

정적, 피... 붉은피, 길가에 덩구는 돌멩이와 부서진 기와장, 부러진 가로수, 짓밟힌 화단에도 피, 흩어진 책가방, 바람에 흩날리는 교과서와 학습장에도 피, ...소년소녀들의 발에서 벗겨진 구두, 만신창이 된 빼스와 바리케이트에도 피, 피다... 하늘에서 내린 봄비도 아닌, 흩어진 꽃잎도 아닌, 젊은이들의 피로 물든 아스팔트길위에 하얀 위생복자락을 스치며 처녀는 이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헤매고있었다.

자유를 위해 일떠선 시민들과 발톱까지 무장한 군대와의 전대미문의 대결이 며칠째 계속된 도시에 밤은 깊어갔다.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눌렀다. 불려도 대답이 없다. 음료수를 달라고 웨치던 목마른 소리도 이제는 들려오지 않는다. 높고 낮은 창문마다 불빛이 꺼지고 거리에는 인적도 없다.

《투항하라, 투항하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80만 시민들을 향해 빼라를 뿌리며 목이 쉬게 짖어대던 직승기들도 어데론가 날아가버리고 방금전까지 거리에 나타나 닥치는대로 쏘고, 찌르고, 매달고, 발각 뒤집던 놈들도 사라져버렸다. 지금은 도시밖에서 비쳐오는 탐조등불빛만이 피에 젖은 길바닥을 훑으며 도적교양이 눈알처럼 퍼어렇게 병긱거리고있었다.

폭동군중들의 손에 장악된 도시는 방금전 서울로부터 밤하늘을 썰며 다급히 날아온 공수륙전대에 의하여 포위되었다.

처녀는 탐조등불빛에 붙잡힌듯 얼굴을 드러내 놓았다가 땅에 잤아든듯 사라졌다...

잠시후에 비명을 지르며 지하가를 달려나온 그녀는 쏘는듯이 강력한 광선을 한손으로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하얀 위생복에 가리워진 그의 몸매는 이 음산한 밤과는 너무나도 엄청난만큼 아름다웠다. 하얀 위생모의 붉은 적십자표식은 이마에 새겨진듯 유난스러웠다. 어깨너머로 흘러내린 검은 머리카락이 부러진 가로수가지의 파란 잎사귀를 스친다. 그는 탐조등이 가로세로 누비며 병긱거리리는 금남로쪽으로 허둥지둥 걸어가고있었다. 이밤, 이 거리에 살아서 움직이는것이란 애타게 땅바닥을 살피다가 원망스레 하늘을 쳐다보는 그의 눈길뿐인듯싶었다.

5월의 향기도 봄의 감각도 아닌, 이상한 감각에 의대생은 마치도 누구의 가슴팍에다 청진기를

대고 숨결을 가늠해보는듯싶은 표정을 지으며 꽃밭과 가로수밑에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인다.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방금전에 구호대가 담가를 들고 지나간 거리건만 처녀의 감각에는 광주의 아들딸들의 숨결이 들려오는듯싶었다. 그때마다 그의 순결한 심장은 첫사랑을 언약하던 때처럼 높뛰었다.

《혜경이-서혜경이-》

어데선가 자기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아서 한번 발걸음을 멈추기만 하면 땅에 붙어 떨어지질 않는다. 때로는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가서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만져본다. 마침내 그는 빛을 잃지 않은 눈동자를 발견했다.

(아니 어찌머는 신통히도 같을가?!)

그것은 지금 그가 찾는 그 사람의 눈동자같다. 그가 아직 애인이기전, 다시 말해서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움트기전에 보던 그의 눈매를 방불케했다. 혜경은 다 자란 처녀가 아니라 갑자기 소녀같은 눈매로 지켜보다가 나아린 소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다. 소년의 얼굴은 탐조등에 비껴 뚜렷이 나타났다. 손에 자그마한 돌멩이를 꼭 전체로 반듯하니 누워 밤하늘을 쳐다보는 눈동자는 너무도 맑아서인지 살아서움직이는듯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아- 아직 살아있구나.)

혜경은 하얀 위생복자락에 소년을 감싸안고 가로수앞으로 걸어나오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 거리에 누가 없어요?... 아이참, 영결씨-어데 계시나요?- 오영결씨-》

혜경은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그 이름이 저도 모르게 입밖으로 튀어나가자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길건너편을 살펴보았다.

탐조등불빛이 언뜻 스쳐지나가는 저쪽 가로수 밑에서 웬 검은 옷자락이 가볍게 흐느적이고있었다. 땅바닥을 스치는 검은 옷에 검은 두건을 쓴 웬 신부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음산한 정적이 스민 항쟁의 거리를 살펴보며 그 무슨 복음서라도 외우듯 중얼거리고있었다. 처녀의 목소리를 들었음인지 그는 두건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탐조등불빛에 흰서리처럼 아물거리며 길을 건너왔다.

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신부님!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어제부터 여기 와서 외과의사 안박사의 자혜병원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거리에 나왔어요. 이 소년을 안고 계까지 가자머는 너무 멀군

요. 혹시 이 근방 어디에 신부님이 잘 아시는 병원이 있으려요 수고스럽지만 좀 도와주세요.》

신부는 말없이 소년을 받아안고 가슴에 귀를 대보면서 몇발자국 걸어가다 말고 꽃밭에다 조심스레 내려놓고 일어서며 십자가를 그었다.

《아가씨, 공언한 수고를 하셨소. 이 애는 . 이 미 숨을 거뒀군요. 이런 애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여기다 눕혀놓으면 부모들이 와서 찾아가기도 쉬울겁니다.》

《아니예요. 살았어요. 저 눈과 저 주먹을 좀 보시지요. 살았습니다. 살았지요!》

《눈을 감기엔 너무나도 천진란만한 어린 녀이니가 그렇게 보일수도 있을테지...》

신부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야릇한 애수에 잠기었다. 혜경은 소년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다는것을 확인해보고서도 그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소년의 앞날을 바다에 비길가 하늘에 비길가. 하나의 세계라고도 말할수 있을 높은 삶의 봉우리와 살아야 할 인생전체를 미지수로 남겨두고 떠나간 소년이기때문인지 아이가 아니라 그 어떤 거인의 장렬한 최후와 같이 숭엄해보이기도 했다.

소년의 입가에 떠도는듯싶은 미소는 마치도 혜경에게 누나! 나는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노라고 속삭이는것만 같은 인상을 주는것이였다. 혜경은 신부가 재촉해서야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뒤따라가고있었다.

《아가 아가씨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것 같던데요. 그이가 누신지요?》

《.....》

혜경은 의혹이 짙은 야릇한 시선으로 미풍에 흐느적이는 검은 옷자락을 바라볼뿐 입을 다물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인 아가씨가 어떻게 여길 왔소?》

《예가 저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혜경의 목소리에는 이 땅의 딸로서의 긍지와 비감이 담겨있었다.

신부는 혜경이더러 뉘 집 따님이냐고 물었다. 혜경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는 저 무동산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었다. 혜경이가 어머니의 이름을 대자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김영순선생의 따님이시군!》

혜경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신부는 이 도시에서 인망이 매우 높은 교육자인 김영순선생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신부님! 그러시다면 혹시 오영결씨라구 아시는지요?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재능있는 젊은 조각가입니다.》

혜경은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았으나 신부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모나리자》같은 세계적인

그림을 남긴 미술가의 이름은 기억하고있는 신부지만 이 도시에 오영결이라는 조각가가 살고있다는 말은 못들었던것이다.

《신부님이 그이를 모르다니?...》

실망에 잠긴 혜경의 눈엔 탐조등불빛이 언뜻 지나갔다. 혜경은 그를 모른다거나 이즈음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세계를 잃어버린듯 앞이 캄캄했다. 세상사람들이 다들 그를 모른다고 해도 혜경이 자기만은 그 인간, 그의 심장, 그의 재능을 알고있기때문인지 하늘이 무너진듯 압담했다. 혜경은 동요시절부터 그와 이웃에서 함께 자란 사이였다. 고향집정원의 동백나무밑에서 그와 함께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자 혜경은 입술을 떨었다.

동백꽃 동백꽃
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다시 피는 동백꽃
헤어져도 다시 만나도

언제나 함께 피는
동백꽃 동백꽃

생각하면 그때는 아직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즐겨부르곤했다. 그 나무에 몇번 꽃이 피고 지는동안에 그의 심장은 사랑이라는것이 기쁨인줄로만 알았다. 생각하면 사랑의 의미를 다는 모르면서도 기쁨의 그 감정마저 아껴온 혜경이였다. 애국적인 지조를 지켜온 가문 출신이며 교육자인 어머니가 자기의 그 마음을 헤아려보고있으면서도 이 거치른 세상에서 이 땅에 뿌리박은 대숲을 딸의 절개의 상징으로 믿고 있다는것을 혜경이는 잘 알고있었다. 허지만 너무나도 아껴온 그사랑을 잃어버린것만 같은 지금에 와서 그가 없이는 자기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것을 의식하는것이 피로왔다.

좋은 앞날을 기약하며 서로 향학열에만 가슴을 불태우려고 애쓴 보람도 없었다.

혜경이보다 두해나 앞서 서울 가서 조각공부를 하던 오영결은 학비에 쪼들린데다가 가정사정으로 중도반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무렵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혜경은 안타까웠다. 어머니의 박봉으로 겨우 공부를 하고있는 자기 처지에서 그를 도와줄수가 없었던것이다. 차라리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도 싶었으나 외동딸 하나를 믿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기대와 성의를 저버릴수도 없었다. 혜경은 자기의 딱한 처지가 눈물날만큼 슬펐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를 밤차로 보내고 서울역 플랫폼에 외로이 서있던 그 밤은 참으로 쓸쓸했다.

혜경은 그날부터 맑은 눈으로 서울을 바라볼수가 없었다. 워낙 빛을 잃고 안정을 잃은 서울은

온갖 사회악만 남은 불합리와 부조리의 도시지만 그래도 오염결이가 가까이에 살고있는 동안에는 한가닥 따스한 감정과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하나의 심혼이 자기를 지켜주는듯싶어 혜경은 외롭지 않았다. 그러던 그마저 떠나가자 갑자기 추위가 닥친듯 온몸이 으스스함을 느꼈다. 하지만 무서운 이악쟁이인 혜경은 몸을 고슴도치처럼 도사리고 4년이란 세월을 의학공부에만 바쳐왔다. 방학때마다 서울역을 떠나는 밤차가 왜 그리도 더딘지 몰랐다. 하지만 상봉의 기쁨뒤에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 뒤따르곤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생활하고있는 오염결의 처지는 눈물날만큼 가궁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오막살이는 흙과 석고로 빚고 칼로 깎고 다듬은 조각상으로 진렬장을 이루고있었다. 손에 조각칼만 쥐면 언제 해가 저무는줄도 모르던 오염결의 눈은 차츰 회의와 고뇌에 젖어 맑은 빛을 잃기 시작했다.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아름다운것을 추구할 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의학도인 혜경의 감각은 민감한것이어서 눈길만 살피고보고도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것은 자유 없이는, 맑은 공기가 없이는 한순간도 진정하지 못하는 그런 심장을 가진 사나이여서 반항하지 않고서는 못사는것이 그의 생리이며 생존방식이기도 했다. 머리우에서는 저기압이 내려누르고 눈앞에서는 권세와 사기협잡배들이 날치고, 방종이 한계점을 넘어란무하고, 발밑에서는 언제 분출될지 모를 저류가 흐르는, 서울거리를 걸으면서도 혜경은 고향도시 광주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심장에 청진기라도 댄듯 불안감을 느껴왔다.

하지만 방학에 내려왔다가 돌아가서는 늘 후회하였다. 그에게 무엇보다도 녀성의 따듯한 손길이 필요하다는것을 느끼면서도 혜경은 언제 한번 그를 뜨겁게 포옹해주지도 못했었다.

달밤이면 구슬을 내뿜는듯싶게 빛을 발산하며 서기어린 무등산은 그들의 어릴적 꿈이 깃든 사랑의 동산이기도 했다. 광주라는 첫글자는 이곳의 진산인 이 무등산의 그 맑은 빛에서 생긴 이름이기도 했다. 혜경은 방학때마다 오염결의 손목에 이끌려 무등산에 올랐다. 그때마다 혜경의 눈에는 그가 마치도 그림편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싶어하는 어린애처럼 가궁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혜경은 소년시절처럼 숨박꼭질하듯 나무뒤에 숨어 요리조리 피해달아나며 웃어버리곤했다. 그러나 오염결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단지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써 자기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고있는데 당신은 너무도 뻥담하다고 불만스러워했다. 그때마다 혜경은 그의 고수머리카락을 쓸어만져주며 다짐을 받듯이 속삭이곤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줘요. 네,

꼭 참고 기다리지요? 기다리지요?》

《기다리는게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당신이 나처럼 온 심장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있소. 하지만 당신이 옳을수도 있소. 이 무서운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겠소?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기약하지 않는것이 옳소. 래일에 우리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소. 내가 당신을 다시 못볼수도 있을거구...만일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해도 말이요. 우리 집에와서 벽장쪽에 친 백포를 들치면 거기에 내가 온 심혼을 바쳐 깎고 다듬어온 조각이 있소. 그걸 보면 내가 당신을,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수 있을겁니다. 아직 미완성작품이긴 하지만 거기엔 나의 녀이 깃들어있소. 그걸 보면 내가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리유와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심정을 알수 있을겁니다. 내 조각가로서 당신에게 선물할수 있는건 그것밖에 없소. 내가 당신에게 하고싶던 말은 이것뿐이요. 잘 가요.》

이것이 지난 겨울방학때 혜경이가 그에게서 들을수 있는 마지막말이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었다. 그때 그 조각을 보여달라고 졸랐으나 그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엄격한 어머니에게서 교양을 받은 혜경은 그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혼하기전에는 자기를 깨끗이 지켜야만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것이 오해로 되지 않기 위해 혜경은 자기를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을 상냥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와 헤어졌다. 하지만 서울가는 기차에 몸을 싣자 혜경은 창밖을 내다보며 그에 대한 가없는 생각, 늘 자기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 쓸쓸한 생활이 눈에 밝혀

눈물이 났다... 사랑하는이여! 한해만 참고 기다리시라! 내 대학을 졸업하면 그대를 위해, 그대의 재능을 꽃피워드리기 위해 이 한몸 바치오리다. 광주땅의 공기를 마시고 무등산의 흙내와 숲냄새를 맡으며 달빛과 해빛에 반짝이는 산천의 그 맑은빛을 눈에 담고 함께 자라난 내 그대결을 떠나서는 살곳도 죽을곳도 없으리라...

혜경은 자기 내심의 목소리를 그앞에서는 한번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혜경은 자기의 고향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서울에서 듣자 눈앞에 뻔뻔져 떠오르는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였고 귀전에 다시금 울리는것은 그의 목소리였다. 폭동에 대한 소식은 마치도 오염결의 그 젊은 심장이 중세기적인 중압을 견디다 못해 파열되었다는 소리처럼 들렸던것이다. 불안하고 초조하면서도 한편 이상야릇한 흥분속에 서울역을 떠났으나 도중에서 교통이 마비되어 어제아침에야 이곳에 도착한 혜경은 그의 집부터 먼저 찾았던것이다. 그 작은 오막살이는 텅 비어있었다. 사투 허전한 심정으로 고향집에 도착한 혜경은 대문밖에서 자기를 맞아 주는 어머니의 치마폭리에 매달린 소년을 보았다.

오영결의 동생이었다. 혜경은 그 애를 와락 끌어 안고 불을 비볐다. 어머니가 오영결의 쪽지편지와 함께 백포에 쓴 조각상을 헤쳐보았을 때 혜경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진실이라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것은 젊고 아름다운 녀성이 첫 애기를 두팔로 받들어 하늘높이 쳐들고 어머니가 된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땅을 밟고 굳세게 서있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었다. 파쑸의 폭압에 대한 반항, 자유에 대한 갈망, 그 어떤 미래를 상징하는 형상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쩌면 혜경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얼굴도, 눈매도, 선이 선명하고도 섬세한 몸매도 혜경이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면서도 예술가의 넋과 사랑이 깃들어 있어서인지 더욱 진실하고 아름다와보였다. 조각대 테두리에는 《혜경씨의 얼굴에 영원한 미소가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념원하면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다른 때 이 글발을 읽었다면 혜경은 야속하여 노여웠을것이지만 준엄한 시각이여서 그런지 고통받는 그 어떤 숭고한 정신이 자기를 아껴주고 지켜주다가 이것을 남겨놓고 영영 떠나가버린듯 가슴이 찢기는것만 같았다. 그날부터 혜경은 광주의 대생들과 같이 부상자를 담가로 나르면서도 애타게 찾고 찾았건만 오영결의 얼굴은 볼수가 없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며칠전 항쟁이 가장 가열차절하던 날 머리에 흰수건을 질끈 동인 그가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며 뼈라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투쟁을 호소하는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불덩어리같은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것을 보면 필경 잘못되었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혜경이 후회를 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현실이 암담했다.

그는 신부에게 자기 심정을 호소할 용기가 나지않았다.

이 세상일에 밝은 신부는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아가씨는 애인을 찾고있는것이 분명한데말이요. 이것 보시오, 아가씨! 마음을 좀 진정하시요. 눈앞에서 피가 흐르는 이런 때엔 아가씨! 사랑의 언약이란것이 매우 무력할수 있다는걸 알아야 하오. 신앞에서의 맹세두 저버리는 때니 허는 말이요. 지난번 이 거리에 나타나 귀족같은 만행을 감행한 저 악명 높은 공정부대에는 한때 신학교에 다닌적 있는 하느님의 신도라고 떠벌이던놈들도 있었소. 더러운 유다같은놈들이말이요... 그건 그렇구. 지나간 일은 약파요. 탐조등이 비쳐오는 대숲 저쪽에서 맹수처럼 울부짖는 저 야수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오. 아가씨, 미구에 우리 도시는 더욱 처참해질것이요.》

혜경은 길바닥을 스치는 신부의 검은 옷자락에 탐조등빛이 빙글거리는것을 여겨보며 신음하듯

물었다.

《아- 이 무서운 밤에 신부님은 누구를 찾아 거리에 나오셨나요?》

《나말이요? 나두 아가씨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꽃같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걸 내 어찌 보고만 있겠소. 그들을 구원하는건 성직에 있는 나의 천분이지요.》

신부는 하늘가 저 멀리를 숙연히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동안 시민대표의 한사람으로 선출된 그는 이번 사건을 조절하기 위해 폭동주모자도 만나보고 군부대에도 드나들며 쌍방의 요구조건을 제기해보았다. 하지만 타협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폭동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흘린 피의 대가는 너무도 값비싼것이어서 그것을 놓고 군부와 흥정하기에는 때가 늦었던것이다. 하지만 최후의 시각을 앞두고도 끝까지 지탱점에 집착해있는 청년들을 만나려고 찾아가는길이였다.

《아가씨, 나하구 같이 갑시다. 저 무등산에 있던 청년들도 내가 찾아가는 거기에 모여와있을것 같소. 혹시 그들속에 아가씨가 찾는 그 젊은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사랑의 힘은 신의 뜻보다 강한 때도 있소.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 젊은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천사가 돼준다면 나는 그에서 더 기쁜 일이 없겠소. 우리는 힘을 합쳐 어떻게든 그네들을 구원해야 하오.》

신부는 생각에 잠겨 탐조등에 얼른얼른 비치는 혜경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녀성의 아름다움은 총검보다 위력할 때도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이 살벌한 밤거리를 홀로 헤매는 처녀를 신부는 도와줄뿐만아니라 그에게서 도움을 받고도싶은 심정이였다.

혜경은 말없이 신부를 따라 도청앞 광장쪽을 향해 걸어갔다. 불현듯 더욱 강력한 탐조등불빛이 뻗쳐오는 도시밖에서는 아츠러운 소리가 들려왔으나 도청안에서는 비장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
꿈에도 소원은 자유
이 겨레 살리는 자유
자유여 어서 오라

혜경은 처음 듣는 노래소리가 아니건만 가슴이 북받쳤다. 어제 오늘 벌써 여기를 두번이나 찾아왔다가 헛걸음을 한 혜경은 별로 기대를 가지는 어렵지만 여기말고는 갈데가 없었다. 담가를 맞들고 도청밖으로 나오는 청년들의 얼굴이 탐조등에 얼른얼른 나타났다. 지하실에서 동료들의 시체를 찾아 옮겨가며 부르는 노래소리는 더욱 비장했다. 죽은듯 고요하던 광주시가 불현듯 숨을 쉬는것만 같았다.

혜경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살펴보았으나 담가

우에도, 담가를 든 사람들속에도, 도청앞에 늘어놓은 얼굴들속에도 오영결은 없었다.

세 소년이 바깥에서 강통에다 물을 길어놓고 무장을 갖춘 웬 청년을 따라 뒤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미 이곳을 여러번 찾아온바 있는 신부는 혜경을 데리고 보초가 선 뒤문을 쉽게 통과해 들어갔다. 앞에 선 소년들을 뒤따라 긴 복도를 지나 총계를 밟고 옥상으로 올라간 혜경은 무엇이랴 형용할수 없는 비장한 감정에 휩싸여 입을 열었다.

평면으로 된 옥상에는 조명이 밝지 못했다. 혜경의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스름해보이다가도 탐조등불빛이 대각선을 그으며 스쳐지나갈 때마다 환히 나타나곤했다. 그 찰나를 놓칠세라 한 사람한사람을 눈여겨보았다. 소년들의 손에서 강통이며 바깥찌를 받아서 입에 대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도 그들더러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눈을 부릅뜨고 쫓기도 하고, 카빙총을 광장쪽으로 겨누고 조준렌즈를 해보기도 하고 금시 불을 달면 터질 화약에다 도학신을 늘이기도 하는 사나이들의 눈동자는 쏘는듯 예리했다. 다들 새파랗게 쬔었다. 혜경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애정이 남겨 있었다. 하얀 위생복을 입은 혜경은 이 밤 옥상우에 밝으면서도 이상야릇한 색조를 가미해주고있었다. 웬 처녀냐고 문듯 신부의 얼굴을 의문스레 쳐다보면서도 입에서는 노래소리를 그치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다.

《아마 이 -개땅쇠들아! 노래랑 신부님따라 천당에 가실랑 부르구 빵이나 묵어라. 게 가문 선녀를 만날텐데 짜자구 니 헛눈 파노?》

짐짓 고향땅의 흠내 나는 옛사투리로 똥을 하며 터뜨리는 호방한 웃음소리에 혜경은 깜짝 놀라 살펴보았으나 그가 찾는 얼굴은 아니었다. 여기서도 그 얼굴은 볼수 없게 되자 이 세상에서 더는 할일이 없어진듯 생기를 잃어버린 혜경은 서있을곳을 몰라했다... 잠시후에 이마에 흰수건을 질끈 동인것이 유표한데다가 긴 장발을 한 머리카락이 스치는 어깨우에 탄알상자를 멘 청년이 불쑥 옥상에 얼굴을 나타냈다. 제 룡감인지 혜경은 얼굴을 보지 않고도 감각으로 《그이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체취와 숨결을 느끼었다.

비로소 혜경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가치를 의식한듯 숨소리가 높아지고 두눈에 불꽃이 반짝였다. 두팔 벌리고 막 달려가서 그림던 그 가슴팍에 안기려고 한발자국 내디디던 그는 그만 신부의 등뒤에 숨어들어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었다. 그렇게도 애라게 찾던 그, 살아있는 그를 눈물 없이는 만날수 없었으나 그 한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의 비장한 얼굴을 생각하니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수가 없었다.

탄알상자를 저쪽 란간결에다 내려놓고나서 신부앞으로 다가오는 오영결의 발자국소리에 뒤이어 그림던 그 목소리를 듣자 혜경은 가슴이 조여

들었다.

《신부님! 왜 또 오셨습니까? 우리의 요구조건이 실현될수 없는 굴욕적인 대화에는 이미 종지부를 찍었는데 왜 또 오셨습니까? 우리더러 투항하라고 설교를 하시렵니까. 이젠 그런 설교엔 실증이 났습니다. ... 신부님, 빨리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여보게 영결이 이사람아, 지나간 일을 가지구 신부님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자네답지 않군그래.》

름름하고 날파람있게 생긴 체구며 나이도 영결이와 비슷한 20대의 청년이 계단을 올라오더니 밀막아나섰다. 못시선이 그에게로 쏘리는것을 보아서 주동자의 한사람임을 짐작할수가 있었다.

《신부님! 이사람 말을 노엽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부님의 그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와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허지만 신부님, 저두 이 사람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군요.

여기는 신부님이 서계실 자리가 못됩니다. 그렇게 아시구 어서 돌아가주십시오.》 하고 그는 작별하듯 고개를 수그려보이고는 저쪽 란간결으로 걸어가며 도시밖을 내다보았다.

등뒤에 서있는 동행자의 일은 망각해버리고 자기 생각에만 잠긴 신부의 얼굴을 살피는 시선들속에는 나어린 소년들의 여섯 눈동자가 탐조등불빛이 스칠 때마다 유난히도 반짝이고있었다. 오영결은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애들아, 너희들은 왜 또 나왔느냐?》

《마실 물을 길어왔어요.》

《용타, 이젠 됐다. 너희들은 신부님을 따라 빨리 떠나가거라.》

《아저씨들은요?》

《우리두 곧 뒤따라 가마, 자, 빨리 먼저 떠나가거라.》

가라고 아무리 쫓아도 아이들은 란간결을 살살 맴돌며 가지 않았다.

돌연 《제군들!》 하고 자못 엄숙하게 부르는 신부에게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제군들! 이 늙은 사람의 말을 듣는게 해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희생되기엔 그대들이 너무도 젊소. 앞길이 구만리같은 그대들이 아깝소. 그래서 나는 시내 장로교 목사들과도 의논했소. 우리 도시의 성당, 교회당에 그대들을 피신시키기로 약속을 해줬소. 저 악마같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전에 나와 같이 여기를 떠나주기를 바라는바이요. 이것은 신의 뜻이니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군들!》

신부는 눈물어린 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에 십자를 그었다.

잠시 조용했던 오영결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신부님두 참, 우리의 불타는 심장과 자유로운 녀를 도대체 어디다가 숨겨둔단말입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천당으로나 안내하지지 땅위에 있는 교회당으로 끌구가실 생각을 하시다니요… 허허…»잠시 말을 끊고 웃음을 거두더니 거리쪽을 내려다보며 명상에 잠긴 오영결은 신부의 등뒤에 누가 서있는지는 살피지도 않았다.

폭동의 주동자인듯싶은 사나이들은 줄곧 검질 기계 비쳐오는 탐조등불빛너머로 도시밖을 살피며 저쪽 란간결에 몰켜서서 무엇인가 의논하고 있었다.

신부는 목상하듯 눈길을 떨구고 생각에 잠겼다. 오영결은 신부에게로 다시금 눈길을 돌리더니 좌스러운듯 고개를 수그리며 《신부님.》 하고 조용히 불렀으며 차츰 목소리가 격렬해졌다.

《저의 무례한 발언을 용서하십시오. 신부님, 말씀대로 우린 젊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젊음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젠 때가 늦었습니다. 저 거리가 우리 광주의 아들딸들의 피로 물든것을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망친다는건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우리의 벗들과 80만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비렬한 행위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사랑할수도 없고 사랑할수 없을진대 우리의 심장을 뽑아던질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좌우명입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죽을수 있어도 인간된 존엄과 정신만은 끝까지 지킬것입니다.》

그립던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비로소 자기의 심장이 살아서 고동치고있음을 의식한 혜경은 고개를 쳐들고 그에게로 접근하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다는 몰랐던 오영결을 새롭게 보는듯싶었다. 그런데 이 순간 저쪽 란간결에서 누군가가 오영결의 말에 호응하듯 웅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수 없을진대 우리의 혀와 눈을 뽑아던질지어다-》

뒤따라 다들 노래로 호응하였다.

우리의 소원은 자주
꿈에도 소원은 자주
이 겨레 살리는 자주
자주여 어서 오라

오영결은 이 노래에 목소리를 합치며 란간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혜경은 눈에 눈물을 담고서도 밝고 깨끗한 고음으로 따라 불렀다. 오영결은 문득 놀라 돌아서더니 신부앞으로 걸어오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동행자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신부는 혜경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장벽이 물러선듯 앞이 띄었다.

혜경은 희미한 조명아래서 타는 눈길로 오영결을 바라보며 노래로써 호응하고 노래로써 생각하듯 온몸으로 불렀다. 남성들의 낮고 비장한 목청을 고음으로써 뒤흔기며 끌고서, 저 멀리 새들이 날

으며 우짖는 맑은 창공을 찾아, 연록색 초원과 설레는 바다를 넘어 새세계를 부르고, 통일을 부르고 또 부르며 이끌어갔다.

혜경의 아름다움은 날씬하면서도 균형이 잡힌 육체의 매력이나 부드럽고 선이 선명한 얼굴에 있는것이 아니라, 긴 속눈썹밑에서 이글이글 타는듯싶은 눈빛과 맑고 광량하면서도 명상적인 목소리에 있는것이였다. 하지만 그것도 오영결의 불타는 심장과 함께 숨쉴 때만 흠잡을수 없이 아름다웠다. 왜냐 하면 오영결의 곁에서만 그의 눈은 반짝이고 그의 얼굴은 밝고, 그의 목소리는 맑고 힘차기때문이였다. 젊은 사나이들은 자기들의 노래에 화음된 녀성의 아름다운 고음을 감득하고 그의 존재를 몸가까이에 느끼였다. 귀에 익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오영결의 눈에는 삶의 불꽃이 타오르고있었다.

《아니 혜경씨? 당신이?!》

《저예요. 영결씨! 혜경이에요.》

그들은 그립던 얼굴을 서로 뚫어지게 보며 마주접근해갔다. 어스름이 점차 걷혀가는 새벽하늘이 비껴도는듯싶은 눈과 눈이 희미한 조명아래서 마주치자 불꽃이 튀는듯도 했다.

《혜경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전 어제야 도착했어요. 오늘 전 여러번 여기를 찾아왔었어요.》

《내 무등산에 가있을 때겠구만…》

《전 찾았어요. 안타깝게 찾았어요.》 하고 혜경은 오영결의 넓은 가슴팍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며 눈을 내리감았다.

《그런 사이로군.》 신부는 기뻐했다. 그의 눈에는 저 젊은이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 저런 아름다운 아가씨를 점지한것만 같이 보이기도 했다. 옥상에 있는 모든 눈동자들이 밝고 따스한 빛을 띄고 그들의 상봉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런데도 오영결은 웬일인지 하얀 위생복으로 감싼 혜경의 잔등을 두루 더듬다가 그를 멀리하듯 가볍게 밀치며 물러섰다.

이때 도시밖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굼주린 이리떼가 아가리를 벌리고 물려오는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는 란간을 질고 적정을 살피는 오영결네곁으로 다가갔다. 옥상 한복판에는 혜경이만 남고 다들 한쪽 란간결에 쏠렸다.

새파랗게 설레이는 대숲과 그 저쪽으로 하얗게 내린 락하산이 병긋거리는 군용트럭들의 전조등 불빛에 비껴 대낮처럼 나타나보였다. 공수륙전대들이 우글거린다. 그 무슨 액체병을 입에 대기도 하고 날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하늘을 베며 날 뛰기도 한다.

인간적인 모든것을 잃고 야수성과 포악성으로 무장한 눈알들이 전조등불빛과 더불어 희번득거리며 도시를 노려보고 있었다.

오영결은 동료들과 무엇을 의논하는듯싶더니

급히 혜경이를 데리고 옥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천정에 드리운 전등이 아니라 벽에 걸린 카바이드 등불빛이 어스름히 내비치는 아홉번째 계단에 그들은 엿비듬히 마주앉았다. 검은 옷자락을 날리며 뒤따라 내려오던 신부가 그들의 머리위의 네번째 계단에서 발걸음을 멈춘줄도 그들은 몰랐다.

《혜경이 그리웠소. 몹시 그리웠소.》

《나는 그림지 않은줄 아세요?!》

《아-혜경이, 당신이 어쩌면 이 엄숙한 시각에 나를 찾아왔소? 영?》

오영결은 조각칼을 쥐던 손으로 혜경의 머리카락을 쓸어만졌다. 뜨거운 입김에 혜경은 목언저리가 서물거렸다. 오영결의 눈은 삶의 불꽃이 피어오르다가 한순간에 타버린듯 내리감기였다.

《영결씨! 이 몇해동안 당신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셨어요. 지금이 순간만이라도 고통을 잊어주세요. 이봐요. 눈을 뜨시구 내 얼굴을 좀 봐요. 우린 함께 있지 않아요. 함께 있지요?! 이젠 전 아무데도 가지 않구 당신곁에 있겠어요.》

혜경은 두팔을 벌려 그의 손을 꼭 끌어잡고 그림던 그 얼굴을 지켜보더니 가슴에 파고들어 하나로 융합되고 융해되려고나 하는듯 무엇인가 말할듯싶었다. 생각하면 너무나도 사랑하기때문에 아껴온 사랑이었다. 귀중한 그 말이 입밖에 나가면 식어질가보아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 그들이건만 상봉의 시각은 너무도 짧았다.

시간이 없었다. 밖에서는 땅크와 군용트럭이 구울러오는 소리, 총소리, 철의 장막이, 굉음이 도시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금 도청이 아니라 난바다로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창에 앉아있는 것만 같다. 이 엄혹한 시각에 혜경은 웬일인지 어린시절에 함께 부르던 동백꽃. 동백꽃 노래가 생각났으나 입술이 떨려서 부르지 못했다.

《작두날에라도 올라설 사내대장부의 심장두 당신을 보니 약해지는구려. 이 엄숙한 시각에 내 거연히 쳐든 머리를 수그려야 한단말인가?...》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전 당신을 데리러 오진 않았어요.》

《혜경이 고맙소. 내 언젠가 당신에게 약속한바 있소. 당신의 얼굴을, 아니 앞날의 당신 모습을 산 인간처럼 조각해서 아름다움의 절정에 세우고 싶었소.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소.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남기구 가는 산 예술작품은 그것밖엔 없소. 거기서 미래를 상징하는 영원한 미소를 당신이 감득할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겠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수 있는 사랑의 전부요...》

《전 보았어요. 당신의 작품을, 저의 어머니이 전사했더군요. 당신의 동생도 어머니이 집에 데려왔어요.》

《혜경이 고맙소, 동생때문에 걱정했더니 정

말 고맙소. 그리고 그 작품엔 나의 심혼이 깃들 어있소...》

이처럼 준엄한 시각에도 오영결은 미술이 화제에 오르자 활기를 띠고 눈에 생신한 빛이 떠돌았다. 그는 눈물이 젖은 지금의 혜경이가 아니라 소녀시절의 감쪽한 계집애던 그의 코등을 손가락으로 튕겨주곤하던 시늉을 하며 웃었다.

《혜경이,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소?》

《아니야요. 저는 이해할수 없어요.》

《혜경이, 용서하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랑보다 아름답고 귀중한것이 무엇이겠소. 허지만 자유는 사랑보다 더 귀중하오. 내 당신과 함께 백년을 살고싶었던만 자유 없이야... 놈들은 지금 이옥상에 마지막까지 지탱하고있는 우리들을 주목하고있소. 동료들의 피에 젖은 이 땅에서 내가 만일 놈들의 발밑에 엎드려 굴복한다면 내 어찌 우리광주땅의 아들이겠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두 전 알고있어요. 당신의 심장이 어떻다는걸 알고있어요. 아까 신부님에게 허신 말씀두 들었구요.》

《그렇다면 혜경이, 나의 마지막부탁이니 들어주오.》 하고 오영결은 손을 꼭 쥐고 혜경의 눈을 들여다보며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 옥상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곧 여기를 떠나주오. 혜경이, 이것이 사랑이요.》

주위는 비좁고 어스름했으나 혜경의 눈은 타는 듯이 강렬한 빛을 발산했다. 그의 입에서는 난생 처음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불같은 사랑의 말이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영결씨! 왜 저에게다 그런 부탁을 하세요? 이젠 그런 부탁을 듣기엔 때가 늦었어요. ... 당신의 영향이예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까진 몰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전 여기를 떠나서 당신없는 세상을 살아갈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허지만 지금의 저는 마음도 몸도 당신의것이예요. 죽어두 살아두 저는 당신의것이예요.》

혜경은 놈들의 발밑에 엎드려 굴복한 패자의 얼굴을 보며 한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를 깨끗이 지킨 그와의 한순간의 삶을 위해 최후를 같이하고싶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의 결을 떠나서는 혜경이 자기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을것이였다.

《혜경이,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도 눈물을 많이 흘렸소. 당신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어머니를 생각해보오. ... 그리구 내 동생도... 내 당신을 어떻게밖에 달리는 사랑할수 없구려.》

오영결은 눈길을 떨구었다. 아끼는 마음이 그의 사랑이기도 했다. 삶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워도 당신만은 살아야 한다는것, 후날 나와 나의 동료들이 갈망하던 자유로운 세상이 오면 행복할 당신의 얼굴과 이 땅에 새로 태어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죽을수 있다는것- 이것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나이의 심장임을 알아달라고 그는 호소

하며 혜경의 눈곱에 고인 눈물방울을 훔쳐주고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아- 더 말씀하세요... 영결씨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거예요!》

혜경은 아직 어머니 손길 말고는 그 누구의 손도 와닿은적이 없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앞가슴에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끌어다가 안고서 고수머리카락을 쓸어만지었다. 그의 손길은 떨렸다.

최후의 시각을 앞둔 그들의 사랑은 숭고하다할 만큼 아름다웠다. 신부는 깊은 생각에 잠기여 옥상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름다움이란 사랑을 담은 그릇이라고도 일러왔다. 그는 이 거치른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진실한 이 젊은이들의 존재도 처음으로 보는듯싶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번은 찾아오는것이지만 숭고한 사랑은 아무 사람에게나 찾아오는것도 아니고 아무때나 찾아오는것도 아니었다. 조용하게 100년을 살아도 다는 알지 못할 인생의 새로운 의미로서 결합된 그들의 낮은 죽음의 심연을 자유로운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다. 불현듯 밖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황급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하얀 위생복자락을 날리며 오영걸과 나란히 서서 광장을 내려다보는 혜경의 등뒤에서는 신부의 검은 옷자락이 펄럭거렸다. 여기 옥상에서는 죄다 보였다.

공수륙전대들이 도시를 점령해들어오고있었다.

탐조등, 전조등, 전지불빛이 피에 젖은 새벽거리를 살살이 뒤집고있었다. 피물은 칼날이 번뜩인다. 총소리, 칼부림소리, 군화발소리, 단말마적인 부르짖음소리, 신음소리, 전대미문의 살륙전이 벌어졌다. 처녀를 라체로 가로수에 매달고 칼부림하며 피를 낸 폐락에 너털웃음을 치는 상관들, 길바닥을 썰며 굴러온 군용트럭과 탱크가 광장에 덮어썩었다. 전조등불빛이 란무하는 광장에는 살기어린놈들의 눈알이 오글오글거린다.

야수와 인간의 대결이었다.

혜경은 탐조등불빛을 한손으로 막고서 내려다보며 치를 떨었다. 최후의 결사전을 앞둔 봉기자들의 눈빛을 표현하기에는 어휘가 부족했다. 투항하라는 놈들의 고함소리에 옥상에서는 총소리로 대응했다. 카빙총을 쏜 청년들의 어깨가 물결치듯한다. 일제사격이 벌어졌다. 그들의 거드랑 밑에서는 소년들의 여섯눈동자가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고있었다.

《혜경이, 이건 우리들의 명령이요. 이 애들을 데리구 신부님과 같이 빨리 뒤문으루 빠져나가주세요.》

오영걸은 어느새에 손에 수류탄을 쥐고 고리를 뽑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순간 혜경은 아까 꽃밭에 눕혀놓고 온 소년의 눈동자가 생각났다.

《아- 인간이란 이렇게도 살기가 힘든걸까?》

혜경은 몸부림치며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는 밝아오른 새벽하늘을 담은 눈길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다가 비칠거렸다.

《아니 혜경아- 네가?...》 하는 너인의 목소리에 다들 통로쪽을 돌아다보았다. 하얀 모시옷으로 백색단장을 한 너인이 옥상에 나타난것이다. 젊지는 않았으나 아직도 미모를 잃지 않은 얼굴만 보고도 혜경의 어머니임을 알수 있었다.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혜경은 아이들의 손목을 끌고 어머니앞으로 다가갔다. 오영걸이도 다가왔다.

《자네두 여기에 있었구만. 그런걸 난 왕청같은데 가서 찾아해뻤네... 참 신부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어머니는 신부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신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보였다.

《어머님, 혜경씨와 같이 빨리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저의 심정을 아시겠지요? 곧 떠나십시오.》

하고 오영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가놓더니 황급히 란간쪽으로 다가가서 카빙총을 잡았다.

《어머니! 이 불초팔을 용서해줘요.》 하고 혜경은 어머니가슴에 얼굴을 묻었다가 떼고는 아이들의 손목을 끌어다가 어머니손에 맡기었다. 《어머님, 저는 여기를 떠날수 없어요. 전 마지막까지 저이곁에 있겠어요. 이 애들을 부탁해요. 어머니!》

《.....》

어머니는 굳어진듯 움직임이 없었다.

정황은 긴급했다. 저쪽 란간곁에서는 몸집이 다부지게 생긴 청년이 두손에 도화선을 쥐고 놈들에게 흔들어보이며 《이놈들아! 올라올테면 올라오라- 이 도청을 폭파해서 날려버리구말테다-》 하고 웨치다가 한쪽 가슴을 부둥키고 뒤로 쓰러졌다.

《어머니! 저는 의학도예요. 전공이 인간의 생명인데 피흘리는 사람들을 두구 어찌 떠날수 있겠나요. 어머니, 이 애들을 데리구 빨리 떠나주세요.》

혜경은 다급히 란간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위생복주머니에서 봉대통구리를 꺼내쥐고 쓰러진 청년의 머리를 무릎우에 놓고서 피흐르는 가슴을 더듬었다.

《영순선생! 아이들을 데리구 빨리 떠나십시오.》 신부는 초조히 거닐며 말했다.

《아- 하늘이 무너져내리구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지 같군요. 신부님, 세상에 이런 일두 있나요?!》

어머니는 성글어진 머리카락을 날리며 입술을 떨었다. 이 도시의 혈통을 이어받은 어머니의 생활은 얻은것보다 잃은것이 더 많았다. 일찌기 학생시절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광주학생사건에 관여한 친정아버지도 이 땅에 묻혔다. 4.19때 서울

서 교수단데모에 참가했던 남편은 그후 군사독재의 희생물로 옥에 갇혔다나와서 이 땅에 묻혔다.

곡절많은 한생을 살아온 어머니는 이 세상과 인생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남은 여생을 딸의 행복을 바라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으나 딸은 지난날의 자기와는 다른 길을 걷고있는것이다.

《애들아- 내 아들딸들아- 이리 오너라. 마지막 일지두 모르니 한번 안아보자꾸나.》

어머니는 두팔을 벌리고 다가가더니 손에 잡히는대로 젊은이들을 끌어안았다. 끝으로 그는 딸과 영결의 목을 한품에 꼭 껴안고 불을 비비다가 놓아주었다.

《이사람들아- 나는 놈들의 발밑에 머리를 떨고 옆드린 자네들을 보러구 찾아온게 아니네. 그래서야 어찌 자네들이 우리 광주의 아들딸이겠나? 나두 마지막까지 자네들곁에 있구싶네만 교육자로서 이 애들을 위해 나는 가네... 애들아, 우린 먼저 가자.》 하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비칠거리며 옥상을 내려갔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절절한 목소리를 뒤에 두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끌고서 뒤문으로 빠져나갔다.

신부는 혜경의 어머니를 보내고나서 옥상 한쪽에 엄숙히 서있었다.

총알은 비발치듯 날아오고 청년들은 하나 둘 장렬하게 쓰러졌다. 그들이 흘린 피는 옥상바닥에 붉은 기폭처럼 퍼져나갔다. 잠시 총소리가 뜨음해졌다.

《신부님두 빨리 떠나시오.》

다급하게 재촉들을 했으나 신부는 혜경이와 오영결의 곁으로 다가갔다.

《나두 조선사람이요. 나는 그대들에게서 진실을 찾았소. 성직에 있는 이 늙은 몸이 이 시각에 그대들을 두고 어대무 간단말이요. 잠간만, 당신들 두 남녀는 내앞에 서있어주오. 그대들은 혼례두 이루지 못했지요... 아, 신의 뜻보다 강한것이 이 거치른 세상에두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대들의 사랑을 두고 이르는 말일수도 있소... 이건 종교적인 의식이기전에 이 늙은 사람의 진정으로 알구 받아주오.》

신부는 자못 엄숙하게 말하고는 두손으로 그들 두 남녀의 머리카락을 쓸어주고나서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에 십자를 그었다.

이윽고 탁치고 들부시고 열어제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총칼을 번쩍이며 도청안으로 밀려드는 소리였다.

점점 수자가 줄어들어 몇명밖엔 안남은 봉기자들은 혜경이와 오영결을 가운데 두고 스크램을 켰다. 혜경이의 눈빛은 오영결의 눈과 더불어 아직은 새벽하늘을 담고있었다.

《무등산아- 잘 있으라-》

《영산강아-》

《광수천아- 잘 있으라-》

그들은 뭉쳐서서 원을 그리고 정든 고향산천을 부르며 웨쳤다. 무등산은 아무 일도 없는듯 새벽빛이 서리어 빛났고 저쪽으로는 여전히 실푸른 대숲이 설레인다.

물맑은 광주천도 저 멀리 옥야를 감돌아흐르는 영산강의 물결도 여전히 잔잔하다.

그들을 둘러싼 하늘은 너무도 푸르고 땅은 너무도 고요했다.

《아-통일의 기운이 서린곳은 어디?...》

《이 겨레 살릴 우리의 조국은 어디?...》

그들은 맑은 눈길로 북녘하늘가 저 멀리를 바라보았다. ...

한편 아이들을 데리고 뒤골목을 빠져나온 어머니는 어느 다리목에 다달았다. 광주의 그 많은 다리를 죄다 기억하고있는 어머니는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도청 옥상에는 놈들이 오르고있었다. 원쑤의 목을 끌어안고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청년의 모습이 보이더니 도청 옥상에는 불길이 치솟아오르고있었다. 모든것이 불길속에 휘감겨들어가고있었으나 봉기자들의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마지막란창을 풀고 왼쪽 가슴팍을 끌어쥐며 주저앉아서도 노래를 부르는 오영결의 이마의 흰수건이 별경계 물들어가있었다. 그의 잔등에 무릎을 고이고 그의 노래에 자기 목소리를 합치는 혜경이의 흰 위생복자락도 붉은 기폭처럼 별경계 들어 펴려있고있었다.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노래소리마저 멎어갔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재능있는 미술가도 예술적인 령감만으로는 창조하기 어렵지만 그대로 사멸할수 없는 하나의 조각이었다. 그들의 뒤에서는 신부의 검은 옷자락도 붉게 물들어가있었다. 《혜경아! 영결아-내 아들딸들아- 내 차라리 너희들곁에서 돌처럼 굳어지고 싶구나- 광주의 아들딸들아-》

어머니는 도청이 잘 보이는 가까운 언덕에서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피타게 절규했다. 그의 곁에서는 소년의 여섯눈동자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있었다.

《애들아-울지 말구 똑똑히 봐뉘라. 너희들은 저 형님들과 누나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더니 갑자기 어른스러운, 엄중한 눈길로 그쪽을 지켜보다가 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무등산으로 올라가고있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형식주의문학론의 반동적본질

한중모

오늘 미제침략자들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온갖 퇴폐적인 부르조아반동문학이 광범히 류포되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쪼먹으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퍼뜨리고있는 퇴폐적인 부르조아반동문예조류 가운데서 형식주의문학은 주요한 흐름의 하나를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형식주의는 형식을 내용과 분리시키며 내용을 형식에 복종시킴으로써 예술의 사상성을 떨어뜨릴뿐아니라 그 예술성을 손상시킵니다.》

형식주의는 문학예술에서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적통일을 거부하고 형식을 내용과 분리시켜 절대화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손상시키고 말살하는 반동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문예조류이다.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학가들이 떠벌이고 퍼뜨리는 이른바 《순수》문학은 바로 형식주의에 기초를 두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식민지 군사파쑈통치에 복무하는 부르조아문학가들이 의연히 《형식주의》와 《순수》문학에 대하여 극성스럽게 떠벌이면서 문학을 부패와 퇴폐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몰아넣고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실례로 원형갑의 평론 《포멀리즘과 현상학사이》를 들수 있다.

원형갑은 이 반동적인 평론에서 구미 여러 나라들에 퍼지고있는 언어학상의 구조주의를 도입한 구조주의문학리론, 현상학적인 미학견해, 《신비평》 등의 반동문예사상조류를 끌어들여 《문학의 말만이 가지고있는 특이한 구조》요, 《현상학적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문학적가치의 창조》요, 《문학을 문학 그자체에 있어 추구하고 근거지으려는 좌표》요 뭐요 하고 황당무계하고 애매모호한 소리를 췌치면서 자기의 형식주의문학론에 그 무슨 새로운 딱지를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인 즉 이미 오래전부터 증언부연해오던 《순수》문학에 대한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이 평론에서도 문학의 특성에 빙자하여 작품의 표현형식을 사상적내용에 대립시키고 절대화하면서 문학의 사회적기능을 부인함으로써 썩어빠진 《순수》문학의 창작과 류포를 장려하고 조장하며 진보적인 사실주의문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지어 그는 분별없게 공화국북반부에서 문학의 정치성을 강조하고 내용을 위주로 하여 작품의 가치기준을 설정하며 인민을 위한 문학을 발전시켜나가는데 대하여 시비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것은 그가 떠벌이는 형식주의문학론이 인민 대중과 그들의 혁명투쟁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의 창작과 발전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무기력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문학을 광범히 류포시킴으로써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방해하고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부지하기 위한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

남조선의 반동적인 부르조아문예비평에서 문학의 내용과 형식문제에 대한 비과학적인 관점과 견해는 형식주의문학론의 기초로 그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문학에 대한 이해와 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데 따라 사실주의와 형식주의가 갈라지게 된다.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본질과 그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오래동안 문학리론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되어왔다.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변증법적관계속에서 고찰하면서 내용이 형식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형식이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면서 그것을 표현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사실주의의 길로 나가게 되었으며 내용과 형식을 분리시키고 대치시키면서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을 절대화하는자들은 형식주의문학의 진탕속에 빠져들어갔다.

남조선에 퍼지고있는 초현실주의, 주지주의, 《의식의 흐름》, 《반소설》을 비롯한 잡다한 반사실주의적인 형식주의문학의 아류들과 그것을 《리론적》으로 밀받침하고있는 반동적인 미학견해들은 모두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에 대한 비과학적인견해에 기초하고있다.

원형갑은 평론 《포멀리즘과 현상학사이》에서 문학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에 대한 관

점으로부터 《사상내용만을 중시》하는 《내용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에 대한 표현형식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포멀리즘(형식주의)》을 집요하게 설교하고있다.

모든 사물현상이 그러한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도 내용과 형식은 변증법적관계에 있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규정적이며 결정적인것은 내용이며 형식은 내용에 따르면서 그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내용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작품은 내용이 심오하고 풍부하여야 훌륭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여 형식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작품에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내용이란 있을수 없으며 내용은 그에 알맞는 형식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전달될수 있다. 형식은 내용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이바지하여야 의의있는것으로 된다. 내용을 떠난 형식이란 아무런 의의도 없다.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을 절대화할때에는 필연코 전일적인 유기체로서의 문학작품의 생리를 어기게 되며 따라서 작품을 파멸에로 이끌어가게 된다.

원형갑이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둘로 기계적으로 분리시키고 표현형식의 중요성만을 주장한것은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에 완전히 어긋나며 작품의 유기적구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

원형갑은 문학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에 대한 비과학적인 관점과 견해로부터 《문학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에 관한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고 작품의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을 절대화하는 형식주의적 립장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그는 이러한 형식주의적미학견해에 기초하여 내용이 텅 빈 무사상적인작품을 만들어낼것을 설교하고있다.

남조선의 형식주의문학론, 《순수》문학론의 주장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것처럼 원형갑이도 자기의 허황한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예술의 한형태로서의 문학의 특성, 문학적언어의 특성을 구실로 삼고있다.

여기에서 그가 들고나온것이 바로 《문학성(시, 예술성)》과 《언어가 가지고있는 문학적성격의 특수성》이다.

그가 들고나온 《문학성(시, 예술성)》이란 문학의 예술적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술성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원형갑은 《문학의 작품을 다른 어떤 목적이나 동기와 요인으로 환원하지 않고 작품이게 하는것은 역시 어디까지나 문학성》이라고 하면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정체를 알수 없는 《문학성》

에 의하여 《작품속의 모든 요소가 지배된다》고 떠벌이고있다.

원형갑의 형식주의문학론에서 《문학성》은 《언어가 스스로 가지고있는 문학적성격의 특수성》과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

원형갑에 의하면 문학은 우선 《말의 세계》인데 《문학상의 말은 다른 사회의 필요나 요청에 의해서 있게 되는것》이 아니라 《문학 그자체의 역사적현실로서 변화할따름》이며 《문학성》에 의한 말의 선택과 결합은 《그 어떠한 목적도 없는 미지의 자기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고 한다. 다시말하여 문학의 언어는 그 어떤 《지시내용》이나 《전달내용》에 한정될수 없고 사회관계의 영향에 의해서가아니라 《그스스로의 생성원리》에 따라 변화한다는것이며 문학은 《말의 세계》이지만 《공적인 사회적인 언어의 세계는 아니며 《말스스로의 유기체적인 자기 능력에 의하여 생성양식화되는 특이한 세계》라는것이다.

원형갑의 이러한 주장과 견해는 문학의 예술적특성과 작품의 생리, 문학적언어의 형상적기능을 란쪽하게 외곡하고 말살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문학이 사회적의식의 다른 형태 레컨대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는것은 논의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문학의 특성은 결코 작품이 그 어떤 사회적목적도 추구하지 않으며 아무런 생활적동기와 현실적요인이 없이 만들어지는데 있는것이 결코 아니다. 문학도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동기와 요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정한 사회적 리상과 요구를 실현하기위하여 창조되고 발전한다. 문학의 고유한 본성은 사회과학과 같은 사회적의식의 다른 형태들과는 달리 현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반영하며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 진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인간학이라는데 있다. 문학은 이러한 고유한 본성으로 하여 사회생활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사람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추동하는데서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원형갑이 문학의 특성을 그 어떤 종잡을수 없는 《문학성》으로 보면서 작품은 이 《문학성》으로 하여 다른 그 어떤 목적이나 동기와 요인과의 관련이 없다고 하는것은 천부당만부당한것이다.

《문학성》에 의하여 《작품속의 모든 요소가 지배된다》 그의 주장도 문학작품의 유기적구성을

보강하는 생리적과정에 완전히 어긋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다.

《문학성》에 의하여 《작품속의 모든 요소가 지배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학성》의 《기묘한 과정》에 의하여 《작품상의 모든 편채물》 즉 낱말, 구절, 문장, 인물, 사건, 줄거리 등이 《예기치 못했던 빛》을 띠게 되고 《새롭고 알수 없는 무형의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일련의 편채현상》을 빚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문학성》이라는 것을 예술로서의 문학의 본성, 예술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상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의 유기적 통일체인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질적 특성으로서 결코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있어가지고 창작으로 작가를 유혹하는 그 어떤 신비스러운 《정신적요청》일수 없다.

주체적 문예사상에 의하여 밝혀진바와 같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과 그들의 호상관계, 사건과 갈등으로부터 작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종자에 기초하여,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게 된다.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시켜나가며 창작과정에 일관하게 방향짓고 이끌어 나가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작가가 생활속에서 탐구해낸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종자이다. 종자로부터 이야기의 줄거리가 뻗고 형상의 꽃이 피어나며 그속에서 주제가 여물고 사상적 내용이 심오하고 뚜렷하게 부각되는 바로 이것이 문학작품의 생리적과정이다.

그런데 원형갑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학작품의 생리적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주요한 것은 창작을 여러 요소들이 편계를 이루게 하는 《문학성》의 신비로운 작용으로 보면서 창작과정이 형상을 통하여 사상적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있다.

원형갑은 문학이 사회적요구를 《생리적으로 꺼려하고》 《사회적요구와는 아랑곳없이 스스로의 말의 내적요구에만 충실하려고》 한다는 그릇된 미학적관점에 서서 작품이 아무런 정치적사상도 표현하고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류포되고 있는 형식주의문학론은 문학의 특성, 문학적언어의 특성에 빙자하여 창작이 작가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창작에서의 작가의 사상의식, 세계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창작활동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만큼 문학작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견해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 것은 창작에서

작가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창작에서 작가를 수동적인 위치에 세우고 그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형식주의문학론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원형갑은 평론《포멀리즘과 현상학사이》에서 작가에게 《너는 왜 쓰느냐고 묻는 것은 쓸데 없고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작품이란 당장 겪고 있는 《사회의 고된거리를 문제시(고발, 폭로 비판, 해결 등)하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력사상의 어떤 얽힘을 풀어보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떠벌어였다. 그에 의하면 《한 인생에게 너는 무엇때문에 사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에게 왜 작품을 쓰느냐고 묻는 것은 그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원형갑의 이러한 녀두리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활동이 아무런 목적지향성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창작의 담당자인 작가에 대한 흑심한 모독이며 창작과정의 합법직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외곡이다.

문학은 사회의식의 한 형태로서 자기의 리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합목적인 실천투쟁과정에 창조되고 발전되어왔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로부터 보다 훌륭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투쟁에 문학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창조발전시켜왔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정신적활동의 산물이며 훌륭한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가치와 커다란 인식교양적기능은 작가의 목적의식적인 창작활동에 의하여 인간성격과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낸 결과이다. 작가가 높은 리상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정열적으로 벌리면 벌릴수록 작품은 더 깊은 사상적내용을 가지며 사회생활에서 보다 큰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원형갑은 문학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사회적기능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목적을 추구하는데로부터 작가가 창작에서 어떠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문학예술을 세계관적인 표현현상으로》 보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그에 의하면 문학예술을 세계관의 표현으로 보면 당연히 소재와 주제사상을 강조하게 되며 그만큼 문학예술자체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작가의 창작사업이 세계관과 관련이 없는 두목적적인 활동이라면 작가로 하여금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원형갑은 그것이 그 어떤 《미지수의 무한한 유혹》, 《작품스스로의 자기 원인》, 《무명의 작가정신》이라고 떠

별이고있다. 즉 작가는 《무한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알수 없는 《작품성》에 홀리어 작품을 쓰지 않고서는 배길수 없게 되는데 《일종의 작품성 또는 문학성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의 자기원인》은 사회적으로인으로는 설명도 할수 없고 이해도 할수 없으며 《작품행위의 모체》로 되는 《무명의 작가정신》, 《미지의 작가 정열》은 사회의식과 관련이 없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원형갑의 주장대로 하면 작가가 자기의 의도나 지향에 의하여 작품을 창작하는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인 작품》 작가를 창작으로 끌어들이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엉터리없는 수작이다. 원형갑이 떠벌이는 작품창작과정에 작용하는 《미지수의 유혹》은 《말의 유혹》과 련관되어있다. 그는 작가가 자기의 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몰랐던 말의 《유혹》에 의하여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며 창작과정에서 작가는 말을 조종하고 부리는 《주인》이 되는것이 아니라 말의 《불모》로 되고 《종복》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चे치고있다.

이것은 원형갑이 작품창작이 작가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으로서 거기에서 작가의 사상이 중요한 작용을 하며 작품이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창작의 주인은 작가이며 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작가의 사상의식, 세계관이다. 사람의 모든 행동과 활동이 그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작가의 창작활동도 그의 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된다. 작가의 세계관은 생활속에서 종자를 골라잡는데로부터 극성을 형상으로 실현하는데 이르는 창작의 전과정에서 능동적인 작용과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작가는 자기의 계급적립장과 사상적지향에 따라 생활을 관찰하고 분석평가하며 예술적으로 일반화한다. 작가가 작품창작에서 어떤 말을 골라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도 그의 사상관점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작가는 자기의 사상적립장과 예술적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주제사상적과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하는데 맞는 말을 골라쓴다.

《작품성》에 유혹되고 말이 시키는데 따라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다는 형식주의문학론은 창작의 합법칙적과정과 완전히 어긋나며 작품을 파멸의 구렁텅이에도 몰아넣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형식주의적문학론의 영향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작가가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는것을 알수 없는 기괴한 작품, 《자률적인 말의 형식화》로 이루어진 피이한 작품들이 지상

에 범람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말에 대한 형식주의적회롱은 술레알리즘을 비롯한 모더니즘시문학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몇해전에 잡지 《현대문학》에 실린 시 《풍경》은 이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싱그러운 거목들 언덕은 언제나 천천히 가고있었다.》라는 이 시의 첫련을 보고 벌써 당황하게 된다. 이 시구절을 보고서는 시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음 구절들을 보고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된다.

《나는 누구나 한번 가는 길을 어슬렁어슬렁 가고있었다.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와 손쥐고 가고있었다》는것이 이 시의 둘째 련과 셋째 련인데 보다싶이 시 《풍경》은 그야말로 피상한 《풍경》이어서 갈피를 잡을수 없다.

여기서는 《언덕》이 천천히 가고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와 《손쥐고 가고있었다》는 전도된 시간관념에 부딪치게 된다. 이처럼 이 시는 시간적으로 앞으로 있을 일과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일을 같은 공간상에 놓고 동시성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리를 혼미케 하고있다.

그런데 원형갑은 이 시를 평한 글에서 시 《풍경》이야말로 자기가 보고싶었던 《미지수의 중심》을 《한마디의 메타포(은유)》로써 나타낸것이라고 하면서 시란 그자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이미지》이기때문에 아무것도 전달할수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미지》라는 말은 보통 영상, 형상, 모습 등의 뜻을 가지고있는데 부르조아문예비평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것을 의식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는 이른바 《심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형식주의문학론의 뒤받침을 받아 건전한 리성을 가지고서는 리해할수 없는 이러한 시 아닌 시들이 널리 퍼져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광범히 류포되고있는 모더니즘시문학의 퇴폐성과 파국상을 작품의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을 절대화하는 형식주의문학론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

남조선에서 류포되고있는 형식주의문학론에서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고 형식을 절대화하면서 내용을 무시하는것은 문학에서의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사상성을 거세하며 그 사회적기능을 말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남조선의 형식주의문학론은 문학이 인간생활, 사회현실의 반영이며 진실성이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는것을 반대하고 있다.

원형갑은 자기의 형식주의문학론에서 문학작품을 《현실의 재구성》이라고 하는것은 《피상적인 의견》이며 작품은 그 어떤 《대상존재》도 없고 《모티브 (동기)》도 없이 순전히 원고지속에서, 《미지수》인 《상상력》에 의하여 《무의 공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잡포대를 늘어놓고있다. 그는 바로 이러한 비과학적인 관점과 반동적인 견해로부터 《인간적이든 사회적이든 역사적이든간에 그 작품이 얼마만큼 진실성에 의해서 씌여지고 얼마만큼 진실한가에 따라서 가치판단하려고 하는》 경향과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립장과 태도를 취하고있다.

문학이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에 대한 예술적재현이며 진실성이 문학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는것은 미학의 기본문제이다.

예나 지금이나 또한 우리 나라를 놓고 보나 다른 나라를 두고 보나 훌륭한 문학작품은 모두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높은 가치를 지니고 인류의 문화적재부로 길이 전해지게 되었다. 현실생활은 문학창작의 원천이며 예술적형상의 바탕이다.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을 떠나서는 애당초 문학이 존재할수 없으며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떠나서는 작품의 가치를 생각할수 없다. 때문에 미학은 오래전부터 문학작품에서 생활의 진실한 반영문제를 중요하게 론하여왔다.

이것은 미학에서 《진실추구란것을 문제삼지 않는다.》고 한 원형갑의 주장이 전혀 무근거하며 사실을 전도하며 외곡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의 형식주의문학론에서 생활반영의 진실성에 대한 부인은 사상성에 대한 거부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이미 20년전에 평론 《소설의 제문제》에서 《일련의 사상을 표현하는것이 문학이라는 생각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며 《문학작품에 있어서는 사상은 하등의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주제나 사상성은 《문학의 한 우연의 산물》이라고 떠벌인 원형갑은 평론 《포멀리즘과 현상학사이》에서 작품창작에서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미리 주어지는것이 아니며 작가가 어떤 소재를 어떤 주제에 따라 다루어보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적인 제재는 일단 원고지우에서 작품이라는 명역에 들어서

는 마당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도 안가진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문학에 있어 사회의 정치적 요구와 사상적개념》은 《쓸모없는것》이며 문학에서 《사상성이 중요하다든가》, 《그 사상에 의해서 문학의 가치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오랜 집념》은 《허망》한것이며 《그릇된 오해》이라고 지껄이였다.

높은 사상성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문학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며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선차적인 요인이다.

문학작품에서 사상은 추상적인 개념에 의하여 강조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온다. 작품의 사상성은 생활의 본질을 밝혀내는 형상의 깊이에 달려있다. 훌륭한 작품의 높은 사상성은 현실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문제를 찾아내어 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생활발전의 논리에 따라 깊이있게 풀어낸 결과로 보장된다. 문학작품은 생동하고 진실한 생활형상을 통하여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고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을 가질 때 참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된다. 훌륭한 문학작품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구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데서 커다란 힘을 나타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남조선에서 형식주의문학론의 주장자들이 문학작품의 진실성과 사상성을 반대하는데 급급하는것은 작품의 진실성과 사상성이 그 사회적기능을 강화하는 기본요인으로, 주요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원형갑은 진실성과 사상성이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반대하면서 《문학의 가치는 그 말의 비밀속에서 찾을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말의 비밀》이란 《사회의 사물의 변화》와 관계없는 《그스스로의 생성원리》를 가지고있으며 사물을 지시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과 인연이 없는 《자률적가치를 가진 언어》의 기묘한 작용을 의미한다.

원형갑이 《문학성》이요, 《언어가 스스로 가지고있는 문학적성격의 특수성》이요 하면서 형식주의문학론을 열을 올려 주장하는것은 결국 사회적인식형태,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사회적기능을 말살하고 그것이 인민대중과 그들의 정치적목적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방해하려는데 있다.

원형갑은 평론 《포멀리즘과 현상학사이》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민중주의》, 《공산혁명》, 《정치적내용주의》에 대하여 악의에 차서 비방하고 문학의 《자률성》, 《정치에 대한 무관주의》, 《비민중주의》 등을 부르짖으면서 문학이 《그 어떠한 사회적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사상을 전달함으로써 《정치적선전도구》로 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이것은 그가 지금도 10년 전에 쓴 평론《문학사상의 전망》에서 문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이 진실하다는 그러한 윤리적실천을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며 《공산주의사회의 프로레타리아혁명이나 부르조아적기만, 계급투쟁, 혁명 등의 술한 용어들》이 《현대사상을 흥미케 하고 더우기 문학의 행방을 묘연하게 하고》있다고 췌친 논조를 여전히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남조선의 형식주의문학론자들이 겉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성》을 표방하여나서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부르조아지의 편에 서서 프로레타리아를 반대하는 계급적립장,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반제자주화,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근로자들의 지향을 말살하려는 반동적인 정치사상적 립장에 서있으며 문학이 정치적무기로서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을 저애하기 위하여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드러내고있다.

진실하고 생동한 인간형상과 생활화폭을 통하여 사회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있게 밝혀낸 문학작품은 세련된 예술적형식을 통하여 의식있는 사상적내용을 구현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을 넣어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는데서 커다란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로부터 진보적이며 사실주의적인 문학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는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새 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한 혁명투쟁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로서 커다란 사회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남조선에서 류포되고있는 형식주의문학론이 노리는 기본목적은 바로 문학이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을 가로막으려는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거역하고 허위를 선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파탄을 면할수밖에 없다.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에서 민족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할데 대한 당의 옳바른 문예정책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되고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옹게 결합된것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사상적무기로 되고있으며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만발한 우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자랑스런 성과는 혁명적인 사회주의적 내용과 우아하고 세련된 민족적형식을 옹게 결합시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것이 문학의 본성을 옹게 살리고 그 사명을 훌륭히 다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그것은 또한 문학에서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사상성, 그 사회정치적기능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남조선의 반동적인 형식주의문학론에 대한 강력한 폭로비판으로 되며 우리 문학예술에 대하여 그 어떤 시비를 걸어보려는 시도에 대한 단호한 반격으로 된다.

×

원형갑의 평론 《포멀리즘과 현상학사이》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반동적인 부르조아문예비평은 문학작품의 사상적내용과 사회적기능을 거세말살하며 형식주의문학을 조장류포하기 위하여 구미 여러 나라들에서 떠도는 각종 부르조아반동 철학사상과 미학견해들을 끌어들여 사리에 맞지 않고 흑백을 전도한 엉터리없는 주장, 심지어 신비주의적인 설교를 함부로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문학을 퇴폐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데서 커다란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쇼통치에 복무하는 남조선의 부르조아문학에서 형식주의문학은 《반공》문학과 함께 여전히 주되는 흐름을 이루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형식주의문학에 대한 온갖 주장과 설교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을 철저히 폭로분쇄함으로써 남조선 작가들이 형식주의문학, 《순수》문학을 배격하고 진보적이며 사실주의적인 문학의 길로 나가게 하며 우리의 문학예술부분에 그 사소한 요소도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찢어버릴테다

오필천

치솟는 분노를 담아
찢어버렸다
서울의 네거리 한복판에 펴려이던
가증스런 《일장기》를,

대륙침략의
길은 화약내를 풍기며
남조선에 기여드는 나까소네놈
그놈이 오기도전에
찢어버렸다
오만한 《일장기》를,

보기만 해도
뼈속에까지 저주가 치밀어
이가 떨리고
가슴속 분노가 치미는
혐오스러운 기발,

왜놈이 망해
그 기발이 내려진지 서른여덟해
웬일이냐 그 서른여덟해만에
일제의 식민지총독부가 자리잡았던
피뢰중앙청에서 다시
《일장기》가 펴려이다니

그 기발이었다
저 기발을 날리며
《운양호》를 끌고
우리 강토에 첫발을 들여놓았던
침략의 검은 기

그 기발이었다
《을사조약》의 음산한 가을날에
만백성의 분노한 가슴들을
총칼로 찢고
의로운 3.1의 거리를
피바다에 잠근
탄압의 검은 기

그 기발 날리며
달려간 피젖은 발굽에서
대륙이 불타고
백성의 원한은
하늘땅에 사무쳤거니

말하라,
그 기발 앞세우고 기여드는
일본사무라이후에 나까소네놈
네놈이 품은 속심은 무엇이나
그 듣기 좋은
《우호》와 《친선》, 《협력》이나

일본을 가라앉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며
그 화력을 아시아에 견주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꾸는놈
산천초목도 분노에 떨며
침략자 네놈을 고발한다
략탈자 네놈을 규탄한다

백번인들 와봐라
우리는 그렇게 찢어버릴테다
《시일야방성대곡》의
그 밤의 원한을 담아
치욕의 36년
쌍이고쌍였던 그 분노를
백배 천배로
오늘에 다시 재워
자주통일을 부르는
민족의 열망을 활활 지펴

그렇게 찢어버릴테다
오늘도 래일도... 어느때건
일본놈들이 발들여놓는
내 조국의 신성한 땅에서
그 침략의 야망과 함께
신산이 찢어놓을테다
저주로운 《일장기》를!

《월미도》의 3일간처럼

리기창

나는 얼마전 소설완성때문에 현지에 갔다오는 길에 우리 연합기업소산하 광산에 들린적이 있었다.

한것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함흥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150만톤 유색금속고지점령에 펼쳐나서 영화의 주인공들의 모범을 따라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광부들의 투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조용하고 한적한 깊은 산골에 붙박혀있다가 혁신으로 들끓어번지는 현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첫순간부터 흥분으로 벅차오르는 것이었다.

산발을 흔들며 울리는 발파소리며 끝없이 흘러가는 삭도바가지들...

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인공들이 조국의 관문을 지킨것처럼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채취전선을 지켜 날에 날마다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이곳 광부들의 기상은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월미도해안포병들이 잘 싸웠습니다. 그들은 최고사령부의 명령대로 인민군대의 전략적후퇴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적으로 싸워 3일동안이나 적들의 상륙을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월미도용사들의 영웅적위훈을 잊을수 없습니다.》

나는 이번 취재대상을 제2차7개년계획을 제1먼저 앞당겨 끝냄으로써 이미 지면을 통하여 실화의 주인공으로 소개한바 있는 굴뚝기소대장 김철진동무를 택하기로 결심하고 광산에 도착하자 청년갱으로 걸음을 옮겼다.

낮교대가 끝날무렵이어선지 광석들을 가득가득 실은 광차들이 꼬리를 물고 선광하차장으로 달리고있었다. 갱구옆에 세워놓은 숙보관앞에서 키가 흰칠한 직관원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싸워 계획을 넘쳐한 소식을 쓰고있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김철진소대에 대한 속보가 눈에 띄우지 않는 것이어서 저우기 궁금해졌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요즘 김철진소대에서 계획을 넘쳐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붓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더니 한마디로 대답하였다.

《아직 오늘계획을 못끝냈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의혹은 컸으나 그의 일을 더 방해하고싶지 않아서 발길을 돌렸다.

무슨 일때문에 계획을 못할가? 지난 시기에는 날마다 특보의 첫자리를 차지하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혹시 2차7개년계획을 이미 앞당겨끝냈다고 지금에 와서 자만하는것이냐 아닐가?

나의 머리에는 의문이 삼검불처럼 엉켜들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믿음이 줄지에 무너져내리는 듯한 허전한 감을 안고 갯분초급당실로 향하였다.

무슨 사유인지 한시빨리 알고싶었다. 내가 방안으로 들어섰을 때 몸집이 우람진 분초급당비서는 반색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또 왔습니까?》

《영화의 주인공들의 모범을 따라 일하고있는 광부들을 취재하라고 왔지요.》

《그렇다면 그 주인공들을 찾아 나와 함께 갑시다. 마침 나도 막장으로 가려던걸이요.》 하더니 벽에 걸린 《외래자용》 안전모와 간데라를 나에게 내미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의 뒤를 따라 입갱하는 인차에 올라 앉았다.

《어느 소대로 가자는겁니까?》

인차가 출발했을 때 그에게 넌지시 물었다.

《이미 잡지에 소개된 김철진소대이지요.》

그의 말에 나는 금시 어정쩡해졌다.

《그 소대에선 계획을 못끝냈다면서요?》

《누가 그러니까?》

그의 술진 눈섭이 찡긋 휘여들었다.

방금전에 직관원한테 들었노라고 내가 대답하자 그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려였다.

《물론 계획을 아직 못끝냈다고 말할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중으로 대포를 쏘겁니다. <월미도>의 리태운중대장이 적함을 단방에 박살내던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허허허...》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느닷없이 터졌다. 순간 나는 그의 말속에 그 어떤 뜻깊은 사연이 담겨있다는것을 느꼈다.

나의 예측은 옳았다. 잠시후 그의 설명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은 사연을 알게 되었다.

얼마전 김철진굴뚝기소대원들은 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싸우기 위한 영화실효모임을 가지었다,

그들은 이 모임에서 월미도영웅전사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어머니조국의 관문을 지켜 순간순간을 중심으로 수놓은 월미도방어진투의 3일간처럼 자기들도 인민경제의 첫돌파구를 지켜 하루에 3일분계획을 수행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또한 그들은 월에 3일분 자재를 공급받지 않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내부예비를 탐구리용하는것과 함께 그들스스로가 석수가 제일 심하고 암질이 굳어서 《쏘구역》으로 외면당하던 4호막장을 말아나섰던것이었다.

이처럼 자진하여 높은 목표를 세운 그들이었으나 하루에 3일분계획을 하기전에는 그날계획을 수행한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속보에도 못내게 했구나!)

느닷없이 나의 가슴은 뜨거워졌으로 몽클해졌다. 《월미도》의 주인공들이 살며 싸운 3일간처럼 평범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충성으로 주름잡아 달리고있는 그들을 어서빨리 만나보고싶은 충동으로 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인차마저 굵뜨게만 느껴지는것이였다.

지하의 척후병들이 암석을 밀며 순간의 드림도 없이 충성의 끈은 길로 억세게 뚫고 걸어간 발자국인양 지심깊이에도 일매지게 뻗은 강도를 따라 20여리나 종이 내려가서야 인차가 멎었다.

우리는 착암기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4호막장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참 걷노라니 등뒤에서 처녀의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치는곳...

고개를 돌려보니 안전모를 눌러쓴 애 어린 처녀가 뿌리를 진흙에 감싼 해당화를 들고 들놀이 나갓듯이 걸어왔다.

해변가모래밭에서 피는 해당화를 여기 지하천길속에서 보게 되는 나의 심정은 저으기 야릇했다. 나의 호기심에 찬 눈길을 감추었는지 분초급당비서가 귀뜸하는것이였다.

《굴째 거 동무들은 <월미도>의 영웅이처럼 조국의 모습과 향취를 감수하려는듯 막장후계실에 다 해당화를 더 옮겨심어놓고 매일 저렇게 태양

등빛을 쪼이여가며 꽃피우고있습니다.》

나는 그 한송이의 해당화를 통하여서도 그들이 어찌하여 남달리 하루를 3일맛잡이로 일할 목표를 세우고 그 누구의 눈길도 미치지 않는 지하천길 땅속에서도 월미도영웅전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귀중한 조국을 어깨로 받들고서서 성실한 구슬땀이 스민 광석더미를 조국땅위에 높이높이 안아올리는가를 가슴뜨겁게 감득할수 있었다.

어느덧 4호막장앞에 이른 나의 걸음은 무춤 굳어졌다.

착암기를 기관총처럼 힘있게 틀어잡고 고속도 굴진의 불꽃 드높이 마지막 발파구멍을 뚫고있는 김철진소대장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화면처럼 눈앞에 안겨왔다.

그의 착암대차우에 불꽃처럼 빨강게 핀 해당화가 소담하게 꽃혀있는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어떤지 그의 모습이 《월미도》의 리태운중대장이 해안포를 틀어잡고 미제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들썩우고있는 모습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그것은 착각이라기보다 뜨거움에 젖어든 나의 마음의 거울에 비쳐진 오늘의 산 주인공들의 모습이였다.

뒤이어 그가 오늘 벌써 세번째 발파준비를 마치고 온 막장이 떠나갈듯한 힘찬 목소리로 《발파!》하고 웨치는 순간, 나에게는 마치도 리태운중대장이 적함을 향하여 《발사!》하고 부르짖던 그 힘찬 웨침소리, 조국에 바치는 전사의 심장의 목소리를 듣는것만 같았던것이다.

여기 지하전선을 그날의 월미도로 삼고 싸운 그들은 이날 자신들이 결의한대로 하루에 3일분계획을 넘쳐했던것이다.

하루를 3일맛잡이로 일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가장 빛나게 바쳐가는 사람들, 꽃다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어머니조국땅을 지켜싸운 《월미도》의 영웅들이 지켜낸 3일간에 이어진 오늘의 평범한 나날을 《80년대속도》창조의 빛나는 시간으로 주름잡아달리고있는 그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바치는 주체시대의 혁명전사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리태운중대장이 최후결사전을 앞두고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이며, 번영하라!》라고 마지막으로 남긴 심장의 목소리는 내가 만나본 김철진소대장만이 아닌 그들처럼 살며 일하는 수천수만의 오늘의 주인공들의 가슴가슴에 뜨거워 메아리로 되어 나날이 번영하는 조국의 위대한 송가로 끝없이 울리고있는것이다!

시조

나의 청춘, 푸른 숲

전찬

나는 오솔길을 걷는다

해 뜨는 아침
안개 걷히는 산기슭의 푸른 숲
오솔길 걷는 나를 반기는가
건넌산 비탈에서 배부른 장평이
호기있게 내지르는 고향소리

기쁨은 가슴속에 어리광쳐라
풀잎마다 아롱진 이슬방울은
해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이고
약초밭에 들었던 새끼노루
키낮은 호두림속에 등줄기를 드러내며
제깅에 놀라서 달아나누나

기슭에서 골짜기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푸른가지 설레이며 꼭 들어찬 수림
스무해전에 심었던 이빨나무모들은
대들보감으로 아름이 벌고
십년전에 꾸린 잣나무밭
가지마다 주렁주렁
탐스러운 잣송이를 자랑하느냐

오, 한여름 장마때엔
무너질 사태를 막아
비에 젖고 이슬에 젖고 땀에 젖으며
돌담을 쌓아올리고
흙짐을 쳐나르던 산비탈이여

락엽이 내리는 가을철이면
이빨나무모를 저장함에 안아들이며

밤마저 꼬박기 지새운 지성
헛되지 않게 받아안은 산림

눈덮인 겨울엔 할일도 많더라
가지가지에 무겁게 실리는 눈무지
내 가슴도 짓누르는듯싶어
긴 장대 휘둘러 털어야만 했거늘

새움이 트는 봄,
푸르려가는 여름,
엇바뀌는 계절마다
그 누구에게도 못비길
북받치는 기쁨과 환희가
나에게 있어

남들이 아침마다
시원한 농장의 들길
넓다란 포장길에 웃음 구울리며
자국우에 자국을 찍어갈 때
내 늘쌍 혼자서
이 오솔길을 걷는다만

길 험한 산중을
혼자 걷는 내 마음 안다는듯
푸른 아지 설레이며
나를 안아주는 산발이여

내 티없는 진정을 바쳐가는
남들 모르는 이 오솔길이 없다면
아, 조국땅을 머리 들고 딛는

이 기쁨이 어찌 있을가

들가에 피는 꽃

산속에 웃는 꽃

아름답고 향기로우면 그만이라

남들이야 모든말든

조국을 받드는 내 마음

당의 은혜로운 해빛 안고

이 오솔길우에 변함없이 활짝 피리라

사람들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때없이

이 수림을 찾아온다

식료공장 아낙네들 산열매 따라 오고

배무이공장 끝끝한 패들도

용재감을 고르러

여기로 오고...

령너머 종이공장 지배인도

협동농장 관리위원장도

바쁜 걸음 다그치며

이 깊은 수림을 찾아온다

오는 사람 누구나

수림이 부러워

더 많이 가져가려는 생각.

그래서 만나면

수자를 늘구며 조르거니

어깨 서로 마주대인

봉우리와 골짜기들에

수종별로 가득찬 나라의 채부

그속에 무엇인들 없으랴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약재

황금계절 가을에는

온 산밭을 덮은 산열매

겨울 한철엔 떠들썩한

통나무 풍년이라

로동자도, 농장원도

의사도, 지배인도

산의 신세 지려고

때없이 수림을 찾아온다

그들은 마치도

산줄기와 골짜기가

억만채부 가려놓은 창고의 당반인듯

기뻐서 떠들썩 웃으며...

아, 보람차다

떠나는 사람들

다시 오는 사람들

다정히 반기며 찾아부를 때

땀흘려온 산림보호원의 이 기쁨

수림도 제먼저 알고 설레이누나

언제나 어느때나 찾아오라고-

봄비 오네

기다려 반가운

첫 봄비가 내리네

나무가지마다

새움 티울 이 실비에

눈속에 묻히였던

애기나무뿌리 젖는다

이 봄엔

봄비도 서둘러 내리는가

겨우내 엉키던

마음의 시름은

이 봄비에 다 풀려

아, 내 가슴속에

살며시 벅그는 기쁨의 땅을...

객차안에서 있는 일

다림질한 정복에
정모를 쓰고
모표며 령장도 새것을 달고
려행길 떠났던 객차안에서
유지원생 어린애와 나는 친했네

내가 준 밤도, 호두도
맛나게 먹은 아이
제법 허물없이 나에게 청했네
아저씨의 《군관》모
한번 써보자고

정모를 받아쓴
새별눈의 귀여운 아이
만족히 제 모습 거울에 비쳐보던 아이
신기한듯 놀라운듯
큰소리로 말했네
《아저씨의 모표안에 조선이 있어요!》

형언할수 없는 기쁨이
빛발치는 그 눈동자
그 무엇인가 큰 대답을

나에게서 바라는듯
몽클 안기는 후더움을 안고
나는 생각했네
수려한 조국강산을 다 말기는 뜻으로
우리의 모표며 령장에
조선지도 새겨준 당의 믿음
조국의 미래가 어깨우에 얹어준
무거운 당부를

렬차는 달렸네
웃음으로 넘길수 없는 그때
말없이 생각은 깊어졌네
산발을 타고 한생
내 가꾸고 또 가꾸어
푸르려 무성한 수림이
당의 믿음에
미래의 당부에 대답을 주는듯

밝은 창박을 내다보아도
내 눈앞엔
푸르려 설레이는
아름드리 산림이 꼭 차있었네

산과 나

들어서기만 하면
내 그만 넋을 앗기고마는
거창한 수림의 세계-
언제나 즐거움 차넘치는듯
푸르려 설레이는 산발들

움트고 꽃피고 열매 맺으며
아름아름 향기를 가득히 안은 산,
어깨를 스치는 나무잎들도
등에 업힌 아기의 손길처럼
산은 헤아릴수 없는 부드러움을
가슴깊이 안겨주네
애어린 나무모를 심어 자래우며

애오라지 거기에 기쁨을 두고
산발마다에 흘린 땀
그 한방울도 헛되임 있을가
싱싱한 산, 보배로운 산,
여기에 나의 한생이 빛나고있네
나는 산림보호원이라네

미국놈 폭탄이 별경계 파뒀진 비탈에
미제원쑤에 대한 복수를 안고
내 손으로 일으킨 이 수림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라네
목숨과도 못바꿀 영원한 노래라네

나의 삶

땀흘려 일하다 쉬는 참-

맑은 하늘가에 푸른 잎들을 받쳐들고

남달리 우람차게 솟은

한그루 아름답드리나무 바라보는 순간

번개치는 생각에 내 가슴 울렁거림이여

오, 은혜로운 조국을 만약

이 아름답드리 거목에 비긴다면

나는 그 나무상수리에서

해빛을 안고 춤추는 잎사귀

나무 없이는 못사는

잎새처럼,

실한 줄기로 즙을 받아

그 잎새 싱싱하듯

그의 영광속에서만 삶의 보람을 느끼는

내 진정다해 받들어갈 조국을

비겨말할데는 많아도

그 참뜻 다 나타낼순 없나니

아름드리 거목에 어머니조국을 비쳐보는

산림보호원의 가슴속 형언못할 뜨거움이여

아, 아득한 옛일이 아니었다

나를 낳은 부모가 있고

강토가 있었어도

길가의 풀잎처럼 짓밟히던 우리의 지난날은

조국이며, 그대가 없었던 탓 아니었던가

조국이며 어머니조국이며

락엽이 거름되어 나무를 받들듯

쓰러져도 내 숲을 남겨

그대를 받들리 영원히, 영원히...

-통천군 로상리에서-